



10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10호

(루계 제 720 호)

차 례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불멸의 대강.....	3
우 리 의 10 월.....	7
입당의 날 맹세 지켜 살리.....	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E.C》의 화불은 오늘도 타오른다.....	8
내 한생 안고사노라.....	9
아, 땅아!.....	9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당조직관념.....	10
통합니다.....	10
어제날의 평범한 농민을 세계적인 작가로(2).....	11
우리 당 력사의 그 삼년석달에.....	14
조선속담(청춘, 로년).....	14
논물에 대한 답시.....	15
봉산탈춤.....	16
옛 병사의 시.....	24
들렸다 가세요.....	24

주체문학의 대강	25
딸	25
폭설이 내린뒤	26
우리 당 총비서는 전선에 계신다.....	36
행복한 사람	37
바다가쳐녀래요	37
인민의 복수자	38
구성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39
《첼까슈》	41
인민사랑의 절승 칠보산	42
등산길 내리며	44
나의 병사시절	45
락동강 물소리	56
인덕이 높은 애국자-백선행	57
한여름의 시원한 물	59
처녀의 마음	67
준마형지세	68
우리의 선군시대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사색.....	69
체호브의 창작시간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 돌기념	76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76
배움의 원리	77
삼국시기 식생활풍습.....	78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꽃 패랭이.....	78
《앗을대로 앗으라》와 시인 김창술	79
절벽의 꽃 외 2 편	80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불멸의 대강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그 불패의 진리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비상한 감화력으로 우리 작가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창작적양양으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문학은 인간지성의 최고의 산물이다.

인간이 사회의 모든것을 창조한다면 바로 그 인간세계를 그리는것이 문학예술이다. 그 인간세계에는 천태만상의 다양한 생활이 다 펼쳐지고 인간의 사상정서와 내부적체험의 미묘한 심리까지 다 투영된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학이라고 불려왔다.

자연과 사회를 연구하는 매개 부문마다에는 자기의 고유한 원리와 법칙들이 작용하게 된다.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문학예술도 그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학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현대문명이 도달한 최첨단과학기술도 결코 인간두뇌의 무한대한 사색과 탐구의 세계를 측정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인간학을 창조하는 원리는 인류가 영원한 미지의 문제로 남겨놓으며 대를 물려야 하겠는가. 과연 문학예술창작의 참다운 길을 안내해주는 리정표는 영원히 찾을수 없는것인가.

지금까지 인류문예사는 이러한 숙제를 안고 작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그런 위인을 그리며 수천년을 흘려왔다.

마침내 20세기에 이르러 여기 동방의 조선에서 문학예술의 비범한 영재를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인류문학예술은 문학예술창작의 참다운 원리와 방법을 완벽한 경지에서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1(1992)년 1월20일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가로서 지니고 계시는 위인적천품이 낳은 최고지성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지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적천품은 비범한 문예사상리론활동을 벌릴수 있는 근본바탕이다. 더우기 문학예술형상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품창작

의 생리를 밝혀주는 사상리론을 내놓는다는것은 특출한 예술적천품을 지닌 위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무엇보다도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가 빛발치고있다.

고전적로작에 비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는 문학예술창작의 생리과정에서 그 누구도 감촉하지 못하는 크고작은 요소까지도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그 본질까지 정확히 꿰뚫어보시며 개별적인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열, 백, 천, 만을 헤아리시며 근본적인 원리를 간파하시는 천재적 예지이며 인류가 리상으로 그리는 자주시대 문학의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예견하신 선견지명의 예지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견지명의 비범한 예지는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상한 탐구심과 사색의 산아이다. 비상한 탐구심의 기초에는 창조적인 사색이 동반된다. 사물현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수단은 사색이다. 사색이 없이는 사물현상에 대한 옳은 견해가 설수 없으며 정확한 사상리론이 나올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사상리론은 그 어느 하나도 장군님의 고심어린 사색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것을 창작실천으로부터 출발하시고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고 동서고금의 방대한 문학예술작품들과 문예리론을 연구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창작에 필요한 원리와 방도들을 찾으시였다. 그리고 하나의 형상을 놓고서도 여러 측면에서 사색을 진지하게 거듭하시며 논리적귀결점을 찾으시고 새로운것을 도출해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예지, 비상한 탐구심, 창조적인 사색은 인류문예사에 전무후무한 문학의 대백과전서, 창작교본인 《주체문학론》을 탄생시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은 또한 문학예술창작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새로운 해명을 주는 독창성과 참신성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자주시대 새형의 문학인 주체문학예술을 창조하는것은 그 누구도 걸여보지 못한 생소한 창조의 길이며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새형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건설하는데서 새롭게 나서는 리론들과 창작실천적인 문제들에 해답을 주지 않

고서는 주체문학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주신 문예사상은 독창성과 참신성으로 하여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독창성은 사상의 위대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어떤 사상이나 리론이 체계정연한 구성체계와 풍부한 내용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난 시기의것을 답습하고 구태의연한것이라면 오늘을 향도하는 지도사상, 지도리념으로 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독창성은 한마디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어떤 사상이나 리론, 학설의 독창성은 본질에 있어서 그것이 진수로 하고있는 근본사상, 근본원리의 독창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또한 해당 리론이 어떤 사상을 진수로, 지침으로 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리론의 체계성과 과학성, 완성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되며 독창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창작의 원리와 형상구성방법을 새롭게 밝히고있으며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형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인류사에서 작가라는 직업이 독자적인 사회적분업으로 출현한것은 인류문명사의 시초인 노예사회의 력사적시기라고 볼수 있다. 물론 인류문학은 인류력사의 첫 단계인 원시공동체사회시기에 시작되었지만 당시의 문학은 주로 집단적성격을 가진 구전창작이였으므로 그 창작자는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아닌 집단전체였으며 문자가 창제되기 이전 시기였던 당시에 그것은 구전적인 전승속에서만 존재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인류문예사는 원시공동체사회시기 작가와 그 창작방법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겨놓지 않고있다. 아직은 문학도 창작도 미분화된 맹아상태에 있던 원시사회에서는 작가의 창작문제에 대하여 고찰도 진행할수 없으며 이에 대한 력사의 자취는 노예사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미하고 소박하나마 새겨졌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인 단군조선도 자기의 고유한 서사문자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 리옥을 비롯한 일련의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작품에 대한 기록이 후세에 남게 되였다.

이와 같이 인류문명사의 시초인 노예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수천년 흘러오는 과정에 소박한 문예사상들이 나오게 되였고 인문주의, 고전주의, 계몽주의, 비판적사실주의가 나오면서 자기 고유의 주장과 특징들을 가지고있었으나 그 근본을 이루는 사상의 진수는 없었다. 또한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학설도 자주시대 문학예술창조와 건

실에서 나서는 원칙과 원리들을 옳게 해명할수 없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의 독창성은 끝없는 창조적사색과 탐구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훌륭한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로작에서 문학예술창작의 생리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창작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자주시대의 새로운 문학예술창작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명명하시고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본성적요구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가장 아름다운것으로 보는 미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 사상론의 견지에서 창작의 주체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 문제 등 문학예술창작의 근본원칙과 원리들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생리과정을 조건짓고 기초지어주는 근본원리, 그 핵을 똑바로 밝히는것이다. 더우기 생활의 재현을 통하여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문학창작의 특수한 과정은 그것을 옳게 해명하는것을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었다.

특히 인류문학의 장구한 흐름과정에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문학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관념이 굳어진 조건에서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을 이루는 범주에 대한 옳바른 해명이 있어야 주제, 사상, 인물, 성격과 같은 개별적인 형상요소에 대한 개념을 옳바로 밝힐수 있다.

인류문예사는 수많은 문학원론들과 창작론들을 내놓았지만 문학예술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품의 종자리론을 정립하십시오으로써 오랜 세월 인류문학예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학예술창작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정식화하시였다.

로작에서는 일부 작가들속에서 기성관념에 사로잡혀 종자를 새롭게 발견된 범주로 보지 못하고 주제나 사상 같은것으로 잘못 리해하는 편향이 없어지지 않고있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주고있다.

주제와 사상은 오랜 세월에 걸쳐 문학리론에서

론의되어왔으며 그 과정에 주제와 사상을 문학작품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는 관념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종자도 주제와 사상처럼 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종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이 주제와 사상의 본질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 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물론 주제를 작품에 제기된 사회적문제로 정당하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작품이 제기한 작가의 주장으로 보거나 창작을 추동한 사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주제를 작품의 사상과 거의 같은것으로 보거나 작품의 핵과 같은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지난 시기에는 작품의 핵을 밝히지 못하고 주제에 대한 개념도 바로 규정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사상에 대해서도 옳은 인식을 가질수 없었다.

종자는 주제와도 다르고 사상과도 다르다. 종자는 바로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참으로 종자의 발견은 불의 발견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거대한 사변과도 같은 20세기의 위대한 문예사적발견이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는 문학예술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새롭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는 다방면적이고 심오한 문예사상이 전일적으로 전개되어있다.

고전적로작에는 주체의 인간학리론과 문학의 근본사명문제, 주체성, 민족성의 구현과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문제, 문학예술분야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을데 대한 문제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시대와 문예관으로부터 민족문학예술유산과 혁명적문학예술전통문제, 주체사실주의의 본질과 그 특성문제 등 주체문학예술창작과 건설의 근본원론들이 심오하게 전개되어있다. 또한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으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우리 문학의 지상의 과업으로서의 수령형상창조문제 등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깊이 있는 고전적리론과 형상원리와 방법들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 문학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들에 대한 창작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해명해주고있다.

특히 로작에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를 구현하며 우리 식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문학의 대중화실현문제, 작가들의 정치사상적 및 창작적자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다 해명되어있다.

참으로 주체문학의 대백과전서 《주체문학론》은 비범한 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특성인 계승성과 독창성, 참신성과 다방면성, 심오성이 투철히 구현된것으로 하여 자주시대 문학예술건설의 불멸의 대강으로 되

고있다.

사상리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완성하시으로써 인류문예사상에 길이 빛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랜 기간 문학예술분야에 남아있던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우리 식의 문학예술창작원리와 형상구성법칙을 정립하여 철저히 구현하도록 령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문학리론은 오늘 인류의 리상인 자주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리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체계화하시었다.

인간중심의 문예사상의 창시와 심화발전,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문예사상사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다.

물질중심의 문예관으로부터 인간중심의 문예관으로의 력사적전환은 실로 수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문예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변혁이며 사변이다.

돌이켜보면 인류최초의 미학저서 《시학》으로 세계문예학의 발생을 기초지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수백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문예사에는 형형색색의 문예사상조류들이 출현하였으나 자기의 똑똑한 철학적기초와 진수를 가지고있었던것은 별로 없었다.

물론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인류문예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문예리론을 과학적로태우에 올려세움으로써 공적을 쌓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은 인간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며 작품에 사람을 형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한다는 리해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은 인간학이며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게 복무하는데 인간학으로서 문학의 본성이 있다는 독창적인 명제를 내놓으시여 인간학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인류문예사에서 이처럼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인간중심의 주체적문예사상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체계화하고 완성하시었다.

이것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영원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간중심의 문예리

론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실주의리론을 정식화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실주의리론은 인간중심의 문예학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간과 생활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것을 창작방법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보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주체사실주의의 본질과 우월성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지난날의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에서는 사람을 사회적관계의 총체로 보고 작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역할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릴데 대한 요구를 전면에 제기하지 못하고 객관적현실을 혁명적발전속에서, 역사적구체성속에서 그려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을뿐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사람을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 변화발전과정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그리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형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완성된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실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으며 인간중심의 문예리론으로서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인간중심의 문예사상으로서 인류문예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구성체제와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문예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구성체제와 그 내용은 사상리론의 완성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로서 그것은 선행사상과의 관계를 뚜렷이 밝히며 사상의 역사적지위를 규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의 구성체제는 맑스-레닌주의 구성체제와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내용이 제약되어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세가지 구성부분 즉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리론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선행리론의 구성체제는 그 리론적원천과 시대적조건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역사적제한성을 내포하고있으며 하나의 근본사상을 진수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볼수 없다. 선행리론의 3대 구성부분은 유물변증법적방법에 기초하고있으나 그 매개 구성부분들의 출발적기초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다. 즉 맑스주의철학의 핵은 유물변증법이고 정치경제학의 초석은 잉여가치설이며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의 진수는 계급투쟁리론이다.

선행리론의 이런 특성과 제한성은 그대로 문예

리론의 구성체제의 내용에 반영되어있다. 선행문예리론은 독자적인 구성부분, 구성체제가 아니고 많은 경우 선행고전가들의 미학적견해들과 문예리론은 철학이나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리론을 전개한 로작들에서 제기되었으며 개별적인 작가들에게 보낸 서한들과 력대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들에서 괴력되었을뿐이다.

따라서 선행시기 문예리론은 자주시대가 제기하고있는 문예예술창조와 건설에 대한 방대하고도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원만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의 구성체제와 내용을 과학적으로 완성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업적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진로를 가장 과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민족문학을 건설하는것은 인류의 세기적리상이며 우리 시대에 와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참다운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가정과 예측, 료판적인것으로 밝히는데 머물렀을뿐이다. 그런데다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온갖 반동적인 조류와 류파에 시달리며 인류문학예술은 시련을 겪으며 참다운 길을 찾아 방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적인 민족문학건설에 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상에 기초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질과 면모, 그 건설의 합법칙성과 근본원칙 등 사회주의민족문학건설에 관한 사상을 정연하게 체계화시키고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집대성하여 정립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리론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완성된 혁명적문학예술창작리론을 밝혀주심으로써 인류문예사상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현시대에는 물론 사회주의민족문학을 건설하는 전과정에 향도적기치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인간중심의 주체적문예사상은 문학예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인간만세의 송가로,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장중한 서사시로 되게 하였다.

참으로 인류문예사상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인류문학예술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최길상

송시

우 리 의 10 월

곽명철

참으로 뜻깊은 달이다 10 월은
우리 당의 명절들로 가득찬 10 월
이달에 《ㄷ. ㅈ》의 결성일도 있고
10 월에
영광스러운 당창건기념일도 있고
우리 장군님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환희의 그날도 있고

우리 수령님
혁명의 첫자욱을 내디디시던 그날에 벌써
멀리 오늘을 내다보시고
10 월은 우리 당의 명절로
미리 점찍어두셨던가
어쩌면 불수록 이렇듯 회한하기만 한것인가

정녕 더듬을수록 뜻이 깊어라
우리 당의 뿌리도 이달에 내려지고
우리 당의 탄생도 다름아닌 이달에 새겨지고
자랑찬 우리 당의 위업계승도
여느달도 아닌
바로 이달에 줄기차게 이어졌으니

진정 우리 혁명을
조국의 만년세월에 줄기차게 빛내주시려
수령님 헤치신 혈전의 만리길은 그 얼마였던가
그 10 월에 뚫목을 올린 우리 당을
억년불변토록 다져주시려
기울이신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계절도 단풍 붉은 계절에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당기발을
더욱 붉게 물들이려는듯

가사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그 뜻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력사에 남기신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것이던가

오, 남들은 10 월에 올렸던 붉은기가
땅바닥에 내리워져 버림을 받을 때
우리의 붉은기는
대를 이어 빛나는 향도의 손길따라
백전백승의 락관을 안고
10 월의 하늘가에 해불처럼 더욱 불타고있나니

그래서 그처럼 기쁘시고
더없이 만족하시여
우리 수령님 어느해 10 월의 그날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의 로대우에서
《묘향산의 가을날에》시를 몸소 지어 읊으시며
우리 혁명의 앞날을 두고
그렇듯 흐뭇한 마음
오래도록 금치 못하신것 아니였던가

1 년 열두달은
어느 나라에나 있어라
하나 이런 자랑스러운 10 월은
어디에나 있는것 아니거니

아,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깃들어있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스며있는
아, 10 월은 진정
우리 당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
찬란한 래일이 보여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달이여라

입당의 날 맹세 지켜 살리

홍준성

흐르는 세월속에 이날이 오면
내 절로 생각이 깊어만 지네
성스러운 우리 당의 기발앞에서
입당의 날 다진 맹세 새기여보네
아 오늘도 사는가 그 맹세대로

그날에 시작된 나의 첫걸음
날리는 당기와 함께 왔다네
순간도 헛디딘 걸음 없는가

입당의 날 맹세안고 더듬어보네
아 오늘도 걷는가 그 걸음으로

세월이 흘러도 첫 맹세대로
눈비가 내려도 첫 걸음대로
혁명의 먼길에 나의 한생을
입당의 날 맹세안고 빛내여가리
아 한생을 살리라 그 맹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었다.》

《지도사상, 령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있었다.》

《15년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온돌방에 명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카툰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래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데서 모체적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당창건의 위업을 수행할수 있었던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ㄷ>의 화불은 오늘도 라오른다

박세일

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이 터치는
분노의 폭발이었다
《타도제국주의》

이 행성 불의의 화근
인류의 원수를 향한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타도제국주의》

아 10대의 그 나이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를 누리에 선포하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열혈심장의 분출이여
《ㄷ>의 화불이여!

태양을 따라 도는 행성들인가
그 화불두리에 뭉쳐진
조선혁명의 1세대들
피끓는 가슴과 가슴을 내대고
바위같은 어깨와 어깨를 겹고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로 솟아올랐고...

그 화불 타올라
삼천리금수강산을
살륙과 략탈의 피바다에 잠그었던

간악무도한 일제의 운명을
한줌 연기처럼 훔날려보냈어라

그 화불
혁명의 2세들의 손에 옮겨져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침략자미제의 정수리에
죽음의 불소나기로 쏟아져내렸나니

보아라, 오늘은
《ㄷ>의 그 화불에서
선군의 불씨를 받아안으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
강성대국을 향하여 앞으로!
선군혁명총진군의 열풍을 터치신다

두팔벌려 그 열풍을 호흡하며
장하구나, 혁명의 3세 4세대들이
《ㄷ>가 이미 정한 리정표따라
선군룡마의 나래 활짝 펼치고
사회주의승리봉으로 치달아오르나니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선군조선의 열원으로 뜨겁게 타오르라
선군시대의 광원으로 세계에 빛발치라
오, 《ㄷ>의 화불이여!

내 한생 안고사노라

박근원

백두산 여기서 내 안아보노라
저 수림너머 휘발하강기슭의 못 잇을 곳
《ㄷ.ㄷ》가 태어난 력사의 땅
거기서 날리던 붉은기를

그 붉은기와 함께 10 대의 우리 수령님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시고
《ㄷ.ㄷ》의 기발 높이 드셨나니
그날의 그 붉은기 오늘도 붉게 타는가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와라

우리 당의 뿌리를 안고
선군의 첫 자옥 새겨안은 《ㄷ.ㄷ》
거기서 우리 일심단결의 모습도
우리 백승의 보검도 태어났거니

내 자라며 알았어라
수령님 높이 드신 《ㄷ.ㄷ》의 붉은기

그 빛발로 캄캄한 어둠을 불사르며
조선의 새벽을 안아왔고
숨져가던 민족의 생도 일으켜세웠음을

《ㄷ.ㄷ》의 붉은기 그것은
우리의 당기이고 우리의 선군기발
그 기폭속에 나의 생이 있음을
내 너무도 잘 알기에
나는 청춘의 첫 자옥을
그 기발 높이 날리는 전호에 찍었고
최전연의 산발을 땀으로 적시며
그 기발밑에서 입당청원서를 썼나니

하여 내 가는 앞길에
천만산악이 막아서고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주저없이 헤쳐간다
아, 심장에 안은 《ㄷ.ㄷ》의 붉은기가 있어

아, 땅아!

김령

땅-
우에 살라고 태를 묻어주고
딘고 살라고 발밑에 놓여진 땅이다

인민이 사는 그 땅을
찾고 지켜주시려
혈전수만리 헤치시고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한구석 비운 자리 없이
우리 수령님 로고의 발자취 찍어가신 이 땅!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말라죽을가
속타신 마음에 걸으시였다
큰비가 오면
발가늑 한뼘기 떠내려갈세라
놓이지지 않은 그 마음에 찾아오시였다

한평이라도 늘쿠시려고
바다도 밀어내시였다
넓어진 간척지벌에 짚물이 스며들지나 않는지
논머리에 뚫았으시여
논물을 맛보기까지 하시였다

무심히 돌은
풀잎사귀 한개 열매 한알마저도
수령님손에 보물로 가꾸어진 땅아

척박한 한뼘기 땅도
한줄기 작은 오솔길마저도
수령님손길에 보석처럼 환해진 땅아

받들어올렸구나
인민의 밭그릇을 높이시려고
자신의 밭그릇엔
인민과 다른 식찬 한가지 담으신적 없는
땅아, 너를 품어안은 수령님의 한생이

귀중히 올려다보며 사시였구나
인민의 옥도로 빛내시려고
자신의 신발은
감탕길에 흙투성이여도 기쁘기만 하신
땅아, 너를 걸군 수령님의 한평생이

아, 인민을 살리는
인민의 집 터전이여서
바치신 로고와 쏟으신 헌신이
이 땅의 이량이 되고
벌을 이룬 수령님의 한평생이여

땅아, 너는
딘고 사는 흙만이 아니구나
우리 수령님 한평생 머리우에
받들어 이고 사신 하늘이었구나!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당조직관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당 조직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라면 크고작은것을 가리지 않으시고 당원들의 앞장에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주체38(1949)년 2월초 어느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김정숙동지께서 속하신 당세포에서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위문편지도 쓰고 위문품도 정성껏 만들어 보낼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세포위원장네 집에 모여앉아 준비된 위문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문가에서 《내가 좀 늦었나보군요.》라고 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 큼직한 꾸레미를 드시고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이것도 인민군대동무들에게 보내주자요. 성의껏 하느라고 했지만 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자기를 헤치시더니 손수건이며 세면도구를 비롯한 많은 위문품을 꺼내놓으시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느라 늘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째깍이 장갑도 뜨시고 그 많은 손수건에 한뼘두뼘 색실로 수를 놓으시였으며 위문품마다에 지성을 담으시였다.

한 당원이 급하고 중요한 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이런 일은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절절하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뭐 크게 한 일이 없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해 당세포에서 결

정한 일인데 자신께서도 집행해야 할게 아닌가고, 이게 다 인민군전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사업이라고,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때면 자신도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청년 이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진정에 넘치는 말씀이신가!

이윽고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다 같이 위문품을 준비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하시면서 당조직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장군님의 높은 뜻을 관철하기 위한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당조직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며 당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듯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지니고계시였기에 그 바쁘신 나날에도 늘 당원들에게 당생활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곤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마다 당비를 바치실 때도 꼭꼭 세포위원장을 찾으시여 자신의 당적분공실행정형을 총화하시고 그에 대한 조직의 의견과 함께 새로운 분공을 주실것을 요구하곤 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그 나날에 보여주신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적극 따라배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되.고》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가사

통합니다

김학을

병사생활 부모님께 전하고싶은 사연
다정하게 귀기울여 들어주신 장군님
-나는 전사들과 이렇게 통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모두 눈시울 젖었습니다
아 장군님과 병사들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아기이름 지어달라 철없이 올린 부탁
웃으시며 그 소원도 풀어주신 장군님
-나는 인민들과 이렇게 통합니다

그 말씀에 온 나라가 감격에 울었습니다
아 장군님과 인민들은 정으로 통합니다

세상만물 태양없이 한순간도 못살듯이
우리들은 장군님과 떨어져선 못살아
나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입니다
그이말씀 하늘땅에 노래되어 울립니다
아 장군님을 우리 하늘 태양으로 받들니다

어제날의 평범한 농민을 세계적인 작가로(2)

박춘택

천세봉의 혁명적작가로서의 비약적인 성장은 1960년대 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면서 이룩되었다.

주체52(1963)년 11월초 어느날이었다.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영화도 연극도 좋은것이 없는데 결함의 근본원인은 혁명적인 소설대작이 없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을 하여야 하는 우리 혁명임무수행에서 소설, 영화, 연극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혁명적대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작가들이 사회주의건설만 반영하면 다 되는줄 아는데 남반부청년들에게 읽힐 대작이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모든 문학예술작품이 다 그렇지만 특히 소설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인민들의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천세봉은 내내 흥분되어있었다.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과 함께 작가를 흥분시키는 다른 문제는 그이께서 대작을 쓰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그는 자기나름으로 대작을 생각하며 흥분했다. 우선 큰 부피에 큰 내용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때까지 우리 문학이 부피가 큰 작품들을 전혀 내놓지 못한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바는 없지 않았는가. 천세봉의 생각은 이러했다.

장엄한 우리 시대의 화폭을 대작에 담아야 한다. 한 시대를 장중히 울리며 지나간 혁명전통의 그 위훈에 찬 역사를 대작에 담아야 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이런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했다.

천세봉은 새 작품에 대한 취재사업에 착수했다. 취재와 구상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주제가 잡혀지고 투쟁화폭이 펼쳐지기도 했다. 시대의 폭풍을 안고 나가는 인간군상이 떠올랐다.

그러던 그는 주체53(1964)년 11월초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강령적인 교시를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그는 이미 구상해

온 작품의 집필에 착수했다. 충분히 취재도 못한 수첩들과 참고서적들을 책상머리에 그득히 쌓아놓고 초조한 심정으로 써나가기 시작하였다.

준엄하고 간고한 시대의 폭풍속에서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지키는가, 인간을 어떻게 버리는가. 그는 이 주제를 안고 모대졌다.

주제를 붙들고 나가는 두 중추, 그중에서 한 중추인 녀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을 놓고는 이 교훈적인 이야기속에 사람들에게 주는 계급의 경중이 있다고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인간의 참다운 삶에 대한 또한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애소도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을 짜기도 했다.

그 이듬해 겨울 상, 하권으로 된 장편소설을 출판에 회부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또다시 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에서 혁명문학을 창조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때문에 동무를 또 불렀다고 하시면서 혁명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자료들, 자신께서 혁명투쟁을 하시는 과정에 겪으신 일들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감회깊은 력사의 그 나날들을 추억해 더듬으시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대한 말씀은 그 시대의 어지러운 탁류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기치가 어떻게 솟아올랐는가 하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압제와 굴욕의 암운을 헤가르며 이 지구우에 새시대의 려명처럼 솟아오른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의 기치가 탄생한 그 첫 력사에 대한 생생한 화폭을 안겨주는 잇을수 없는 말씀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진정한 조선혁명의 첫 터전우에 발자욱을 남긴 청년들은 그 무슨 특출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보통청년들이였는데 민족적자각과 계급적자각으로부터 혁명의 길에 들어서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더욱더 사상이 견고해지고 불요불굴의 정신력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게 된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므로 혁명소설에서는 반드시 혁명가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려야 하며 그래야 작품자체의 사상성도 깊어지고 예술성도 깊어진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잇을수 없는 동지들에 대한 말씀

을 수많은 들려주시었다.

희생된 동지들, 소식을 몰라 안타깝게 찾던 동지들, 그런 동지들과 함께 준엄한 고비를 넘으시던 이야기, 그 동지들로 하여 몹시 감격스럽던 일, 슬프시던 일...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듣는 천세봉은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동지들이 다 보통사람들로서 혁명가로 성장한 사람들이지 그 어떤 특출한데가 있어서 혁명가로 된것은 아니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여 쓰되 그가 원썬을 증오하는 단계로부터 원썬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단계를 거쳐서 항일유격대에 들어와 용감히 투쟁하며 점점 더 사상의지가 튼튼해지고 훌륭한 혁명가로 되는것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란 이런 보통사람들이 발전해서 혁명가로 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발전과정을 소설로 쓰면 좋은 소설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으며 천세봉은 자기가 창조한 주인공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출판에 넘긴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는 혁명가를 깊이 알고 그것을 체험으로 느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인간의 깊이, 혁명가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1934년 왕청현에서 한 소녀가 일본헌병에게 붙잡혔으나 비밀을 대주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사형당했다는것, 보통 우리의 개념으로는 혁명가라는 이름을 붙일수 없다고 할수도 있는 이런 어린 소녀의, 어린 혁명가의 참된 정신의 높이를 깊이 파악하지 않고는 혁명적인 소설을 창작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혁명가란 자주적인 인간이고 창조적인 인간이며 진리의 인간이다, 자기의 희생으로써 남의 행복, 사회의 행복을 창조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혁명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속엔 이 깊은 뜻이 일관하게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위훈에 찬 불멸의 력사야말로 진리를 체득한 혁명가들의 자주적인 힘의 력사이며 창조와 지혜의 력사이며 강철같은 사상의지와 불요불굴의 정신력의 력사이다. 그뿐아니라 승리의 신심으로 충만된 락관주의력사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이 넘고넘은 수천수만의 어려운 고비... 그 힘의 원천을 우리 작가들이 들여다볼 줄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체험세계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혁명문학을 쓰겠는가.

천세봉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들려주신 그 많은

내용의 말씀을 받아안기엔 심장의 힘이 부치는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가란 인간성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과는 말씀도 들려주시었다. 사람이 인간성이 없다면 무슨 사람이랄수가 있겠는가, 고결한 인간애의 정신, 인간애의 정열, 바로 이것이 고난에 찬 혁명의 길을 헤치며 하루와 같이 싸울수 있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투쟁속에서 서로 이끌고 부축해가며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동지를 위하여 자기몸을 던지는 뜨거운 동지적단결이 바로 이 고상한 인간애의 정신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천세봉은 앞으로 꼭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훌륭한 혁명가를 형상한 소설을 쓰겠다고 그이께 말씀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돌아온 천세봉은 며칠동안 머리속이 그득해서 줄곧 흥분에 잠겨있었다. 그 어떤 장엄한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온듯 한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일생을 다녀도 마칠수 없는 혁명화의 대학을 나온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참담고 억세고 높은 하나의 체험세계가 생동하게 솟아있었다.

천세봉은 차츰 자기 작품을 놓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미 공장으로 넘어가 조판되고있는 작품이 이 체험세계와 대조를 이루며 무엇인가 불안을 이겨 내지 못하게 했다.

우선 이 소설에 그려진 혁명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혁명가와 같은 소박하고 고결한 높이를 체현하지 못한것 같아 어딘가 그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어딘가 혁명가의 건전한 생활의 깊이에 정면으로 육박해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빈구석을 그야말로 소설을 쓰는 쉬운 수법으로 가공해버린듯 한 아쉬움감도 없지 않았다.

출판에 넘겼던 그의 장편소설 상, 하권이 책으로 되어 세상에 나왔다.

어느날 천세봉은 한 일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그려진 혁명가를 어떻게 조선의 혁명가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중에는 이런 완패가 한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외곡되고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이 잘못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이 소설에는 보통사람들이 혁명화되어가는 세계관형성과정이 그려지지 못하고 타고난 혁명가가 그려졌다고 지적하시었다. 한편 중산계층은 왜 이렇게 모독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소설의 결함을 일

일이 지적하고나시어 이것은 작가가 나쁜 사람이 되어 우리 혁명을 모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쓴것은 아니며 당정책과 로선을 연구하지 않고 혁명적원리를 모르며 혁명화되지 못했기때문에 이런 작품을 쓴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결함은 천세봉 한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작가들이 정력을 기울여 작품을 써내기는 했으나 역시 천세봉이 범한 결함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러한 작품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혁명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로동계급적인것이 아니며 혁명적인것이 아닌 낡은 문학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문학에서 이런 낡은것을 힘있게 박차버리고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무기로서의 날카로운 선을 세우라는것이였다.

사실 이 시기는 세계의 적지 않은 문학들이 계급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런저런 구호들을 들고나와 건전한 문학에 공격을 가해오며 또한 그러한 작품들으로써 문학을 혁명의 사명으로 부터 떼내어 퇴폐와 타락의 구렁으로 몰아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문학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우리 나라 문학뿐만아니라 세계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전반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고 또한 그 문학이 나아갈 새로운 진로를 밝히는 빛발이기도 하였다.

천세봉은 자기의 작품들과 창작태도를 새롭게 밝아진 눈으로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다른 작가들도 역시 그랬다. 작가들은 현 문학실태를 놓고 토론을 했고 비판도 하였다.

작가들이 한창 회의를 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와 작품을 아끼라고 하시는 가슴뜨거운 교시를 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천세봉동무가 한번 비판을 받더니 몹시 소심해진것 같은데 비판을 받으면 더욱 용기를 내서 일해야 한다고 은정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잘못을 저지른 작가를 혁명적인 작가로 키우시기 위해서 한시도 잊으심이 없이 관심해주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천세봉은 용기백배하여 새 작품 창작에 달라붙었다. 온 정신, 온 열정을 쏟아부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였다.

작품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올린지 얼마 후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작품을 읽으시였는데 작품이 좋다고 만족해하신다고 하시며 수고했다고 작가를 치하해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신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데 있으랴.

작품의 성과는 천세봉의 재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작가에게 소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작품의 종자를 주시고 작품의 골격과 인간관계의 설정을 몸소 지도해주시고 지어는 작품의 화폭으로 될 력사적인 시대에 대한 지식과 그 시대가 가지는 특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그야말로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가 쓴 3천여매의 초고를 밤을 지새우며 읽으시고는 그의 눈을 띄워주는 수정방향을 말씀해주셨고 소설이 처음 출판되어나왔을 때에도 또다시 교정지에 붉은 줄을 그어가시며 읽어주시였다.

작가는 거듭되는 그이의 지도를 받아가며 한자한자 추고를 하면서 작품의 갈피갈피에서 예술적 정취가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고 종자와 사상이 더욱더 뚜렷해지며 작품의 품위가 더욱더 높아진다는것을 통감하게 되였다. 실로 그이의 육친적인 지도를 받는 과정은 위대한 예술적환희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으며 그는 당당히 혁명문학을 하는 한 작가로서 자기 자리에 설수있게 되였다. 실로 온 우주를 새로이 감득하게 하는 그이의 가르치심과 끊임없는 육친적 지도가 없었다면 천세봉은 자기 혁명화의 심각한 길을 용감히 걸어낼수 없었을것이며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참된 작가로 재생할수 없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우리 문단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비유하시면서 한떨기의 꽃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다 알수 있겠는가, 백화만발한 꽃동산이 되여야 아름답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 문단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떨기의 꽃으로는 백화만발한 꽃동산을 이룰수 없다는 그 진리와 사상으로 한명의 작가를 놓고 열명의 작가, 백명의 작가, 천명의 작가를 생각하시며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신임을 베풀어주시는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새로운 혁명문학창조의 길에서 창작된 천세봉의 소설을 빠짐없이 읽으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소설가 천세봉은 혁명문학건설의 보람찬 길에서 인생과 문학을 꽃피울수 있었고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칠수 있었으며 영생의 언덕에 오를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은하수》, 《조선의 봄》과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 2, 3부, 《축원》, 《고난의 력사》, 《대하는 흐른다》,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단편소설 《옥이》 등 그의 작품들은 작가 천세봉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 당 력사의 그 삼년석달에

김명철

10 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뜻깊은 10 월을 열번째로 맞으니
수령님을 잃고
우리가 하루같이 기다려온 날과 날
그 삼년석달에로 달려가는 마음이어!...

얼마나 바랐던가 고대했던가
대국상의 피눈물로 젖어있는 이 땅에
원썩들이 핵구름을 몰아오던 그때
해일까지 사납게 들이닥친 그때
우리의 천만당원 천만군민이
당중앙의 수위에 그이를 높이 모실것을

하지만 우리 장군님
수령님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고
수령님의 유훈을 다 꽃피우시려
인민이 념원하는 그 자리를
달이 가고 해가 가도 그냥 비워두신채
조국과 혁명에만 몸바쳐 오셨나니

내 오늘 가슴뜨거이 생각하건대
준엄했던 그 시절
숨죽은 기대앞에서
물에 잠긴 논머리에서
우리 어떻게 주저앉지 않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일손을 다그쳤던가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한분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셨기때문
슬픔의 언덕을 넘어
다박술초소부터 찾으신 장군님
숫눈길 헤치시는 그 모습 우러러
온 나라 강산이 일떠서지 않았더냐

죽잡으로 피곤을 달래이시고
첼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장군님 휘날려오신 선군의 기치아래서
발전소년제들이 치솟아올랐어라
규격포전들이 펼쳐졌어라
쇠물과 바단이 폭포쳐내렸어라

아, 동서고금 있어본적이 없는
제국주의압살을 쳐갈겨버리며
가장 어려운 고난속에서
강성대국의 도약대를 쌓아올린
우리 당 력사의 그 삼년석달이어!-

정녕 그 나날은
우리의 장군님 얼마나 위대한가를
시대와 인류가 깨달은 년대
그이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한가를
우리가 온 세상에 파시한 세월

인민의 절절한 청원을
거듭 만류하고 사양해오신 그이
수령영생에 다하신 숭고한 도덕의리로 하여
조국수호에 바치신 그 헌신으로 하여
우리의 대오는 더 억세게 뭉쳐지고
우리의 국력은 더 강해졌나니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벌써
우리의 전당 전군 전민이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있었어라!-
승리의 기치로 따르고있었어라!-

조선속담(청춘, 로년)

- 늙음은 나이로 해서 존대받는것이 아니라 해놓은 일로 해서 존대받는다
- 청춘시절에 달리지 않으면 늙어서 쉬지 못한다
- 청춘은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 청춘은 힘과 아름다움, 로년기는 지혜의 꽃
- 아이들을 교와하면 집에 오기 좋아하고 늙은이를 존경하면 오래 산다

논물에 대한 답시

고남철

물은 푸른 대지런가
물은 금빛이삭이런가
대동강물이 차고넘치는 태성호기슭
별가득 하늘가득 안겨오는 수령님영상
그날의 논물이야기 가슴에 울려오누나

그것은 서해갭문을 세우기 오래전 어느해 초여름
금방 벼이삭이 싹싹 패일 중북무렵
기양관개로 농사짓던 강서라 온천벌이라
드살찬 왕가물에 대동강물이 줄어들어
논판에 밀려든 잔물에 타는 벼포기 벼이랑

몽글몽글 살진 안개가 비구름이면 얼마나 좋으랴
관리위원장도 분조장도 두령실에서 하늘을 보는데
저기앞에서 벼숲에 허리물으며 오시는분은
뜻밖에도 우리 수령님
옷자락은 이슬젖고 신발엔 논흙 무거운
그이앞에 목이 메어 눈물만 글썽
-수고하오 이 벌의 주인들이구만!

흙물은 손을 잡으시고 농사형편도 물으시고
잔물에 노랑게 타든 벼잎새를 만져보시며
벼뿌리도 뽑아보시던 수령님
땅과 무릎 맞추는 토배기농사군처럼
논고에 앉으시여 물 한웅큼 두손에 뜨시여
논물을... 논물을 《맛》보시누나

-수령님... 이러시면... 이러시면... 안됩니다
가까이 선 관리위원장도 부관도
그 누구도 만류하실사이없이 하신 일
평양에 계시여 알아보셔도 되시련만
땅의 아픔을 눈바투 보시고 피부로 느끼시며
첫새벽 들길을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

...여기 논물은 좀 낫구만, 뻘소
이제부터 《태성호》물을 거꾸로 내려보냈시다
강을 다스려 산으로 올려보냈던 물

오늘은 하늘을 움직여 다시 내리우시며
천지조화를 부리시는 수령님 우러러
좌-좌- 파도쳐 설레는 푸르른 대지여

—우리 수령님께서 논물 《맛》을 보시다니?!
물어보자 기름진 땅이여 푸른 대지여
논물 《맛》까지 보며 땅을 가꾼이가 누구더냐
없었더라
천만인민을 자식으로 거느린 수령님처럼
논물 《맛》을 보며 땅을 가꾼 인민의 아버이는...

수령님처럼 물과 인연이 깊은분이 어디에 있으랴
해불을 드시고 눈보라 헤쳐가신 삼석의 밤이여
밥 한그릇보다 물 한모금이 귀하던 미루등판이여
물없는 곳엔 황금으로 언제를 쌓아서도 물을 주시고
큰물로 고생하면 큰물을 막아주시고...

인민이 마실 물이라면 물에서 물을 골라 먹이시고
농민조차 휴양소그늘에서 쥔한 물 마시는 삼복철에
그것도 유명한 강서약수가 솟는 땅에서
인민이 먹을 쌀이 중해 첫새벽에
불별에 끓던 논물까지 《맛》보신 아버지수령님

산골에 가시면 뽕은 도토리조차 황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벌에 가면 곡식이 먹을 물까지 맛보신 그 사랑
인민의 대지에 심장의 피줄을 잇고 사신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위대한 애국애민의 한생애 평범한 이야기

거치른 날바다를 가로막고 일떠선 서해갭문
좁어진 청춘대지 서해천리 동해천리
선군의 전야에 넓게 열린 새 물길에 넘쳐나는 생명수
수령님과 꼭 같으신 인민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 품에서 위대한 그 력사는
선군시대의 세월로 인민의 생활로 영원하리라!



변월녀

1

도의 책임일군인 지은섭은 동서벌이 되는 김준무가 자기를 굶지 않은 눈길로 보기 시작한것이 분명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몇해전의 그 일요일부터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것처럼 어려운 때이라 사무실보다도 발전소건설장이며 제철소며 공장과 농촌들에 늘 나가살다싶이 하던 지은섭은 그 쉬는 날도 황혼이 깃들무렵에야 오래간만에 집으로 향했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했다.

이제 들어가 누우면 영영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것만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지은섭이었다.

도를 일떠세워 장군님께 《장군님, 우리 도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기 전에는, 그래서 장군님께서 와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이제는 됐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는것입니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은섭이었다.

(잠간 앉았다가 또 나가봐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집문을 열려던 은섭은 흠칫 손을 멈추었다.

뜻밖에도 방안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타령선물이 《빨리리 빨리릴리》하고 흘러나왔던것이다.

장고소리, 피리소리... 《판따다 판따... 띠리리 띠리닐리리 판따 다다다 판따...》

언제인가 들은적 있는 봉산탈춤곡이었다. 량반들을 야료하는 장면에서 저런 곡이 나오던것 같다.

의아해서 방문을 열던 지은섭은 주춤 굳어지고 말았다.

방안에서 량반탈을 쓴 키가 흰칠한 사람은 너풀너풀 춤을 추며 돌아가고 올해 여섯살나는 손자녀석은 록음기옆에 앉아 너무도 우스워 허리를 꼬부리고 웃다못해 대굴대굴 굴고있었다.

그들은 은섭이 들어서는데도 모르고있었다.

《량반》은 도예술단 안무가로 있다가 얼마전에 집에 들어간 처4촌언니의 남편 김준무였다.

지은섭은 70이 다된 로인이 저렇게 탈을 쓰고 너풀대며 돌아가는것이 어이없어 허허허 하고 웃고말았다.

이 어려운 때에 로인이 저런 정신적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것이 고맙기도 했다.

《형님, 수고로이 오셨구만요. 그간 건강하셨습니다까?》

지은섭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자 《량반》은 우뚝 서서 눈을 대륙대륙 굴리더니 《어힘, 량반한테 이 무슨 불손한 레법인고, 당장 무릎을 꿇을지어다.》하고 호통치더니 탈을 벗으며 꺄꺄 웃었다.

《오늘은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구만. 난 못 보고 가는가 했더니...》

준무는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쏘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들 무고합니까?》

지은섭은 탁자우에 담배와 재털이를 꺼내놓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럼... 우리야 뭐... 잘있구말구. 그저 남들처럼 희망을 안구 이겨나가고있지. 희망을... 허허허...》

김준무는 호방하게 말을 하며 꺄꺄 웃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언제 한번 남에게 공색한 소리를 안하는 김준무였다. 아마 집에서 며칠을 굶었다 해도 절대로 구차한 소리를 하지 않을것이다. 더구나 이 도의 책임일군인 지은섭의 낮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가보아 원심을 쓰며 오히려 산나물이나 물고기 같은것이 생기면 그걸 갈라들고 집으로 찾아오곤 하는 김준무였다.

《내 온건 다르게 아니고...》

김준무는 무릎우에 앉아 탈을 만지작거리는 애에게 그 가면을 씌워주고는 흥분한듯 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자기가 오래 있어야 늘 시간이 없어하는 지은섭에게 방해나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내 이번에 봉산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아예 틀러먹었더구만. 틀러먹었어.》

김준무는 입을 다시며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지은섭은 긴장해져서 놀라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봉산은 지은섭이 특별히 중시하는 곳이다. 그곳 은정리에서는 지금 전문적인 축산농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서 축산부문에서도 본보기가 있어야겠기에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대상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력사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이... 틀러먹었던 말일세. 글썄 봉산탈춤이...》

《봉산탈춤이요?》

지은섭은 그제야 말뜻을 짐작하고 미소를 머금었다. 담배 한대를 뽑아 김준무에게 권하고는 성냥불을 켜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한대 꺼내여 만지작거리며 피울가말가하고 망설이였다. 담배를 끊었었지만 이즈음에 와서 속이 탈 때마다 가끔 한대씩 피우곤 하는 은섭이었다.

김준무는 담배는 빨 생각도 않고 지금 봉산군 일군들이 《고난의 행군》이요, 뭐요 하면서 력사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더우기 봉산탈춤같은 민속무용은 거들떠보려조차 않는다고 열이 올라 사대질까지 해대는것이였다.

《봉산이야 말자체로 봉산탈춤의 원지인데 내새 춤가락을 찾아내서 배워주자고 하니 전랑 앉아서 우는소리만 한단 말일세. <당장 눈앞에 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언제 탈춤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는가.》 하면서. 이게 어디 될 말인가? 한번 따끔히 말해주게. 그래도 책임일군이 하는 말이야 듣겠지.》

지은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숨을 내쉬고는 마침내 성냥가치를 짝에 드욱 그었다.

《알겠습니다. 그야 뭐 어렵겠습니까?》

준무는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그제야 담배대를 입에 가져갔다. 두불이 오무라들도록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았다가 후하고 내뿔었다.

《고맙네. 아무렴 큰 일군이 다르긴 달라. 나두 이제부턴 봉산에 자주 가볼 생각이네.》

《봉산에 자주 가다니요?》

지은섭은 성냥불을 담배대끝에 가져다대려다말고 그를 쳐다보았다.

준무는 흡족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번에 춤가락을 하나 새로 찾았네. 옛날

삼국시기에 <기악무>나 <해주탈춤>에서 추던 춤가락이 아닌지 모르겠네만... 사실 그걸 대주자구 봉산엘 갔댔지. 지금 봉산탈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있어. 아무리 <고난의 행군>때라도 그래서야 안되지.》

준무는 개탄을 하듯 입을 찻찻 다시였다.

지은섭은 손끝이 따라와지자 얼른 불을 붙이고 타버린 가치 끄트머리를 재털이에 던졌다.

모든것이 다 리해되였다.

이 김준무의 말도 그리고 그곳 일군들의 심정도...

지금 봉산군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농사를 짓는 한편 축산농장을 건설하고있다. 오죽했으면 그곳 일군들이 우는소리를 했겠는가. 그들중에는 혹시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이때 몇백년전의 탈춤을 배워주겠다고 뛰어다니는 저 령감이 정신이 온전한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까지 있을수 있다.

정서생활은 누가 요구하거나 명령해서 되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것이다.

사람들이 과연 탈춤을 배울수 있으리만치 정상적으로 생활할 여유가 있겠는가. 지은섭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아릿해졌다. 오늘 낮에 시내를 돌아보면서 본 커다란 배낭을 졌던 녀인들의 모습이 아프게 망막을 파고드는듯 했다. 토산군에 갔다 오다가 어느 마을 길가집에서 본 가마안의 강낭죽이 가슴을 지저대는듯 했다. 그 모든것이 바로 지은섭 자기의 잘못이 아니란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이 한개 도의 인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앓은방아를 찼고있으니... 그렇다. 지금은 모든 힘을 《고난의 행군》돌파구를 여는데 집중해야 한다. 물론 봉산탈춤 같은 민속무용도 장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은섭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에게 그런 여가를 가지도록 해주지 못한 자신을 돌이키니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은섭은 탈을 쓰고 량반춤흥내를 내며 돌아가는 손자애를 아릿한 눈길로 쳐다보다가 죄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다 제가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형편이... 뭐 형님도 다 아시겠는데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형님은 건강부터 좀 돌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자 준무가 담배대를 입에 가져가다말고 눈을 치떴다. 눈빛이 몹시 예리해진것 같다.

《건강? 내 건강이 어쩌서?》

《얼굴색이 좋아보이질 않습니다. 전에보다 수척해지셨구요. 내 생각엔 형님이 지금은 집에서 전번에 쓰던 그 무용력사책이랑 마저 완성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준무는 물끄러미 은섭을 마주보다가 슬며시 담

배든 손을 내리웠다.

《음…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 임자두 날더러…》

지금껏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준무여서 지은섭의 말의 뜻을 짐작하지 못할리가 없었다.

김준무는 담배를 급히 비벼끄더니 움푹 자리에 서 일어났다. 쓰겁다는듯 한 인상이었다.

《그럼 난 가겠네…》

《아니 저, 형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식사라도 하시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도 좀더 나누시고…》

지은섭이 황급히 준무의 손을 붙잡는데 탈춤을 흥내내던 손자애가 뽀르르 뛰어와 그의 아래도리에 감겨들었다.

《큰할아버지, 자고가랴요. 예?》

김준무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은섭의 손자애에게서 탈바가지를 받아 제 머리에 쓰고는 애에게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다

《어허, 무엄한지고… 이 량반이 갈 길을 가로막느냐. 당장 비켜서지 못할가?》

《해해.》

손자애가 책덕거리자 준무는 그 애를 닝큼 안아들었다.

《잘있거라. 앞으로 이 못난 큰할아버지 보고싶으면 봉산에 오거라.》

그것은 명백히 은섭이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되면 도저히 어찌할수가 없다. 사연이 이러저러할것이라고 변명할 사이도 없다.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말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닌 김준무였다.

《난 임자까지 그렇게 우는소리를 할줄은 몰랐네. 난 임자가 탈춤의 량반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길 바라네.》

그가 문밖에 나서서 한 말이었다. 그렇게 떠나서는 다시는 집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봉산군에 나가 마을들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탈춤을 배워준다고 했다…

지은섭은 그가 몹시 노여워한다는것을 알았지만 그 마음을 풀어줄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개 도의 사업이 지워져있었다.

한개 도의 복잡하고 크고작은 문제들이 겹쌓여서 그에게는 더 관심을 돌릴수도 없었다. 그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까마득히 잊고있었다.

그러는 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이제는 새 세기에 들어섰다.

의연히 경제형편은 어려웠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점점더 도수를 높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에 찾아오시었다.

도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던 장군님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문득 김준무에 대해 물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준무동무가 지금 잘있는가고,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지만 딱히 대답을 올릴수 없는 지은섭이로서는 자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김준무가 집에 왔다 간 날 저녁에 사무실에 나가 봉산군일군들에게 그를 좀 잘 도와주자고 한마디 하고는 지금껏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것이였다.

지은섭은 차창밖으로 새벽안개가 점점 설피여가는 산천을 내다보며 죄송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가 미처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긴 도의 일이 바쁘니까…》

단마디 말씀이시였다.

은섭은 또다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더는 김준무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

허나 지은섭은 지금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되어 준무형님에 대해 물어보실가. 그를 어떻게 아시고…)

무엇인가 자기 사업에서 큼직한 빈구석이 있는것같은 예감이 가슴을 불안하게 해주었다.

차는 어느덧 은정리에 일떠선 축산농장에 들어서고있었다.

2

그물거리며 피여오르던 안개가 멀리 라장산중턱에서 감돌고 소록산우에 떠오른 아침해는 온 골안에 눈부신 빛을 함복 쏟아붓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붉은색, 푸른색지붕을 인 축산농장의 건물들을 돌아보고계시였다.

이 고장의 혼한 돌로 격자무늬를 돈구며 특색있게 지은 집들, 염소우리들, 무연한 풀판들…

《멋있소. 잘 꾸려놓았소. 은섭동무네 황해북도가 최근에 소문없이 일을 잘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목장의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시며 만족하시여 줄곧 환하게 웃으시였다.

은섭은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축산농장을 건설하느라고 애쓰던 나날들이 어제일처럼 떠올랐다. 일군들, 돌격대원들… 농장사람들… 정전이 되고 돌가공기계가 멎으면 누구나 망치를 들고 나서군 했다. 밤이면 화불이 타오르곤 했다. 늙은이, 젊은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림없이 돌을 날랐고 지붕을 씌웠고…

은섭은 불시에 목이 메어올랐다.

(…동무들, 우리가 해놓은 일을 두고 장군님께서 기뻐하고계시오.)

은섭은 눈물이 그렇게서 둔덕길을 오르시는 장군님을 우려했다. 그러다가 황황히 그이의 뒤를 따랐다. 벌써 숨이 차고 이마에 땀방울이 내뿜었다. 둔덕길을 오르시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빨리 걸으시는지 점점 사이가 벌어졌다. 은섭은 거의 달리다싶이 따라서군 하였다. 그럴수록 뜨거운것

이 가슴에서 치밀군 하였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최전연의 인민군부대들을 돌아보시고 새벽에 도에 오신 장군님이다. 헌데 오시자바람으로 이렇게 줄곧 걸으시며 이 넓은 농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고계시니 오죽이나 힘드시겠는가.

은섭이 더운것을 삼키며 급히 따라섰다.

《장군님! 벌써 두시간나마 걸으셨는데 이젠 잠시나마 쉬셨으면 합니다. 저 호동들도 방금 보신 것과 같은 형식들입니다.》

장군님께서 은섭을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러니 이젠 그만 돌아보고 쉬잔 말이지.》

장군님께서 함께 오신 일군들을 돌아보시었다. 부지런히 언덕길을 오르는 그들의 얼굴도 별결게 상혈되어있었다.

손수건으로 연방 땀을 훔치는 그들을 보시던 장군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동무들이 나와 함께 다니느라 몹시 힘들거요. 하지만 이곳 동무들이 축산농장을 꾸리기 위해 흘린 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훌륭히 건설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소. 힘들어도 다 돌아봅시다. 그러자면 시간을 아껴야 하오. 볼 게 많으니까...》

장군님께서 앞장서 둔덕을 오르시다가 문득 뒤따르는 은섭을 돌아보시었다.

《참 은섭동무, 여기도 봉산군에 속하지?》

은섭은 말쑥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 빙긋이 웃으시었다.

《봉산은 원래 봉산탈춤이 유명한데 어떻소. 이번 기회에 그 탈춤을 한번 보여줄수 있겠소?》

《예?》

은섭은 그만 당황해났다.

장군님께서 봉산탈춤을 보자고 하실줄은 미처 생각도 못한 은섭이었다.

《저, 그건...》

장군님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수원들을 돌아보시었다.

《자신이 없는 모양이구만.》

은섭은 얼굴을 붉혔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시켰습니다. 저 다음기회에...》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봉산사람들은 크게 준비를 안해도 그 탈춤을 출수 있을거요. 탈춤을 출줄 모르면 봉산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었다는데... 허허허.》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자 동행하던 일군들도 즐겁게 웃었다.

은섭은 바빠맞았다. 피땀 언제인가 김준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뇌리를 후려치는 자책감... 아, 내 그때 왜 형님의 말을 소홀히 했던가. 정말이지 장군님께서 그런 탈춤까지 보아주시겠다고

하실줄이야 ...

《장군님, 제 인차 알아보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알아보오. 내 언제인가 그 봉산탈춤에 대해 쓴 책을 본 일이 있는데... 봉산탈춤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추던 유명한 민속무용이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무용에서 봉산탈춤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소.》

은섭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제야 장군님께서 왜 김준무에 대해 물으시게 되었는지 짐작이 갔던것이다.

봉산탈춤에 대한 책은 바로 김준무가 도예술단 안무가로 있을 때 몇년간 고심탐구하여 쓴것이였다. 장군님께서 그 책을 보시고 필자에 대하여 알아보신것이 분명했다. 바쁘신 속에서도 한 이름없는 예술가가 쓴 탈춤에 대한 책까지 보아주시다니...

그는 자기의 지난 일을 생각할수록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사실 은섭은 그날 김준무가 일군들이 봉산탈춤을 장려할 생각을 안한다고 노여워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전문연구해온 부문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나오는 감정일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고난의 행군》때여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적여유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가 봉산군안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봉산탈춤을 배워준다고 했을 때도 이곳 일군들에게 《가능하면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게 우리 당의 구호가 아니요.》 하고 긍정하기만 했지 실지 조직사업을 하고 밀어주지도 못했다.

축산농장건설장에 나왔을 때 어느 설참에 농장원들이 추는 봉산탈춤을 보지 않았는가하고 이곳 일군들이 권했을 때에도 은섭은 그 춤이야 전에 한번 보았던건데... 하고 생각하면서 급히 레성강발전소 건설장으로 떠났었다. 그곳 일이 또 걱정스러웠던것이다.

아 내가 왜 그때 형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겼던가. 형님이 봉산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탈춤을 익혀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그때... 건설장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보았됐으면... 설사 이곳 사람들이 지금 당장 춤을 출수 있다고 해도 자기가 한번 보지도 못한것을 어떻게 장군님께 보여드린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불손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문득 언제인가 안해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김준무형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탈춤을 배워주고 령길을 넘다가 찬비를 맞아 감기에 걸렸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폐염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입원을 한다 어쩌다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것이였다.

은섭은 준무형님이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가 있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이라도 그를 도와주었다라면, 내 아직 장군님의 뜻을 너무도 모르고 사는구나.

후회는 언제나 때가 늦는 법이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제는 그저 준무형님의 일이 잘되었으면... 하고 바라는수밖에 없는것이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탈춤을 배워주는 일들이 제대로 되었었으면... 그것은 꽃씨를 심지도 않고 고운 꽃이 되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허당한 일이 아닐가?

그 모든것은 지은섭이 봉산탈춤을 장군님께 보여드릴수 있겠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덕을 급히 내려오면서 한 생각이였다.

3

비단필을 펴놓은듯 한 푸른 잔디밭에서는 봉산탈춤이 시작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지은섭으로부터 다행히도 여기 농장원들이 언제든지 춤을 출수 있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그럼 됐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봉산탈춤이야 이렇게 야외에 서서 보는것이 지.》하고 웃으시며 일꾼들이 가져온 의자까지 밀어놓으시였다.

장고의 장단에 맞추어 장새납, 피리, 저대의 타령곡선들이 흐르고 빨간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은 소무가 예쁜 탈을 쓰고 사뿐사뿐 춤을 추며 나왔다. 그의 미모에 반하여 넋이 빠진 한 량반이 다가가 그를 얼리는 춤을 춘다.

지은섭은 그들이 무슨 실수라도 할가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마주친 두손을 맞비비며 입술을 감빨았다. 손바닥에서는 어느새 땀기가 느껴졌다.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은섭을 돌아보시였다.

《은섭동무는 이 탈춤을 몇번 보았소?》

지은섭은 어줍게 웃으며 두손을 놓았다.

《저... 한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인가 영화를 찍겠다고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왔을 때에.》

《기록영화?... 허허허, 그러니 이젠 10년이 넘었구만.》

《?》

은섭은 10년이 넘었다는 말쯤에 놀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기록영화촬영소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단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춤을 추는 농장원들에게 시선을 주시며 감회깊은 표정을 지으시였다.

《봉산탈춤은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에 벌써 항일투사들과 함께 보아주시고 발전완성시키라고 과업을 주신 민속무용이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기록영화로 잘 찍어두라고 과업을 주었었는데... 우리는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모두 발굴하고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은섭은 크나큰 불덩이 같은것이 쿵 하고 가슴 속에 들어와 앉은것 같았다.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창조해온 민족문화유산들을 정녕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장군님께서 기록영화로까지 찍게 하신 봉산탈춤인데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해왔던가.

은섭이 죄책감에 잠겨 아래입술을 감빨며 깊은 숨을 몰아쉬는데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시여 더 말쑼을 하지 않으셨다.

그이께서는 춤을 추는 사람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량반관료배들을 비롯하여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놈들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조소하고 풍자하는 춤가락들이 얼마나 기지있고 흥취를 돋구는가 량반통치배들이 이 꼴을 보면 기가 막혀 펄펄 뛰곤 했을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과연 얼마나 슬기롭고 재능이 있고 문화정서생활이 풍부하였는가.

문득 처음으로 이 탈춤을 보시던 때가 생각나시였다.

갑자기 가슴이 몽클해오시였다.

50여년전의 아득한 그날의 일이 금시런듯 눈앞에 떠오른다.

1946년 6월의 어느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지금의 당창건사적관) 회의실, 의자를 밀어낸 회의실객석이 그대로 무대였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저 봉산탈춤을 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소무며 《량반》이며 《승려》며 《포도비장》이며 《미알할멈》의 탈을 쓴 사람들이 춤을 추며 돌아가는것을 유심히 보시다가 소곤소곤 어머니께 물으시였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탈을 쓰고 춤을 추나요?》

《그건 춤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을 더 잘 살릴수 있기때문이지. 그리고 량반놈들에게 자기 얼굴을 로출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춤도 흥겨워져서란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저런 탈춤을 많이 추었던단다.》

《저 탈춤은 얼마나 오래 되었나요?》

《원래 탈을 쓰고 추는 춤은 먼 옛날 세나라시기부터 있었던단다. 그것이 발전하면서 지방마다 자기의 탈춤을 가졌단다. 그중에서 봉산탈춤이 제일 유명했는데 저 춤이 나온지는 이젠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다.》

옆에는 김책동지를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앉아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앞자리 가운데에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였지만 그마저 마다하시고 수수한 나무결상에 앉아 보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시였다가 금방 들어서시는 길이었었다.

그때 재미나는 일화가 있었다.

봉산탈춤출연자들은 수령님을 모실 앞자리가 비어있어서 모시지 못한줄로 알았던것이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다나니 더욱 수령님의 모습을 알 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빈자리를 보고 또 보며 아쉬움을 금치 못하 던 그들이 소개때 민족무용이라고 한것을 민속무 용이라 정정해주신분이 바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알자 두손들을 번쩍 쳐들며 장내가 떠나갈듯 만세를 부르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탈군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천한 사람으로 치부받던 사람들이었다. 량반통치배들은 자기들의 착취적만행과 부패타락한 생활을 조소하고 풍자하는 탈군들을 짓누르기 위해 《탈군은 관가의 문을 넘을수 없다.》고, 《탈바가지를 한번이라도 쓰면 조상의 제상앞에도 나설수 없다.》고 하면서 천대하고 멸시했다.

더구나 일제통치시기에는 왜놈들이 봉산탈춤을 못하도록 상연금지령까지 내렸었다. 고유한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었던것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의 《예술교환의 날》에 바로 이 봉산탈춤을 발굴하여 내놓도록 하시였었다. 일군들은 봉산에 내려가 춤가락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20여일간 경암루앞에서 집중훈련을 하여 영영 없어질뻔 했던 봉산탈춤을 다시 살려내고 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바쁘신 속에서도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오랜 역사를 가진 탈춤이 일제의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상연금지당하고 파묻혀있었는데 봉산지방에서는 그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봉산탈춤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훌륭히 완성시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봉산군인민들이 수령님께서 봉산탈춤보존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온 나라가 새 조국건설로 자금의 곤란을 겪던 때에도 특별자금까지 보내주시였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써올려왔던 감사편지의 구절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시였다. 지금 춤을 추는 저 농장원들속에도 그때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잔디밭우에서는 량반을 골탕먹이는 취발이와 소무의 춤이 더한층 활기를 띠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들의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은섭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전에 기록영화로 찍은 봉산탈춤을 본 생각이 나는데 그 탈춤가락들과 좀 다른것들이 있구만. 새로 발굴한 춤가락들인것 같소. 누워서 덩굴면서 한삼을 추켜올리는 팔목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춤가락들이요. 이 춤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가치가 있소.》

은섭은 정녕 놀랍기 그지없었다.

장군님께서 10여년전에 보신 탈춤의 가락들이 지 기억하고계실줄은 정말 몰랐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비상해서만도 아닐것이다. 이 탈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크셨으면... 은섭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더운것을 삼켰다.

《장군님, 그 김준무동무가 언제인가 봉산탈춤에서 새로운 춤가락들을 찾아냈다고 한적이 있었 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반색을 하시였다.

《그렇소? 확실히 그때보다 많이 발전하였습 니다. 그 동무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게 알립니다. 사실 춤가락을 하나 찾아내고 완성시키는데 많은 품이 듭니다. 성실하고도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춤가락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농장원들한테까지 보급을 했으니 확실히 동무네 도가 그런 면에서도 앞장서는것 같습니다. 도소 재지에 민속거리를 건설하는것도 그렇고...》

장군님께서 만족해하시자 은섭은 죄지은 사람 처럼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런 치하를 받는것이 너무도 분에 넘치는 일이였기때문이었다. 도소재지에 민속거리를 건설하는것도 사실은 장군님 뜻이 아니였던가.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이 지구에는 선조들의 재능과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있는 력사유적들도 많다. 정방산의 성불사만 놓고보아도 이 건물은 천여년의 력사를 가지 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건물중에서 제일 오랜 건물의 하나이다. 여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몇차례 오시였었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또 몇차례나 오시였던가. 여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뜻깊은 자옥도 있다.

우리 나라의 력사에 대해, 우리 민족이 창조해 놓은 유산들에 대해 그리도 뜨거운 사랑을 지니 신 위인들이시다.

장군님께서 저 봉산탈춤 하나에 기울이시는 관심만 해도 얼마나 큰것인가. 탈춤과 관련하여 쓴 책도 보아주시고 그것을 기록영화로 찍어 후손만 대에 길이 남길수 있게 하여주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해별따가운 한지에서 오랜 시간 춤을 보아 주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을 치하해주시니...

《장군님, 사실은 <고난의 행군>때 김준무동무가 새로 춤가락들을 찾았다면서 왔을 때 저는...》

은섭이 얼굴을 붉히며 그때 일을 자초지종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럼 김준무동무가 은섭동무의 동서별되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은섭이 얼굴을 붉힌채 송구스러운 얼굴로 대답 올렸다.

《음... 그러니 준무동무에 대해 잘 알겠구만.》

《예. 원래 그의 아버지는 해방후 수령님과 장군님, 어머님을 모시고 봉산탈춤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봉산탈춤에 대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민속무용을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봉산탈춤을 더욱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소. 준무동무는 이 사업을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사업으로 여기고 이 춤을 완성하는데 한생을 바쳐왔을게요.》

장군님께서서는 사색깊은 눈길로 춤동작들을 유심히 여겨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확실히 무용이 완성감이 납니다. 봉산탈춤은 자기의 고유한 춤기법을 가지고있는 자랑할만 한 춤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유산입니다. 준무동무가 공로가 있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지은섭은 더는 얼굴을 들고 멍뭇한 마음으로 탈춤을 볼수가 없었다.

자기는 과연 준무를 어떻게 생각해왔던가. 그가 새 가락을 찾아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급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해주었던가.

폐약벌을 받으며 탈춤을 보아주시는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자기의 사업에서 얼마나 큰 빈구석이 있었던가 하는것이 더욱 사무치게 가슴을 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한 인간이 민속무용을 연구해온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한생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

김준무형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휘몰이장단, 거거리장단, 잣은모리장단을 타고 올리는 민족악기들의 선율에 맞추어 봉산탈춤은 더욱 고조를 이루고있었다...

4

장군님께서서는 지은섭을 돌아보시었다. 가슴이 아릿해지시었다. 별로 수척해진 얼굴, 충혈진 눈, 부르튼 입술... 자기가 맡은 도를 주켜세우려고 아글타글 뛰어다니는 일군, 언제한번 집에 들어가 편히 쉬어보지도 못한다는 헌신적인 일군... 이번 여름철엔 경치좋은 곳에 료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윽고 봉산탈춤이 끝났다.

장군님께서서는 탈들을 벗고 인사를 드리는 남녀 무용수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박수를 쳐주시었다.

《수고했습니다. 봉산탈춤을 잘 추었습니다. 공연을 잘 보았습니다.》

더 칭찬해주고싶으시었다. 내세워주고싶으시었다.

그 어렵고 곤난할 때에도 민족의 전통을 지키어 어느때나 출수 있게 생활화되어왔다는것은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인것이

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락관인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려고 날뛰면 날뿔수록 더욱 보란듯이 떨치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 승리에 대한 락관... 그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공장, 발전소, 농장을 세우고 봉산탈춤과 같은 민속무용, 민속놀이들을 발전시켜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꾸려나가는 이 장엄한 현실이야말로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음을 알리는 서곡이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벅차오르시었다. 대견한 눈길로 무용수들을 한명한명 여겨보시었다.

무용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있었다.

해빛은 더욱 밝게 비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들어주시며 만족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봉산탈춤은 민속무용의 특성을 잘 살린 좋은 춤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이런 봉산탈춤과 같은 민속무용들을 적극 찾아내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정말 수고를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칭찬해주실수록 지은섭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 자리에 그 김준무가 있었다라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랴. 그 누가 뭐라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산탈춤을 완성시키기 위해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 온 사람...

그를 만나고 가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으랴.

하지만 시간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곧 군인들이 건설한 유원지로 가서야 했다. 그다음은 새로 개건된 현대적인 닭공장... 그다음은... 외국의 한 대표단을 만나셔야 한다.

빈틈없이 분과 초를 쪼개가며 맞물린 장군님의 일정이었다.

온 나라의 크고작은 일이 그이의 사색과 판단과 결심을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호를 올리는 농장원들에게 다시한번 뜨겁게 답례를 보내신 후 지은섭을 돌아보시었다.

《은섭동무는 나하고 함께 갑시다.》

승용차들은 달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도에서 새로 건설한 닭공장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는 길이었다. 왜 다시 지은섭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었는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아픈 말씀을 하시기가 저어되시여 그리하셨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쉬우고 더 말씀을 나누고싶으시여 그리하셨는지...

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만하면 큰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말씀하신것 같다.

그러나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것이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앉은 지은섭을 돌아보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김준무동무네 가정형편은 어떻소. 가족들은 누가 있소?》

《지금 로인량주가 막아들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막내아들은 레성강발전소에 나가있고…》

《음… 그 집에서 무용은 누가 하요?》

지은섭은 고개를 숙였다.

《원래 막내아들을 무용가로 키우려 했는데… 집에서는 그것을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 준무동무가 지금껏 얼마나 더 피로했겠소. 막내아들은 영무용에 취미가 없는가?》

《본인은 무용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재간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레성강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본인이 돌격대에 탄원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레성강발전소 건설도 중요하지. 세기를 이어오면서 <건설당>이라고 불러오던 레성강인데… 거기에 발전소를 건설해놓으면 조국에 또 하나의 큰 재부가 될게요. 그래서 다들 떨쳐나섰겠지. 하지만… 막내아들은 데려다 무용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소. 아버지의 뒤를 잇게 말이요. 우리들은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유산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조상을 모르면 후례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춤가락들이 남의 나라것을 본따는 것도 일부 나타나곤 하는데 우린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았다.

그러나…

지은섭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리라 믿으시었다.

이제는 헤어지실 때가 된 것이다.

장군님께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그의 손을 잡아주며 한가지만 부탁하시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저녁엔 형님한테 꼭 가보시오. 아마 오늘 그가 잠을 자지 못할거요. 내가 그 동무에게 애국자, 혁명가라고 했다고 전해주시요.》

준무네 집은 비어있었다.

의아했다. 장군님께서 오셨었다는 소식을 그도 이제 알았겠는데…

이런 소식은 날개돋친듯이 순간에 짹 퍼지는 법이다.

혹시 우리 집엘 갔는가? 그럴 수도 있었다.

장군님 모셨던 일을 나에게서 자세히 듣고싶었을 것이다.

지은섭은 차를 집으로 돌렸다.

손자애가 뛰어나오며 막 매달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장군님을 뵈왔나요?》

지은섭은 그를 안아올렸다.

《그래 그래… 그런데 큰할아버지는 안 오셨었니?》

《안 왔었어요.》

《그래?》

피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은섭은 급히 돌아섰다.

《할아버지, 나두…》

아이도 할아버지가 준무큰할아버지를 만나려 간다는 것을 다 아는 모양이었다.

《그래 너두 가자.》

은섭은 손자애를 안고 방문을 나섰다. 준무형님을 리해해주고 그가 새로 찾은 춤가락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보아준 것이 이 손자애가 아닌가는 생각에 더욱 귀여워졌다.

승용차는 어둠을 썰며 달렸다.

지은섭은 무어라 조잘대는 손자애를 꼭 껴안은 채 속으로 목메인 소리를 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이 별 뒤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하루 한끼 강낭죽도 어렵던 때에 앓아눕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봉산탈춤을 완성시켜놓았기에 오늘 장군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기뻐하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잘 발굴하고 윤희게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형님을 애국자라고, 혁명가라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족문화유산을 그리도 귀중히 여겨주시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어제가 빛나고 오늘이 빛나고 래일도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군님을 잘 모실 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도 세기를 이어 찬란히 빛나게 된다는 진리를 저는 이번에 또 한번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사실 오늘 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무슨 낮으로 글썄… 오늘 장군님께서 봉산탈춤을 더 완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함도 지적하시었습니다. 랑반은 랑반답게, 포도비장은 포도비장답게, 승려는 승려답게… 이제 나도 내가 할바를 찾았습니다. 정말이지 난 형님 말대로 탈춤에 나오는 그 랑반처럼 뒤편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 믿어주시시오.)

《할아버지, 저기…》

문득 손자애가 큰일난 것처럼 소리치며 손으로 차창밖 어딘가 가리켰다.

얼른 내다보니… 승용차의 전조등빛에 사람이 풀밭에 서있는 것이 보인다.

장군님앞에서 봉산탈춤을 추던 잔디밭이었다.

그 풀밭에 굳어진 듯 우뚝 서서 김준무는 무아경에 빠진 듯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푸름한 달빛에 그의 볼에서 번쩍이는 것은 눈물인가 보석인가.

지은섭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그가 바라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길이 굽이굽이 뻗어올라가다가 사라진 저 멀리 령우에서 못별들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다.

옛 병사의 시

박래설

록음우거진 보통강반
한낮의 부드러운 바람 꽃향기를 실어오고
태양은 눈부신 빛을 뿌려
전승기념탑의 군상들을 물들이는데
반백의 늙은이 하나
영웅들의 군상앞에서 떠날줄 모르누나

이제 금시라도 달려가 전우들을 껴안을듯
추억이 실린 눈길을 들어
군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발걸음 떼지 못하는 어제날의 전사

그리도 보고싶고 그림던 전우들 불안고
마음속 이야기 나누는가
수류탄뭉을 틀어쥐고
마지막돌격전에 나아가던
싸움의 그날을 추억하는가

호수의 잔물결인듯
그리움과 기쁨, 슬픔과 아픔
한데 뭉쳐 조용히 불타는 눈
포화속의 천만가지 사연 말하는
로병의 눈

나는 지금 그의 눈에서
시를 읽는다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과 증오의 시를!

조국을 지켰기에
조국을 사랑할 권리를 안은 병사
말없고 조용한 그의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조국을 사랑하라
조국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죽음앞에 기꺼이 가슴을 내댄 사람들
준엄한 날에 삶을 바쳐 오늘을 바꾼
그날의 병사들을 잊지 말라!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이 말
그러나 또다시 가슴에 간직한다
몇십권의 책으로도 다 쓰지 못할 이 말
삶과 죽음의 싸움길 걸으며
불속에서 찾아내고
피속에 새긴 말
병사의 참된 시를!

가사

들렸다 가세요

황련

푸르싱싱 남새밭에 첫물남새 한창인데
병사들이 노래하며 훈련길 떠나가요
들렸다 가세요 군대동무들
먹음직한 첫물오이 기다렸어요
그대들 사랑으로 가꿔준 포전이에요

농장마을 뒤산에 과일향기 넘치는데
병사들이 땀흘리고 초소로 돌아와요
들렸다 가세요 군대동무들

주렁진 빨간 사과 기다렸어요
그대들 땀흘려 무르익힌 과원이예요

봄여름내 병사들이 고인 정성 뜨거워요
남모르게 병사들이 바친 수고 젖어와요
들렸다 가세요 군대동무들
장군님의 아들들을 기다렸어요
언제나 병사들을 기다리는 농장이예요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을 직접 노래하는 송가에서는 흔히 당을 의인화하여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의인화를 비롯한 비유와 상징의 수법은 당을 생동하게 형상하는데서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비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지금 문학작품에서 수령을 래양에, 당을 어머니에 비기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비유를 반드시 그렇게만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당에 대한 비유를 독특하게 한다고 하여 당을 아무데나 고려없이 비기는 경향도 경계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비유는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하면서도 납득이 되도록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형상할 때 비유하는 자연현상이나 다른 대상은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인상과 본래의 의미가 가지는 여러가지 색깔을 충분히 검토해본 다음 정치적으로나 형상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때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딸

김정덕

딸,
딸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왜서인지 먼저
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가정을 이루어 처음으로 안아보는
행복의 꽃 사랑의 꽃

나에게 첫딸을 안겨줄 때
안해는 은근히
남편의 눈빛 가늠해보았다
그리고는 어줍게 웃음지으며 말했더라
《미안해요》

아들자식 땅크병으로 내세우자던
자기 할바를 다 못한듯이
안해는 송구한 마음 감추지 못하는데
나는 딸애를 버쩍 추켜들었다
딸이 어째서...
나라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인데...

안해여
그대도 알지 않는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이 나라의 아버지와 아들, 남편들을
누가 억척같이 떠밀어주었는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
세계앞에 우뚝 솟아난 마라손녀왕
축구열풍으로 세계를 들끓다놓은 조선의 장한 딸들
육중한 대포도 척척 다루어내는
녀성해안포중대의 예쁜이들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그들앞에는
가장 강의하고 아름다운
이 나라 딸들의 첫 세대인
항일의 녀투사들이 걸고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피어난
당의 참된 딸들이 걸고있다

꽃으로 태어났다고 꽃이라
아름답게 피어서 꽃이리
딸아, 너 크거들랑
우리 장군님 아시고 조국이 아는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거라

그날에는 이 아버지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리라
-이 애가 바로 내 딸이요
장군님 피워주신
우리 집 꽃이요!



폭설이 내린 뒤

철산봉의 겨울풍경 (1)

두만강의 유유했던 흐름을 오히려 두르고 천여 미터의 높이로 아아하게 솟아있는 북방의 거봉 철산봉에는 10월 하순경이면 벌써 첫눈이 내린다.

산밑의 광산마을에는 아직 그리 차지 않은 가을비가 추덕추덕 달리는데 철산봉은 서둘러 겨울의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눈이 내린 뒤에는 겨울의 첫 정서를 미처 감득할새도 없이 사나운 칼바람이 기습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 나무 한대 없는 백리채굴장은 삽시에 눈보라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다.

흰 머리를 산산이 풀어헤친 눈보라는 땅바닥을 핏고 물어뜯는가 하면 하늘중천으로 허공 뛰어올라 곤두박치고 솟구쳐오르며 길길이 날뛰는다.

두툼하게 눈이 덮였던 곳에 홀연 꺼먼 돌바닥이 드러나는가 하면 삽시에 흰 눈산이 무더무더 생겨나기도 한다.

눈에 묻히고 눈보라에 가리워 하늘도 땅도 사람도 기계도 거의나 형체를 가려볼수 없게 된다.

그래도 눈보라는 직성이 풀리지 않은듯 피유피유 뒹뒹 보이지 않는 입으로 맹수의 포효성같은 것을 내지르며 천백가지 기광을 다 부린다.

이 고장에는 년년이 전해내려오는 겨울에 대한 전설같은 기담도 많다.

어느 옛적 겨울에는 날아가던 까마귀떼가 무리로 얼어 떨어지여 철산봉언저리가 까맣게 보였다고 한다.

또 언젠가는 채광장의 그리스(기계기름)를 훔쳐 먹으려고 오통동골짜기에서 기여나왔던 늙은 호랑이가 물엿같은 그리스를 한입 문채 눈구덩이에 빠져 얼어죽었다고 한다.

떡 오래전인 리조 중엽 어느때인가는 임금이 하사한 금패를 허리에 차고 이 고장을 찾아오던 때 결괏있는 무관 하나가 철산봉어구에서 눈보라에 묻혔는데 다음해 해토무렵까지 사람도 금패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일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지금도 철산봉 남쪽어구에 솟아있는 높직한

리평

령을 일러 금패령이라고 부르는것을 보면 노상 허망한 랑설이라고 볼수는 없다.

아무튼 옛적에나 지금에나 가지가지 기설을 산생시키며 다가고 물러가고 다시 찾아오는 철산봉의 겨울은 엄혹하고 스산하고 울쎄년스러운것으로 하여 세상에 자못 소문이 파다하다...

그날 밤 밤새 줄달아 쏟아지던 폭설이 푹 그치었다. 그러자 철산봉 산날가지쪽에서 갑자기 흰 나뉘가 퍼드득 일어서더니 맹수무리의 비명소리 같은 평음이 터져올랐다.

필경 수십년래의 무서운 강추위와 눈보라가 들이닥친것이였다.

기사장 최석

잠에서 깨어난 최석은 곧 탁상등을 켜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벽 3시 30분이였다.

(내가 왜 벌써 잠에서 깼을까?)

최석의 뇌리속으로는 선잠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야간생산지휘를 맡은 최석은 어제 밤 늦게야,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 1시 15분경에 생산과장에 게 《지휘봉》을 넘겨주고 사무실에 들어왔었다.

아침 6시경에 깨리라 생각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다할 리유도 없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것이였다.

최석은 자기의 예상밖의 기상이 무척 의아했었으나 잠을 깬 이상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목깃에 부르르한 개털을 댄 목직한 작업솜옷을 들춰입었다.

북방의 산악지방에서 태어난 사내답게 체구도 장결하고 도래넛은 얼굴에 붙임붙임도 큼직큼직한 최석은 튼튼 걸음으로 창가에 다가섰다.

순간 밖에서 사납게 울부짖는 눈보라가 창문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이어 우지직 앞마당가에 박혀있는 돌배나무의 굵은 가지가 부러져나가는 소리, 계획과가 있는 옆건물쪽에서 유리창이 쟁가당 박살나는 소리가 아즈럽게 들려왔다.

최석의 가슴은 툭렁 내려앉았다.

(밤새 폭설이 쏟아지더니 종시 굉장한 눈보라

가 러졌구나.)

그제야 최석은 자기가 불식간에 들이닥친 눈보라소리에 놀라서 그리고 채광장의 동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것이 이상스러워서 예상외로 빨리 잠에서 깬음을 확연히 깨달았다.

최석이 서둘러 탁자앞에 다가서는데 토끼처럼 조용히 엎드려있던 흰 전화기가 제먼저 찌르릉 울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생산지령원 허병수였다. 병수는 시작부터 덤벼치며 액땀 청을 높이는데 그의 말소리는 반나마 가려들을수 없었다.

《…내 지령원 30년에 이런 스산한 눈보라는 … 처음 봅니다. 설비들은 눈에 묻히고… 도로는 막혔는데…》

최석은 침착한 어조에 다소 짜증기를 실어가지고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허동무, 덤비지 말고… 우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시오.

새벽 1시경에 연유를 실으러 공급소에 내려갔던 63호는 어떻게 됐소?》

《<할딱고개>밀에서… 묻했습니다. 눈사태에…》

《인차선로는?》

《?…》

《630계단, 730계단 운광도로는?》

《묻했습니다. 눈사태에…》

허병수는 번마다 똑같은 소리로 대답했다.

최석은 더이상 평소의 침착성을 유지할수 없었다.

가슴은 무질서하게 쿵쿵 들뛰었다. 초조감, 불안감에 떠밀린 사색은 빠르게 달음쳤다.

그러니 우리 운광사업소는 통채로 수십년래의 무서운 눈보라와 눈사태에 《포위》를 당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아직 멀었고…

설사 출근시간이 된다 해도 인차선로가 막혔으니 사람들은 제시간에 고지에 오를수 없다.

현재 사업소에 남아있는 밤교대성원들을 동원하여 백리채굴장의 눈을 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다면 무엇을 어찌해야 이 가증스러운 폭설과 눈보라를 한시각이라도 빨리 걷어내고 운광작업을 계속할수 있겠는가?

직장장으로 사업하던 최석이 운광사업소 기사장으로 임명된지는 이제 겨우 몇달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석은 벌써 사업소안의 일군들과 노동자들로부터 정확하고 빈틈없는 일군, 다재다능한 실력가형의 일군이라는 호평을 받고있었다. 최석은 늘 두개의 수첩을 옷주머니에 넣고 다니었다.

파란 수첩은 아래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제기한 문제를 적어두는 수첩이였고 빨간 수첩은 자기가 아래일군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하는 수첩이었다.

생산총화때면 어김없이 수첩 두개를 나란히 펼쳐놓고 대개 이런 식으로 허두를 땀다.

《(파란 수첩을 들여다보며) 직장장동무, 나는 동무가 제기한 고질용접봉과 스텝철관을 약속대로 13일 오전중에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무는 (빨간 수첩을 여겨보며) 17일까지 연유절약기 석대를 더 만들어 대형차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17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고 면밀한 최석의 일숨씨앞에 변명이나 구실이 통할 틈은 조금도 없었다.

과제를 수행한 일군들은 물론 씩씩하게 대답을 했으나 그렇지 못한 일군들도 《오늘중으로 어떻게 하나…》 하고 말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업소사람들속에서는 최석의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일화도 적지 않게 나돌았다.

언제인가 운전사 하나가 쇠돌을 신고 달리다가 최석이 정지신호를 하는 바람에 차를 세웠다.

최석은 기관부족을 가리켜보이며 말했다.

《이번 탕을 하고나서 도중점검을 해야겠소. 공기청정기가 <폐염>에 걸린것 같구만.》

운전사가 기관부를 열어보니 기사장의 진단은 과연 정확하였다.

최석은 땅크발동기소리처럼 요란한 대형차의 동음속에서도 공기청정기의 미세한 비정상적인 가동소리를 정확히 가려들것이었다.

며칠전에는 1직장의 어떤 운전사청년이 저들끼리 론담을 벌리던 끝에 때마침 직장에 나와있는 최석에게 전혀 뜻밖의 질문을 들이댔다.

《기사장동지, 방금 우리는 <우리 민족 제일일세>라는 노래를 배우고 나와서 한참 론쟁을 하던 참인데…

지구상에 민족이 모두 몇개나 됩니까?》

최석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약 2천개가량의 민족이 있소. 나라별로 본다면 중국에…》

최석은 2천개를 헤아리는 민족을 나라별로 일일이 다 짚어내려갔다.

운전사청년은 입을 딱 벌리었다. 모르던 문제를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듄직하게 잘생긴 침착한 기사장, 그래서 다소 어렵게 생각되는 45살의 아직한 젊은 일군의 박학다식에 그만 기가 질린 것이었다.

사업소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난중한 과제가 제기되어도 최석의 충고나 조언을 받으면 능히 삼은 개논뻔뻔 손쉽게 해제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최석이자신도 자기의 정확성과 실력, 그에 안배된 긍지와 자부감으로 하여 어떤 과제가 제기되든 사소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받아들이곤 했다…

허나 지금 최석은 철산봉에 달려든 수십년래의 광포한 폭설과 눈보라앞에서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심리적인 파동탓인지 여직껏 크게 여겨지지 않던 아래일군들의 사업적인 허점마저 여느때없이 크게 확대되어 떠올랐다. 성급하고 건망증이 심한 1직장장 조철호, 만사에 태평스러운 7직장장 박대평, 노상 웃음기가 헤폰타에 도무지 실속이 있어보이지 않는 《룽구선수》 3직장장…

과연 그들과 함께 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조속히 가셔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조차 생겨났다.

그런중에도 자기자신부터 평소의 열배, 백배의 힘을 내어 전대미문의 눈치기전투를 밀고나가야

한다는 리성의 목소리를 정립한 최석은 들고있던 수화기를 바싹 입가로 당기었다.

《허동무, 각 직장 밤교대 부직장장들에게 전달 하시오.

현재의 성원들을 가지고 눈가래와 콧물, 비자루들을 정비보충하면서 가능한껏 직장에서 운광도로, 기본도로까지 교통호형식으로라도 길을 내라고 말ियो.

그리고 직장장들은 출근하는 즉시 (인차선로가 막혔으니 출근이 어방없이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비상협의회를 하니 내 방에 모이란다고 하시오.》

최석은 계속하여 연합기업소 기사장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려다가 결심을 달리하고 수화기를 놓았다.

잠시후 가까스레 출입문을 열고 (문밖에 눈이 쌓인탓에) 밖으로 나온 최석은 무릎을 치는 눈무지를 밟으며 무작정 앞으로 걸어나갔다.

연방 후려치는 눈보라에 얻어맞아 불편은 대번에 얼얼해났다.

속눈섭은 유액이라도 발린듯 껌적껌적 달라붙었다.

어둠속에서 눈보라는 연방 피이한 휘파람을 불며 미쳐날뛰는데 채광장에는 한점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동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심장은 아귀센 손아귀에 비틀리는듯 모질게 아파났다.

(아,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하고있는데 나는 백괴쇠돌밭을 통채로 폭설과 눈보라속에 묻어놓았으니 세상에 이런 기막힌 최악이 어디 있던 말인가!!)

최석은 횡포한 자연으로 하여 빗어진 뜻밖의 재난이 전적으로 자기의 실책처럼 생각되었다.

비상협의회

손전지를 켜들고 앞마당의 눈을 밀어낸 다음 기본도로로 향한 길을 오솔길정도로 내놓은 최석은 방으로 들어왔다.

쫄쫄하게 곱아든 손을 녹일새도 없이 채광장전경도를 펴놓고앉아 눈치기전투작전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현재의 정황에서는 3 일은 싹히 걸려야 폭설의 피해를 가시고 생산을 정상화할것 같았다.

3 일!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잃게 된다는 상실감이 아프게 가슴노리를 물어뜯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창유리에는 아직도 어둠이 진득진득하게 발려있는데 누군가가 왁살스럽게 문을 잡아채치더니 떠밀려 들어오기라도 하듯 화닥닥 뛰어들어왔다.

온몸에 눈매닥질을 하여 누군지 통 알아볼수 없었다.

《에에, 생전 이런 날씨는 처음 보는군. 그나저나 이런 날씨에 생산지휘를 하느라고 기사장동무가 육을 봤수다...》

기관총사격소리처럼 빠른 말씨, 북방사투리가 짙게 섞여있는 칼칼한 목소리가 울려서야 최석은

그가 바로 1 직장장 조철호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인차선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벌써 올라왔는가. 잠에서 깨기는 언제 갇기에 출근시간도 되기 전에 이렇게 나타났는가?

최석은 의문이 가득한 중에도 그의 때이른 출현이 무등 기쁘고 반가웠다.

《어서 여기 난로곁에 오십시오. (조철호는 최석보다 10 년이상 손우였다.)

헌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습니까? 인차도 뛰지 않는데...》

뻔뻔하게 밀굽이 달아오른 배불뚝이난로곁에 다가선 조철호는 얼굴에 웃음을 피우며 조금 빠깁사 한 투로 말하였다.

《허참, 기사장동문 이 조철호를 모르우? 이런 형편에 내가 박대평이처럼 (그는 대사에 7 직장장 박대평을 악의없이 걸고들군 했다.) 늘크데해서 앉아있을 사람이요? ... 어제 밤도 펴 늦어서야 로친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새벽벽이 되자 귀속이 잉잉 우는게 아무래도 이상하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았으니 아닐세라 눈보라소리는 썩썩 울리는데 차소리는 감감 들리지 않더라 말ियो.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었수다.

<에그, 날도 밝지 않았는데 벌써 어딜 나가시우?>

로친이 징징거리며 매달립데.

그런걸 활 밀어던지구 뉘다 뛰어서 인차장까지와보니 이런 난사가 있소?

인차길이 딱 막혔다. 예라, 오랜만에 눈길행군을 해보자, 언제 이 조철호가 호강을 하며 살았더냐.

이렇게 감시를 먹고 굴진하듯 눈을 파제끼면서 고지로 올랐수다.

한참만에 뒤를 돌아보니 내뒤에 우리 <친구>들이 (그는 늘 자기 직장 운전사들을 이렇게 불렀다.) 줄줄 따라섰더군.

우리 <친구>들이 참...》

최석의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불끈 쳐받쳐올랐다. 몸집도 체소하고 나이도 적지 않은 조철호 역시 자기와 거의 같은 시각에 거의 같은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난것이었다.

천여메터의 고지, 거리상으로는 거의 10리나 되는 가파로운 산길을 《굴진》으로 톱아오른것이었다.

그리고도 자기의 수고 같은것은 알은체도 없이 직장 《친구》들을 기특해하고있지 않는가?!

최석은 서둘러 의자를 끄당겨 철호앞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철호는 해해 손을 휘저었다.

《언제 앓을새가 있소? 어서 우리 직장 일감을 주시우.》

최석은 조철호의 급급한 성미가 심분 리해되었으나 그의 주관적인 독촉에 공감할수는 없었다.

《직장호상간 <연합작전>도 해야 하고 일의 선후차도 가려야 하니 바쁘더라도 모두 모여서 협의회를 해야 합니다.》

필씩 문이 열리었다. 싸늘한 바람과 뽕안 눈가루를 앞세우고 여러 사람이 줄레줄레 들어섰다.

모두 생산지휘성원들이었다.

아쉽게도 7직장장 박대평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석의 가슴은 후더워났다.

들어보나마나 이들도 모두 조철호나 비슷한 심리와 경로를 거쳐 이처럼 때이르게 고지에 올랐을 것이었다.

《수고들 했습시다. 어서 이리로 나오십시오..》

최석이 난로걸을 가리켜보이며 젖은 청을 툴아 올리자 룡구장에는 한번도 들어서본적이 없으나 지나치게 키가 큰 탓에 《룡구선수》로 불리우는 3 직장장이 병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수고는 무슨... 고지에 오르면서 보니까 사업소 사람들 거의가 우리뒤를 따르는것 같습니다. 헛허, 굉장하던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최석은 《룡구선수》의 말을 받아주다말고 스스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선로는 열지 못했어도 고지에로의 통로는 벌써 개척된셈이다.

그렇다면... 주타격방향으로 정했던 인차선로를 개척하기 위한 눈치기는 2부류전투로 돌려야 한다...

최석의 작전안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수정을 해야 했다. 여느때 같으면 자기의 이런 실책이 무척 피로왔을것이나 지금은 그것이 도리어 그 어떤 야릇한 기쁨과 흥분을 몰아왔다.

또 출입문이 열리었다.

사람들은 일시에 출입문계로 시선을 돌리었다.

전혀 뜻밖에도 사업소 문화회관관장 리성옥이 안경을 번들거리며 들어섰다.

모두들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여 나직한 웃음을 터치었다. 협의회참가대상도 아니고 누가 회의에 참가하라고 포치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무엇때문에 여기에 나타났는가.

혹 무슨 예술공연문제 같은것을 토의하는줄로 잘못 알고 온게 아닐가?...

《관장동무, 우린 지금 폭설피해를 가시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는데...》

최석은 절감계 변축을 올려보았다.

깜짝 놀랄줄 알았던 리성옥은 희좁은 얼굴에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예, 그래서 저도 왔습시다. 이거 늦어서 미안합니다.》

성옥은 하지 않아도 좋을 사죄의 말까지 깎듯이 하고나서 당당하게 의자를 끄당겨앉았다.

최석은 평소에 사업소 문화회관(회관은 철산봉우에 있다.) 관장 리성옥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주 상대하는 사람도 아닌데다 최석이 보건대 성옥은 형편없이 지루한 사람, 온통 음악세계에서 살고 있는 《음악지상주의자》였다.

성옥에게 걸려들면 그가 누구든 일개 청중이 되어 성옥의 장황한 《예술강의》를 받아야 했다.

또 한가지 불쾌한것은 언제인가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술냄새때문에 기분이 잡치였던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성옥이 역시 이 방에 모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폭설과의 전투를 위해 남먼저 고지에 올랐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한결 더 훈훈해났다.

잠시후 최석은 그 유명한 수첩 두개를 가지런히 펼쳐놓고 회의를 시작했다.

《모두들 직접 보고 겪었으니 길게 설명할것도 없습시다.

누구나 처음 보는 이 엄혹한 폭설과 눈보라를 밀어내고 한시라도 빨리 설비들의 동음소리가 터져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첫째로, 운광도로들의 눈을 치고 대형차의 운행, 인원들의 류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할딱고개>아래 묻혀있는 연유공급차를 끌어올려 낮고대 대형차들에 연유를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차선로를 해치고 인차의 정상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직장은...》

최석은 군대지휘관마냥 이미 속으로 세세히 따져본 작업지령을 간명하게 련속적으로 내리었다.

《알았습시다.》

직장장들도 명령받은 병사마냥 힘차게 대답하고는 차제로 방을 나섰다.

이제는 회관관장 하나만이 남았다.

관장의 몫은 전혀 타산해보지 못한지라 잠시 주뭇거리던 최석은 저로서도 한심하게 생각되는 지시를 손님에게 부탁이라도 하듯 어정쩡하게 내리었다.

《관장동무도 각방으로 우리 일을 도와주면 고맙겠소.》

《알았습시다.》

성옥은 무슨 중대한 과업이라도 받은듯 근엄한 낯색으로 힘차게 대답하고나서 황황히 밖으로 나갔다.

박대평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운했다. 원망스러웠다. 언제부터 찢딛지 않게 생각했던 그의 태평스러운 성격이 더욱 못마땅해났다.

어느새 어둠이 발려있던 창유리는 하얗게 걸히었다. 날이 밝은 것이었다.

창유리에 두텁게 붙린 성애의 《산발》너머로 래질하는 눈보라의 살벌한 모습이 또렷이 안겨왔다.

어둠에 잠겼던 폭설과 눈보라의 형체가 뻔히 드러나자 사태는 훨씬 더 엄중하게 생각되였다.

심장은 더욱 불안스레 뛴뛰었다.

하나 눈가래를 찾아들고 밖으로 나오자 최석의 기분은 적지 않게 호전되였다.

사무실에서 기본도로로 나가는 외통길의 눈벽에 나무꼬챙이로 써놓은 커다란 글발이 우선 마음을 흔들었다.

《사무실성원들이여, 출근하는 즉시 운광도로는 치기전투장으로!》

익달된 글체로 보아 직관원의 숨씨가 분명했다.

(직관원이 이 백설천치에서도 제 할 몫을 하는군. 헌데 그 사람은 또 언제 올라와서 언제 회의내용을 알았을가?)

넓은 쇠돌발이 그대로 뻔히 내려다보이는 전당대에 이르러 최석은 다시한번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채굴장은 눈보라의 란무에 뒤덮이여 운광길과 채굴계단의 굴곡을 전혀 가려볼수 없었다.

하나 그 눈보라속에서 눈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렷이 가려지였다.

벌써 허연 눈을 그득히 담아실고 달리는 대형차들도 있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때 이른 출근으로 하여 눈치전투는 최석의 타산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폭이 크게 전개되고 있었다.

최석은 기운차게 활개를 치며 1직장이 맡은 630계단운광도로를 향해 급급히 걸음을 옮기었다.

운광직장에서

넓다란 도로복판에 산처럼 막아선 눈무지들레에는 술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뽕양개 눈가루를 날리며 연송 눈을 퍼내고있었다.

하나같이 장대한 젊은이들속에 섞인 체소한 조철호는 몇번 눈을 치다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향을 치다가는 다시 눈가래를 푹푹 들이박곤 했다.

위낙 조철호는 가만 내버려두어도 다망분주한 사람인데 일거리, 말거리를 싸안고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기도 했다.

《직장장동지, 아, 글썄 눈속에서 자연적으로 극동된 산토끼 세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밤에 내려왔다가 극동된것 같은데...》

《현장식당에 가져다주라구... 점심때까지 푹 끓이라구 해.》

《직장장동지, 하늘에서 탁구판이 떨어져내렸습니다. 730계단에 있는 3직장 탁구판이 눈보라에 날아온것 같은데.》

《흠, 철산봉꼭대기에 나무탁구판을 만들어놓다니... 여, 제격 랑구통이에 바줄을 매달아서 대형 눈가래를 만들라구.

그리구 봄에 가서 우리가 세멘트로 탁구판을 만들어주면 그 알량한 <롱구선수>네 <친구>들이 귀잡고 절을 할게야.》

탁구판처리문제까지 즉석에서 결론을 준 조철호는 사람들을 휘휘 둘러보며 또다시 큰소리로 웨치었다.

그의 작은 입에서 비자루같은 입김이 펄펄 불려나갔다.

《눈을 치는데는 삼으로 대구 떠넘기려 해서는 안돼. 나가는 량보다 흠어져 떨어지는 량이 더 많단 말이야.

먼저 삼등으로 쿵쿵 눈을 다진 다음 삼날로 두 부모베듯 네모반듯하게 베내란 말이요. 그다음은 상자를 안아들듯 사뿐히 들어서 대형차에 실으면 한꼬지의 허실도 없단 말이요.》

운전사들속에 끼워 눈가래질을 하던 최석은 한식경이나 쉬임없이 말을 하고 몸을 놀리는 조철호를 거의 기이한 심정에 사로잡혀 주시하고있었다.

조철호는 60이 이마우에 닿은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자신은 물론 주위사람들도 철호의 나이가 환갑이 불원하다는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청춘시절의 기력과 열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그는 지금도 하루종일 걸거나 차를 타고 운광길을 오가는가 하면 차수리나 차정비작업에 뛰어들어 지칠줄 모르고 힘을 내었다.

명절때마다 열리는 직장별축구경기때는 어김없이 팀의 공격수로 나서서 젊은이들에게 짝지지 않는 열정과 기력, 재치있는 기술종작까지 발휘

하곤 했다.

그는 승벽심 또한 만만치 않았다.

어느 명절날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철호는 뒤늦게야 경기장에 당도했는데 그 즉시 옷을 벗어던지고 축선을 따라 오르내리며 경기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조철호의 성급하고 복잡한 지휘에 따라 용케도 상대편의 문전에까지 접근한 1직장 공격수는 최종방어수까지 멋들어지게 빼돌렸다.

헌데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 공격수는 갑자기 발목이라도 접질렸는지 푹썩 주저앉았다.

일이 안될 때라 공은 공격수의 무릎에 맞고 축선쪽으로 디그르 굴러났다.

축선밖에서 연해 《찢러라, 찢러라》 고향을 지르던 조철호는 제앞으로 공이 다가오자 와닥닥 축구장안으로 뛰어들었다. 달려나가면서 힘껏 공을 내질렀다.

공격수가 나뉘어지고 공이 한옆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잠시 긴장을 늦추고 서있던 상대편문지기는 난데없이 나타난 조철호가 벼락같이 공을 내지르자 잡을념도 못내고 《꼴임》을 당하였다.

엇겅겅에 심판원도 뻥 호각을 불어 득점을 선언했다.

축구경기력사상 류례없는 반칙득점에 관중들은 폭소를 터치고 상대편은 입을 모아 항의를 했으나 조철호는 제쪽에서 도리어 눈을 부릅뜨고 열을 올리였다.

《난 기본선수요. 내가 경기에 빠지는걸 여직껏 본적이 있소?》

그는 생억지를 쓰는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을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착각한것이였다.

물론 잠시후에는 꺾꺾 웃으며 스스로 자기의 착오와 실책을 울곧게 토설하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를 아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상대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의 곳곳에서 두드러져나오는 로년의 징후를 정신력 하나를 가지고 다 가리울수는 없었다.

요즘에 와서 그의 시력은 급격히 떨어지였다. 건망증세도 훨씬 농후해졌다.

그것만은 도저히 숨길수 없었다. 무슨 회의뒤 끝이면 거의 매번 어색한 웃음을 띄우고 다시 회의장소에 나타나곤 했다.

《헛허, 모자를 두고 나왔구만.》

《장가가는 놈 무얼 떼놓고 간다더니 사업수첩을 놓고 나왔구만. ...》

대개 이러루한 말로써 자기의 로년증세를 누구에게나 흔히 있을수 있는 가벼운 실수로 묘사하려고 애쓰며...

최석은 조철호의 기백과 열정이 무척 돋우보였으나 그의 성급성과 건망증은 늘 마음에 걸리였다.

때로 그것은 여간만 미타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허나 지금은?... 무엇때문인지 조철호의 일을 서뽀르게 간섭하는것은 도움이 아니라 지장이 될것 같았다.

자기의 혼시가 아니라도 조철호는 끝까지 완강하게 일을 밀고나갈것이였다.

미타한 점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차라리 직

장장의 부재로 하여 지휘체계에 어느 정도 손상이 생겼을 7직장에 나가보는것이 더 실속있는 처사일것이었다.

운광도로를 벗어난 최석이 1직장앞을 지날 때였다. 직장 앞마당에서 뽕뽕- 용접기 우는 소리와 함께 희푸른 용접불빛이 평곳평곳 비쳐나왔다.

(모두 눈치기에 떨쳐나섰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용접을 하는건가?)

마당안에 들어서니 커다란 철판우에 용접면으로 가리운 얼굴을 내리떨구고 열심히 용접을 하는 사람이 첫눈에 안겨왔다.

최석은 용접기소리를 누를만큼 큰소리로 말을 뱉었다.

《동무, 이젠 대체 어디다 쓸거요?》

용접면이 내리워지더니 싱싱하게 젊은 청년의 웃음기어린 네모진 얼굴이 드러났다.

《예, <특대형눈가래>를 만들고있습니다.》

《이렇게 큰 철판으로 눈가래를 만든단 말이요? 타산해보구 하는 일이요?》

최석은 눈을 치기는커녕 그냥 쳐들기도 어려울 것 같은 넓다란 철판을 가리켜보이며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자 청년은 허공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건 직장장아바이 아니, 우리 직장장동지가 오늘아침 고지로 올라오면서 <불시창안>한것인데... 보십시오. 철판 량쪽귀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 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형차앞면에 가용점으로 살짝 붙여놓으면 철판은 볼도젤살날처럼 언덕 일어설게 아닙니까.

그다음 막 밀고나가면 순식간에 채광장이 쭉 벗겨질겁니다.》

최석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기발한 착상이었다.

눈치기능력을 열배 아니, 백배는 실히 높일것 같은 이 착상을 조철호가, 그 성급한 사람이 해냈단 말인가?!

가슴이 뜨거워났다. 새로운 신심이 들먹하게 피어올랐다.

다음순간 한줄기의 의혹이 섬광처럼 뇌리를 지지며 떠올랐다.

(1직장장은 이런 눈가래를 창안해가지고도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언제나 자기 직장이 앞서나가려는 그 고질적인 승벽심이 또?!...)

《기사장동무.》

조철호당자가 입김을 펄펄 날리며 황황히 다가왔다.

그는 최석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허거픈 웃음을 터치었다.

《허허참, 이 조철호가 이젠 확실히 늙은것 같다.》

《아니, 그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견망중 말이지요 협의회때 벌써 <특대형눈가래>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는것이 어떤가 하고 제기를 한다는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지금껏 까맣게 잊고있었습니다.》

최석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여느때없이 조철호가 미더워났다.

그의 심중한 결점이라고 여겼던 그 유명한 견망중조차 그 어떤 매력있는 인간적장점처럼 생각되었다. 최석은 웃으려 했으나 왜서인지 웃음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건 늙어서가 아니라 설새없이 달리고싶어하는 직장장동지의 <젊은> 혈기탓입니다.》

직장장동진 진짜 청춘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지금껏 육체적인 로쇠를 은폐하려고 무진애를 쓰는 조철호를 저이기 서글프게까지 생각해왔던 최석은 새롭게 정립된 자기의 견해를 추호의 거짓도 없이 후련하게 터놓았다.

문화회관 관장 리성옥

1직장을 나선 최석은 대공전화기를 꺼내들었다. 눈보라소리가 스며들어 잡음이 식식 울려나왔으나 목청을 높이면 그런대로 대화를 나눌수 있을 것 같았다.

《직장장동무들, 들으시오. 1직장에서 돌발적으로 <특대형눈가래>를 제작했는데 즉시 그것을 만들어 리용하도록 하시오. 만드는 방법은...》

특대형눈가래에 관한 긴급지령을 내린 뒤 다시 7직장을 찾으니 박대평은 여전히 현장에 없었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으나 이 백설광야에서 그를 찾아낸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럴 경황도 없었다.

여기 운광도로눈치기는 승산이 명백한것이니 한시라도 빨리 7직장이 전개된 《할딱고개》에 내려가 박대평을 대신하는것이 전진적일것이였다.

최석이 고개를 향해 정정경정 운광도로를 내려서는데 석식하게 갈린 목청이 뒤머리를 때리었다.

《기사장동지, 아 기사장...》

돌아보니 회관관장 리성옥이 솜웃자락을 펄럭펄럭 날리며 경충경충 뛰어오고있었다. 저 지루한 사람이 여기서까지 장연설을 퍼부으면 어찌나 하고 근심을 하며 서있는데 아니나다를까 성옥은 다가서는참 뽕뽕 성애가 불린 안경알을 번뜩이며 범잡은 포수마냥 기세가 올라 빨래줄같이 긴말을 펼쳐나갔다.

《제 지금 인차장에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한바탕 해제겼지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훨씬 수월하더군요. 랑만적인데도 있고...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술한 사람들이 이른새벽에 벌써 선로를 따라 눈을 헤치며 고지로 올랐으니 기본적으로 인차철길이 로출된 상태에서 전투를 시작했기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에서 내려가며 눈을 치는 직장, 아래서 올라오며 눈을 치는 직장이 칠월칠석날 건우직녀 만나듯 거의 <상봉>하게 됐습니다....

최석은 리성옥이 인차장에 나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도저히 알수 없었으나 그가 가져온 소식은 필경 귀가 확 열리는것이라 다소 들뜬 어조로 진정에 넘쳐 말했다.

《관장동무가 수고했구만.》

최석이 미처 다음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옥은

자기에게 마치 굉장한 예비대라도 있는듯 기세 등하여 따져묻듯 물었다.

《이제는 <우리 부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최석은 협의회때와는 달리 지체없이 지시를 내리었다.

《나와 함께 <할딱고개>로 갑시다. 7직장동무들이 적지 않게 지쳤을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옥은 같이 가자고 한 최석의 말을 전혀 가려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기 《부대》일이 그리도 바쁜지 제먼저 눈판을 질질 미끌며 지름길로 내려갔다.

그의 등뒤로 눈보라와 함께 지독한 알콜냄새가 확 풍겨왔다.

(아니, 저 사람이 이런 판에서까지...)

최석의 뇌리속으로는 아득히 사라졌던 성옥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다시금 솟불처럼 살아올랐다.

지난해 12월 말경이었다.

년말혁신자축하무대에 성량이 풍부한 기사장의 독창이 나가면 만장의 갈채를 받을것이라고 모두들 내우기는 바람에 최석은 어쩔수없이 회관으로 나갔다.

래일 무대에 출연하자면 손퐁금수와 몇번쯤은 노래를 맞추어보아야 실수가 없을것이었다.

최석이 회관에 들어서자 성옥은 쯤전에 있는 저녁교대성원들을 위한 경제선동에서 오른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은듯 정도이상으로 환성을 울리고나서 곧 예술강의를 시작하였다.

《제가 벌써 기사장동지의 음성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선정해놓았습니다.

제목은 <붉은 철령!>

제가 먼저 이 노래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악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노래는 약기박자로 시작된 노래로서 첫음을 정확히 때기는 조금 어렵지만 바로 그 약기박자로 하여 짙은 서정성과 독특한 감흥을 일관성있게...》

간단하다는 그의 설명은 간단히 끝날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몸에서 풍겨오는 알콜냄새로 하여 최석은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 바로 그 알콜기운이 그의 장황성의 원인으로 된것이라고까지 최석은 생각했다. 건디다못해 최석은 자기의 드바쁜 직무를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관장동무, 난 20분후에 생산총화모임에 참가해야 하오. 그러니 손퐁금수와 몇번...》

그러나 어느결에 벌써 음악세계에 흠뻑 잠긴 성옥은 최석의 말은 들은채도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계속했다.

《그럼 이번에는 문학적으로 이 노래를 고찰해봅시다. 철령! 그 이름 부르지만 해도 우리의 가슴은 벌써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입니다. 과연 무엇때문이었는가?...》

결국 최석은 리성옥의 《간단한 설명》 탓에 처음으로 생산총화모임에 10분이나 지각을 했었다.

최석만이 그 알콜냄새를 맡곤 한것이 아닌것 같았다.

며칠전에도 누구인가 룡삼아 그 이유를 묻는것

을 최석이 목격한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옥은 매번 엇비슷한 소리로 대답했다.

《어제 저녁 우리 조카애 약혼식이 있었지요. 그래 두어잔 마셨더니 ...》

《어제 저녁 우리 인민반장네 아들의 결혼식에 끌려가서 두어잔 마셨더니...》

노상 《어제 저녁》, 《두어잔》 이라는데 모르고 하겠지만 그의 진술은 전혀 사실같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생활할것을 엄격히 요구하는 최석에게 성옥의 됃됨이 마음싸게 안겨올리 만무했다...

7직장이 맡은 산정길눈치기는 예견했던바 그대로 굼뜨게 진행되고있었다.

아직도 직장장이 나타나지 않고 인원수도 다 있는것같지 않는데 그렇게 보아 그런지 일손을 놀리는 사람들도 퍼그나 지친것 같았다.

여기야말로 최대의 력량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었다.

그러고보면 조철호와 《몽구선수》에게 운광도로 눈치기를 끝내는 차제로 지체없이 《할딱고개》에 내려오라고 한것은 썩 잘한 일이었다.

목이 앙바름하고 몸집이 다부진 부직장장이 최석의 흐린 얼굴에 불안스러운 시선을 박은채 헤엄이라도 치듯 팔을 휘저으며 허위허위 다가왔다.

허영계 눈가루가 게발린 장갑으로 《할딱고개》 아래쪽을 가리켜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변명조로 꺼내었다. 허나 그의 말소리는 첫마디부터 가려 들을수 없었다.

산정길열에서 돌연 메가폰소리가 터져오른것이였다.

《7직장동무들! 현재 인차선로와 운광도로들은 기본적으로 개통전야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동무들이 맡은 이 산정길이 열리고 연유 공급차가 <할딱고개>를 넘어서면 우리는 수십년래의 폭설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할것이며 채광장에는 또다시 아니, 더욱 우렁찬 동음소리가 울려퍼질것입니다.

모두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마지막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섭시다.》

분명 리성옥의 목소리였다.

진격나팔소리와도 같은 성옥의 격동적인 선동문이 끝나자 정말로 힘찬 나팔소리가 눈보라소리를 짓누르며 쩡쩡 울려퍼지였다. 왜서인지 부직장장은 와들쭉 놀라 돌아서더니 직장사람들쪽으로 냅다 뛰어갔다.

눈을 치는 사람들도 불식간에 활기를 띠었다. 취주악소리에 맞추어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여느때없이 걸짜게 일손을 놀리었다.

나팔소리, 노래소리는 비교적 한적한감을 자아내던 산정길과 주위의 산발들을 진폭있게 울리며 쩡쩡 메아리쳐나갔다.

백두산의 총대바람 전선길에 날리며

조국땅을 주름잡아 공격전을 펼친다

최석은 저도 모르는새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나팔을 불고있는 곳, 리성옥이 기다란 나무막대기로

성수가 나서 지휘를 하고있는 길옆으로 다가갔다.

성옥에 대한 불쾌감은 어느새 봄눈슬듯 사라져 버리었다. 아니, 그의 존재가치가 어느때없이 귀중하게 그리고 고맙게 새겨지었다.

(리성옥을 장황한 사람, 어딘가 푼수없는 사람으로 생각한것은 실책이다.

저 사람은 역경속에서도 자기할바를 놓치지 않고 찾아하는 전투적인 일꾼이다.

다른 곳도 그러하지만 여기야말로 노래가 울려야 할곳이 아닌가?!

헌데 령하 18도만 돼도 나팔누르개가 얼어서 소리를 낼수 없다던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령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날씨에 나팔소리를 팡팡 울리고있는가?!

최석을 띄여본 성옥은 무엇때문인지 싱그레 웃으며 투박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희맑은 액체가 출렁거리는 하얀 비닐통을 들어올리었다.

비닐통의 액체는 두말할것도 없이 독한 알콜이었다. 성옥은 쿵쿵 웅글진 리듬을 울리는 튜바의 우람진 관속에 비닐통을 기울이였다.

그다음은 경쾌한 대위선율을 굴러내는 테노르와 바리톤의 실한 관속에 차례로 액체를 쏟아부었다.

최석은 단정한 대문이로 지그시 입술귀를 짓물었다.

언제인가 누구에게서 나팔속에 주정이 강한 알콜이 들어가면 아무리 기온이 떨어져도 누르개가 얼지 않을뿐아니라 나팔소리는 더욱 류랑해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하고보면 성옥은 오늘 아침 눈치기전투에 펼쳐나선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리도 격동적인 혁명군가의 선율을 심어주기 위해 남먼저 저 희한한 액체를 품어안고 고지에 오른것이다.

불타는 고지에서 군악으로 병사들의 전투사기를 올려주던 전쟁시기 군악대의 모습을 철산봉우에도 펼쳐놓은것이다.

성옥의 몸에서 풍기던 알콜냄새는 결코 《어제 저녁》에 마신 《두어잔》의 여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로 격동적인 사업의 이채로운 향기였다.

최석은 지휘봉을 찾아들고 자기 《부대》앞에 나서려는 성옥의 차갑게 언 손을 힘주어 틀어잡았다.

《관장동무, 이런 때 고지우에 군가소리가 울리니 정말 힘이 나누만. 고맙소.》

《기사장동지, 음악이란 이래서 훌륭하게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패배주의는 노래를 멀리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속에서도 련전전승하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이 노래...》

열렬한 《음악지상주의자》, 아니 누구보다 음악을 애호하고 음악으로 우리의 생활과 투쟁을 보다 량만적으로 채색해나가는 리성옥은 또 한바탕 예술강의를 퍼놓을 잡도리였다.

최석은 성옥의 강의가 싫지 않았다.

시간과 정황이 허락한다면 오래동안 그의 강의를 진지하게 청취하고싶었다.

최석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아 힘차게 고개를

끄떡이였다.

《관장동무 말이 옳소. 어렵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좋은 노래들을 팡팡 올려주오. 동무의 그 기백과 투쟁기풍이 마음에 드누만. 동무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도 썩 향기롭고. ... 헛허.》

최석의 말은 룡이 아니였으나 그것을 룡으로 받아들인 성옥은 벌썌벌썌 웃으며 대답했다.

《헛허, 어제 저녁 어느 생일집에 가서 두어잔 마셨더니.》

성옥이와 헤어지며 멀리 아래쪽으로 진격해내려간 7직장사람들을 향해 잔결음을 놓던 최석은 몇걸음 못 나가서 다시 굳어지였다.

길옆에 성벽처럼 다져놓은 눈더미우에 활달하게 써놓은 글발을 띄여본것이었다.

《승리는 눈앞에 있다. 연유차를 한시바삐 고지우로!》

리성옥소속 《부대》의 일원인 직관원도 어느새 여기로 내려와 사람들의 가슴에 소리없이 불을 달고있었다.

마지막전투

중전까지만 해도 산더미같은 눈무지들이 무덕 무덕 쌓여있던 산정길은 시야가 탁 트이도록 변해지였다.

돌격서렬은 또 한차례 드센 공격을 벌이며 마침내 《할딱고개》를 내려선것이었다.

최석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0시 30분, 퍼그나 시간이 흘렀을줄 알았는데 아직 오전 한것도 채 지나지 않았었다. 이런 속도, 이런 기세면 3일이 아니라 오늘 오전중에 능히 모든 작전을 승리로 결속할것 같았다.

이것은 실로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었다.

흥분과 환희로 가슴 들먹이던 최석은 대공전화기를 꺼내들자 확신성 있게 말하였다.

《직장장동무들, 운광도로 눈치기가 끝나는 차례로 <할딱고개>로 내려오되 낮교대운전사들은 자기 차로 보내시오. 굴착기들이 가동하는 즉시 쇠돌운반을 시작하거나 시동할수 있게 준비를 갖추게 하시오.》

수화기를 솜옷속에 밀어넣은 최석은 7직장사람들을 향해 씨엉씨엉 걸어갔다.

(이제는 63호만 끌어올리던 눈치기를 전부 끝내고 생산에 진입할수 있다... 63호는 7직장구역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채광장의 전반적인 성과에 저애를 주고있는데 박대평은 도대체 어디서 태평세월을 보내고있는가?!...)

최석은 직장장사업을 할 때부터 박대평의 됃됨이를 잘 알고있었다.

노상 웃음기가 실려있는 부얼부얼한 얼굴, 그 얼굴에 잘 어울리는 뚱뚱한 몸집, 사람은 순하고 진실했다.

헌데 동작이 느리고 말씨까지 뜨직뜨직하여 사람들은 그를 두고 대평이 아니라 태평이라고 불렀다.

최석이 기사장으로 임명된 다음날에 있는 일이었다. 사업소앞에는 생산을 계획대로 밀고나가면

서 련합기업소 염소목장에 소요되는 먹이용건초를 보장하라는 긴급과제가 떨어지였다.

염소목장 식구들이 예상밖으로 불어나고 염소들의 증체률이 부쩍 높아지는 바람에 이미 장만한 먹이로는 겨울을 넘길수 없을듯 하여 추가적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난감했다. 절기로 보면 마가울이지만 어디 가나 눈이 쌓여있는 이때 어디 가서 마른 쭉대며 쿵각지갈은 먹이용건초를 베들인단 말인가.

일편 호춧하기도 했다.

염소들의 증체률과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것은 우리 광부들의 생활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나 역시 과중한 과제라 직장장들은 분담을 받기 바쁘게 황급히 최석의 방을 뛰쳐나갔다.

오직 박대평이만이 바위처럼 버티고있아 병글 병글 웃으며 유유히 담배연기를 날리고있었다.

최석은 지나치게 썸평이 늘어진 박대평의 뒤일이 걱정스러웠다.

《수월치 않은 과제가 맡겨졌는데 빨리 나가서 조직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소?》

대평은 여전히 희푸른 담배연기를 굴불굴불 내 불며 제판의 감회에 젖어 웅얼거리었다.

《눈이 강산같이 내렸는데 염소먹이를 끌어들이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군요.

그러니 우리의 행복이 예상할수 없으리만큼 빠른 속도로 커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물론 조직사업이야 해야지요. 내 이제 한대 태우고나서 술술 가겠습시다.》

최석이 그 《술술》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꿈에도 알리 없는 대평은 술술 가겠다고 해놓고도 한참이나 늘어붙어있아 술술 담배연기를 날리었다.

최석은 종시 순편치 않은 자기의 속을 쏘아놓고야말았다.

《정말 7직장장은 술술 천년나마 살것 같구만...》

여하튼 대평은 제기일에 맡은 과제를 다 제끼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최석은 대평의 《술술》이라는 입버릇과 무엇이든 술술 해나가는 그의 일숨씨에는 그만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다...

어느새 코바투 다가선 부직장장이 고개길 아래쪽을 가리켜보이며 신명이 나서 청을 높이였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얼음덩이처럼 굳어져있던 63호가 저절로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최석이 《할딱고개》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아닌게 아니라 연유차가 거방진 몸통을 좌우로 흔들며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쪽으로 올라오고있었다.

차의 앞뒤에서 술한 사람들이 분주스레 오가며 눈을 치고 석탄재를 뿌리고있었다.

《영차, 영차.》 기운차게 소리를 지르며 차를 떠미는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 련합기업소 기사장이 고지기슭에 산재해있는 발파직장과 용수직장사람들을 동원하여 연유차를 밀어올리게 한 모양이었다. 최석은 속깊이

에서 기름불같은것이 혹 치밀어오르는 순간 돌덩이처럼 탄탄한 부직장장의 어깨를 툭 때리었다.

《어서 내려가보지요.》

최석은 63호앞에 이르자 제잡담 딱딱한 차체에 어깨를 들이박았다.

공공 힘을 썼다.

부르릉 앙앙, 연유차는 파란 연기를 뿜어내치며 한치두치 안타깝게 발을 내짚었다.

이 길을 넘어설 때면 숨이 할딱 넘어갈지경이라고 하여 어떤 싱검둥이친구가 제멋대로 이름지어놓은 《할딱고개》를 힘겹게 뚫아올랐다.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채광장이 너를 기다린다. 승리가 너를 기다린다.

안다문 이새로 이렇게 웅얼거리며 힘껏 차를 떠밀던 최석은 불현듯 대형차가 눈에 지치여 서서히 미끄러져내리고있음을 어깨살의 감각으로 의심하였다.

미끄러져내리는 속도는 초초로 높아지였다.

뒤머리가 예리한 칼끝에 찢리기라도 한듯 짜릿 짜릿해났다.

백톤은 실히 될 이 거물이 맹속으로 뒤걸음치는 경우 차는 물론 인명까지 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버릴것인가 피할것인가?! 사색의 저울추는 두개의 극점사이로 분주히 오고갔다.

갑자기 차체에 닿아있는 어깨의 뼈가 으스러지는듯 한 모진 아픔이 어깨만이 아니라 전신에 마쳐왔다.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 아래쪽으로 쏠리던 연유차가 덜컥 멈춰섰다.

(또 하나의 기적이로다!) 하는 생각이 미처 굳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의 다급한 고탐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사람이 깔렸다!》

최석은 전신이 오싹해났다. 심장은 가랑잎처럼 오그라들었다.

황황히 뒤바퀴쪽에 뛰여가보니 아닐세라 바퀴 밑에 누군가가 통으로 몸을 들이민채 까딱없이 굳어져있었다.

최석은 누구에게라없이 목청껏 웨치였다.

《빨리 차를 앞으로 뺐으라!》

하고는 무작정 바퀴밑으로 날아들었다. 금시 숨이 가빠오르고 온몸이 짓이겨지는듯 했으나 생각보다는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

한짝의 무게가 2톤이나 되는 대형차바퀴의 중량감이 이정도일수 있겠는가.

귀중한 정지의 한순간을 도약의 디딤대로 삼고 와룡와룡 용을 쓰던 연유차는 마침내 웅- 시원스럽게 걸음발을 내짚었다.

바퀴밑에 몸을 들이밀었던 두사람은 동시에 앞쪽으로 곤두박히였다.

그제서야 최석은 제먼저 바퀴밑에 뛰여든 사람이 다름아닌 박대평임을 알아보았다.

심장이 후두둑 곤두뻘을 하였다.

조금후에야 여러가지 의문과 기쁨을 느끼며 또 헐헐 가쁜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박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소? 그나저

나 상하지는 않았소?)

대평은 싱그레 웃으며 천천히 일어나앉았다. 담배가루가 날리지 않게 반쯤 몸을 돌리고 담배를 맡기 시작했다.

《이 박대평이가 상할리 있나요. 1직장 조령감(대평은 대평대로 말끝마다 조철호를 악의없이 곁고들곤 했다.)은 나를 완전히 거부기로 아는 모양이던데 천만예요... 이자 방금도 배낭에 메고 온 고임목부터 고이고나서 날래게 몸을 들이밀었지요. 헛헛허...》

연유차는 벌써 《할딱고개》를 넘어섰는지 고개길우에서 우렁찬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대평은 태평스레 퍼더앉아 맛갈스럽게 담배연기를 내뿜며 뜨직뜨직 뒤통을 심어나갔다,

역시 《슬슬》이라는 한없이 배포유한 표현을 슬슬 섞어가며...

《...아침일찍 깨나보니 눈보라소리는 세찬데 대형차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군요. 슬슬 옷을 입으며 생각해보니 간밤에 기동했을 연유차가 딱 속에 걸리더군요.

그래 배낭을 메고 슬슬 나오다가 차수리소에 들어서 고임목을 빌려가지고 제창 산정길로 들어섰지요.

오면서 보니 오늘 첫 아침에 연유를 공급받아야 할 우리 <친구>들도 배낭마다 석탄재를 담아 메고 슬슬 내뿜을 따르더군요.》

역시 대평도 철산봉의 동음소리가 멎는통에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나서는 열배의 용기를 내고 슬기를 내고 사생결단의 의지를 발휘하여 연유차 구조전투를 벌린것이였다.

하고보면 대평의 모든 언행은 몹시 느리나 그것은 심도있는 사색과 든든한 배심에서 시작된것이 아니겠는가.

속깊이에서 뜨거운것이 부각부각 피어올랐다. 대평이 전혀 새롭게 여느때없이 미덥게 안겨왔다.

대평은 무릅없이 최석의 손을 잡아흔들며 말을 이었다.

《차가 <할딱고개>를 넘어선것 같은데 우리도 슬슬 올라갑시다.》

최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석은 방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여 뛰어내려온 부직장장을 돌아보며 슬슬이라는 표현에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쵸소, 우리도 슬슬 올라가가요. 그런데 부직장장동무! 오늘부터 저 고개를 듣기도 거북하고 어감상도 좋지 않은 《할딱고개》라고 하지 말고 《태평고개》라 부르는게 어떻소?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을것 같은데...》

최석의 룡기다분한 진담이 끝나자 세사람은 거의 동시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껄껄 웃었다.

철산봉동경에서는 이제야 게으른 겨울해가 진 회색의 구름장들을 비집어헤치며 느리게 솟아오르고있었다. 폭설과 눈보라에 묻혔던 해도 구원의 해를 입을듯싶었다.

철산봉의 겨울풍경(2)

최석은 전망대에 못박혀선채 털모자의 귀덮개를 펄럭펄럭 날리며 채굴장의 전경을 부감하고있었다.

해살이 어리어 바위도 돌도 길도 벼랑도 모두 해빛으로 번쩍거리었다. 길에 깔리고 봉우리에 얹혀있는 눈도, 허공을 날아에는 눈가루도 모두 눈이 시도록 번쩍거리었다.

길고 억센 팔뚝을 휘두르는 대형굴착기들, 줄달아 달리는 대형차들, 기다란 몸집을 곧추 세우고 쿵쿵 발과구멍을 뚫고있는 회전식착정기들도 기름칠이라도 해놓은듯 번들거리었다.

철산봉에 차고넘치는것은 오직 기계화군단의 거세찬 발동음뿐이였다. 철산봉은 그 장쾌한 음향에 맞추어 통으로 몸을 들썩거리는데싶었다.

최석의 가슴은 류다른 환희로 뿔뿔하였다. 사색은 하냥 폭을 넓히며 끝없이 내려쳐올랐다.

(오늘날 파괴적인 자연재해는 이 행성 어디에나 빈번히 횡행한다.

물란리, 산불, 눈사태, 왕가물...

하지만 최첨단기술로 시시각각 놀라운 신비가 산생되는 현시대에 와서도 세상은 아직 재해를 요격하거나 그 후과를 일격에 가셔버리는 기술만은 발명하지 못했다.

하기에 자연재해로 하여 얼마나 많은 인간들과 창조물들이 참혹한 피해를 입고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오늘 수십년래의 엄혹한 폭설과 눈보라를 거의 《요격》에 가까운 타격으로 일시에 걷어냈다.

남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이 큰 공격전이 어떻게 이처럼 빠른 시간안에 이처럼 완벽한 승리로 결속될수 있었는가?!

등뒤에서 술한 사람들이 부르는 절절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전망대에는 수백명의 광부들이 모여섰는데 그들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누가 이끌어난 사람도 없건만 광부들은 몇해전 어느 겨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산을 찾으시였을 때 서계시였던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모여와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있는것이였다.

최석은 눈굽이 젖어들고 심장이 젖어들었다. 걱정애 젖은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

오늘의 선군승리 노래에 담으려니
장군님 전선길이 어려와 목메입니다

(그렇다!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중하를 덜어드릴 열망이 더욱 불타오르는 우리 광부들의 열렬한 심장이 오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려명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더더욱 신심 드높아지고 원기왕성해지고 슬기로운 우리 사람들!

정녕 시련이 증대될수록 주접이 들거나 시들기는

커녕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선군시대 인간들처럼 훌륭한 인간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헌데 나는 뜻밖의 시련이 닥쳐오자 일순이나마 당황했다.

일상적인 집작과 판단에 기초하여 산수적으로, 통계적으로 눈치기작전안을 세웠다. 바로 그런 탓에 엄청나게도 3일이라는 시일을 빗보았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실책이다. 아니, 너무나 숨엄한 발견이 아닐수 없다....)

최석의 뇌리속으로는 조철호와 리성욱, 박대평과 오늘은 한번도 보지 못한 직관원 그리고 사업소안의 알고 모르는 사람들의 각이한 모습이 언뜻언뜻 다가왔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심장을 지닌 선군시대 인간

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최석의 넓은 가슴에 한쪽의 숨엄한 군상으로 아로새겨져있다.

최석은 뜨거운 침을 삼키며 다시 채굴장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바위들도 검충충한 바위들이고 길도 우둘투둘한 돌밭길이고 불어오는 맵쌀 바람과 날아다니는 차거운 눈가루도 겨울 어느때나 흔히 볼수 있는 너무도 낯익은것이였다. 허나 최석에게는 그 모든것이 여느때 없던 유정한 정서와 뜨거운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었다.

자연도 사람도 설비도 모든것이 예전그대로이건만 철산봉의 겨울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인간들이 약동하는 고장이여서 그리도 아름다운 철산봉의 겨울풍경이였다.

우리 당 총비서는 전선에 계신다

김호군

해빛은부신 10 월 8 일
단풍도 붉은 계절
총잡은 병사의 이 가슴속에
더더욱 뜨거워지는
오늘도 전선길 견고계실 장군님 생각

10 년세월 하루같이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우리 당의 강화를 위해
눈덮인 전호, 비뿌리는 령길을
그리도 많이 견고걸으신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물어보자 인민이여 조국이여
어이하여 우리 당 총비서는
당중앙청사가 아니라
최전방 지휘처 작전도앞에
그리도 자주 서계셨던가
고요한 정원길이 아닌
공장의 구내길과 협동벌의 포전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셨던가

그이는 당중앙청사에 계시면서도
위대한 사상과 로선으로
탁월한 전략전술로 이 조선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수 있으려면만

아,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수령님 맡기신 인민
수령님 창건하신 우리 당을

총대로 굳건히 지키시려
위대한 선군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장군님

그 길에서
그이는 정립하셨거니
총대가 굳건해야
당도 조국도 인민도
굳건히 담보할수 있음을

그렇다
그이는 최고사령부 작전도앞에서
당의 강화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설계하시고
병사들의 소박한 노래속에서
천만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눈내리는 령길에 야전차 달리시면서
우리 당을 백승의 길로 향도하시거니

10 월의 단풍이 아무리 붉다 한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당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병사들의 심장보다 붉으라
장군님을 총대로 보위해갈 그 맹세
더더욱 불타오르는 10 월이여

눈부신 해빛아래 단풍붉은 오늘도
야전복자락 날리시며
우리 당 총비서는 전선에 계신다
선군의 당, 조선로동당은
장군님따라 영원히 승리만을 펼쳐가리라

행복한 사람

리연희

아득히
하늘을 향해 휘젓는 이깎술
눈부시게 비쳐드는 해빛속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서있는 사나이
그 얼굴우에 어깨우엔
어리광부리듯 날아내리는
이깎잎 이깎잎

크지 않은 키
넓지 않은 저 어깨우에
북방의 허리치는 눈길을 헤쳐
이깎종자를 메고온 그날부터
이 산관에 씨앗과 함께
생의 전부를 고이 묻은 사람

한삽한삽 바위마다 흙을 얹으며
한배낭 또 한배낭 나무마다 거름을 주며
땀젖은 저 등어리로
온산을 떠메여올린 사람
돌박산우에 숲을 안아올린 사람

뿌리에 바람이 들가 잎이 마를가
세상에 처음 내세운 아이마냥
마음쓰며 애태우던
그게 재미였노라고
너무도 수수하게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산기슭에 처마를 잇댄 그의 집
밤이면 그와 함께 산도 누운듯
어린잎 살랑대는 서재골
아름드리 듬직한 령대골의 설레임소리
자식들 숨결처럼 다 가려들으며 잠드는

그것이 산림감독원 그의 더없는 락이였어라

이 아침에도
이슬젖은 밀림속에 나무들 자라는 소리
봄비속에 산이 크는 소리
온몸으로 들으며
산짐승들 울음소리 맹수들의 발자취에도
숲의 들어가는 식솔들을 자랑하는 사람

안길듯 두팔벌린 아지들
어루쓸어주며 잡아도 보며
3년생 17년생 25년생...
자식의 나이를 대듯
그 심은 달마져 생일처럼
즐거이 이야기하는 사람

오늘은 《시집》, 《장가》를 보내는 자식마냥
차판마다 가득히 나무들을 떠나보내네
땀을 고여 정을 고여 바쳐온
그 하많은 날과 달을
나무와 함께 떠나보내네

허나 산은 보내지 않았네
스스럼없이 그가 걸터앉은 그루우에
돌기돌기 년륜으로
그 한생을 새겨놓았네

두룽봉 범동골 서재골
오늘은 산이 그를 받들었네
그 그루마다 또다시
뿌리를 내려 솟구쳐오를 그의 삶
영원히 푸르려 늙지 않을 애국을 떠받들었네

가사

바다가치녀래요

최향

바다 먼 산촌에서 태어나 자란 처녀
그림같은 양어바다 가꾸며 산다오
펼 펼 뛰는 고기떼에 정들인 그를 보고
온 마을이 불러요 바다가치녀래요

바다 먼 내 고향에 양어장 펼쳐지니
산에 살던 산새들도 물새가 되었다오

산골처녀 그 이름을 사람들 잊었나봐
온 마을이 불러요 바다가치녀래요

동해서해 큰 바다는 천리밖에 있다 해도
내 고향의 양어바다 마을앞에 생겨났소
장군님 기뻐하신 양어바다 안고사니
온 마을이 불러요 바다가치녀래요

인민의 복수자

오영재

병원생활 마치고
부대를 찾아가는 젊은 병사
전선으로 식량을 싣고가는
한 로인과 길동무 되었네

황소는 숨가빠 입김을 날리며
삐걱이며 굴러가는 달구지
쌀가마니 무지우엔
한 어린 아이가 앉아있었네

로인은 말했네
저 애가 우리 집 열세식구중에
오직 살아남은 막내손자라고
미제놈들이 마을을 강점했을 때
인민군대후방가족이라고
로친과 딸, 며느리, 손자애들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생매장했다고
혈혈단신인 저 막내손자
전선원호미달구지와 함께 싣고다닌다고

-산에서 내려와 이 참경을 보니
하늘이 캄캄합디다
매달리며 우는 저 어린것 하나를 데리고
싸우는 전사들에게 이 복수를 해달라고
밤이나 낮이나
이 달구지를 물고다닌다오

그 사연이 너무도 기막히고 가슴아파
젊은 병사 울컥 치미는 눈물을
조용히 옷소매로 훔치는데
불덩이같은 눈으로 병사를 바라보며
로인은 엄하게 타일렀네

-자네는 아직 병사가 채 못되었네
우리가 울고있기는 아직 일러
우리가 미제놈들을 다 쳐죽이고 이기는 날
그날에 가서야 나는
이날까지 가슴에 차있는 눈물을
동이로 쏟으며
머칠을 품놓고 실컷 울어보겠네

병사는 로인과 헤어지며
군모의 채양에 손을 붙이며 말했네
-아바이 진짜병사가 되겠습니다
인민의 복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달구지의 아이를 버쩍 안아올리며
그의 볼에 입을 맞춰주었네

×

무명고지를 탈환하는 습격전에
병사는 자진하여 나갔네
이른새벽 어둠을 타고
은밀히 고지에 접근한 병사
철조망을 끊고 돌격로를 열었네

신호총성이 울리고
습격조가 고지우로 치달아오를 때
조명탄이 걸리고
적의 화점에서 불줄기가 쏟아져나왔네

공격이 잠시 멎어선 순간
병사는 화점을 향해 달려갔네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그의 팔과 다리를
원췌의 탄환은 꿰뚫었네

불사신처럼 몸을 일으킨 병사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원췌의 화점을 몸으로 덮었네
육박의 총창을 비껴들고
습격조는 순식간에 고지를 타고갔고
무리죽음을 당한 원췌놈들의 시체를 딛고
승리의 만세소리 높이 울렸네

밝아오는 새벽노을속에
전우들이 병사를 안아일으켰을 때
달구지의 아이를 안아 볼에 입을 맞추던
그의 입술은 아직도 붉은데
그의 가슴에선
로인이 동이로 쏟아놓고싶다던 그 눈물을
진한 피로 쏟고있었네

그의 가슴에서 찾아낸 복수기록장은
피로 얼룩졌는데
거기에는 로인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약속한 그 글발이 적혀있었네
-아바이 진짜병사가 되겠습니다
인민의 복수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가

-단편소설 《말없는 바다》를 두고-

김만경

문학작품이 안겨주는 시대와 력사의 진리가 그토록 깊은 여운을 안고 생의 목표로 빛날수 있는 것은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이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에만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귀중한 인생의 교훈과 경험을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참신하고 인상적인 예술적형상에도 어려있기때문이다.

작가는 자기의 사상미학적주장을 논리적해설로 써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실한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형상에는 의도실현을 위한 일정한 기교가 요구되며 그것은 작품의 구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단편소설 《말없는 바다》(김삼열 작, 《조선문학》 주제 95 년 9 호)가 시대가 비낀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명백한 해답을 줄수 있는것도 다름아닌 구성작업에 기울인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의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의 요구에 가장 알맞는 구성형식은 하나 뿐이다. 작가는 하나의 인물관계, 한로막의 일화를 설정하여도 그것이 종자의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단편소설 《말없는 바다》는 사회주의조국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자라난 과학자들의 참된 도덕의리와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의 시점에서 소개되는 두 해양학자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선군시대 과학자들이 조국앞에 지닌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의 의리를 다하자면 참된 인간의 량심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과학실천성과를 이룩해야 하며 그로써만 삶은 몇몇하다는 의의있는 사상을 밝히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이 이러한 새롭고 의의있는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것은 선군시대 과학자는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과학실천성과로써만 모교와 조국앞에 진정으로 몇몇하다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의 요구에 맞게 인물관계를 조적하고 극적으로 심화시킨 데 있다.

사람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여러가지 관계를 맺고산다.

집단과 동지, 부모와 형제 등 사회정치적관계, 도덕률리적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속에서 사람들은 사업하고 생활한다.

이러한 관계들은 독자적으로나 통일적으로 일정한 문제를 내포하고있는데 관계발전속에서 조성되는 극적인 관계는 그를 본질적으로 표면화한다.

소설에서 기본인물관계는 송승철과 김철웅의 관계이다.

송승철과 김철웅은 다 수산대학 졸업생들이며 동창생이다. 그들은 과학자들사이관계이면서 사회적으로 찬양받을 위치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긍정적인간들사이관계이다.

그런데 바로 이 긍정적인간들사이의 관계에서 극적인 관계를 찾고있는데 이 소설의 인물관계의 새로운 특징이 있다.

송승철과 김철웅이 이른 인생의 봉우리들은 어떤 곳인가.

송승철은 소문난 지휘관, 간석지건설장의 려단장이다.

그는 수년세월 자신의 모든 힘과 정열을 다 바쳐 조국의 땅을 한치한치 넓혀왔고 그 길에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김철웅은 한생을 조국의 영원한 바다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바쳐 성공한 과학자이다.

그는 겹쳐 드는 자연적난관과 시련도, 육체적장애도 강의한 의지로 이겨냈으며 오로지 모교앞에 몇몇이 살려는 마음만을 간직하고 힘겨운 연구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 송승철도 김철웅도 다 몇몇한 생을 빛내인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바쳐온 그들의 삶에는 의문의 여지란 조금도 있을상싶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과학자들이며 수산대학졸업식때 송승철의 제의로 조국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답게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과학실천성과를 안고 모교로 들어서자고 맹세한 인간들이라고 볼 때, 송승철이 대합조개의 인공증식에 대한 연구를 대학때부터 해오던 과학자였다는 점을 놓고볼 때 그들스스로가 자부하는 몇몇한 생의 진가를 기초로 한 심각한 관계를 볼수 있다.

소설은 송승철과 김철웅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간들사이관계로서만 아니라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동창들사이관계로, 조국앞에 과학실천성과파로써만 뿔뿔하려는 맹세를 안고 연구에 착수한 과학자들사이관계로, 립체적으로 맺어줌으로써 만사람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그들의 현위치는 극적으로 심화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송승철과 김철웅이 자부할만 한 위치에서 극적인 관계에 놓여지게 되는것은 그들이 지닌 인생관의 차이로부터 오는 관계, 즉 인생관적인 관계에 있기때문이다. 실지에 있어서 극적인 관계란 인생관적인 관계, 사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흔히 예상을 뒤집거나 정상흐름이 깨여지는것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또한 일정한 곡절을 가지고있으며 이는 다름아닌 인생관이 빚어낸 곡절이다.

송승철과 김철웅이 지닌 인생관은 연구사업이 난관에 부닥쳤을 때 품은 두사람의 《걱정》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남먼저 약속을 제의했고 선참으로 연구사업에 착수했던 송승철이 해일피해로 양식장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자 가지게 되는 《걱정》은 자기 삶이 아무런 자옥도 없이 돼버릴것 같은 위구심이었다.

한 대상에 대한 허무감은 곧 다른 대상에 대한 미련을 낳기마련이다. 이런 걱정은 큰만큼 곁에 전개된 간석지건설장으로 가볍게 걸음을 내짚게 하였다.

그러나 선뜻 연단에 나서기를 주저했고 대학시절 송승철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김철웅이 연구사업이 난관에 부닥쳤을 때 겪는 걱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졸업식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것만같은 걱정, 모교앞에, 조국앞에 지닌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말은 일을 놓고 하는 걱정은 책임감의 표현이다.

그는 그렇게 걱정이 큰만큼 연구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려는 열망도 컸다. 그 열망은 가장 초보적인 인간의 의리심이였고 조국앞에 지닌 선군시대 과학자의 마땅한 도리였다. 이렇게 송승철은 과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생각했고 김철웅은 인간의 의리, 과학자의 본분을 생각했다.

송승철의 뿔뿔한 생이란 결국 그자신에만 한한 것이였고 김철웅의 뿔뿔한 생은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조국에 바쳐진 자신의 모든것이였다. 한마디로 송승철과 김철웅은 인간의 의리, 과학

자의 의리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표현되는 인생관적인 대조관계에 있다.

소설은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극단에 있는 인물들의 형상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있으나 내적으로는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나란히 세워놓음으로써 보다 높은 사색의 높이에서 작품의 사상을 명백히 밝혀낼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종자의 요구였으며 그로부터 갖추어진 이 소설의 인물관계의 특징이다.

소설은 또한 의의있는 진리의 발견으로 철저히 지향되도록 이야기줄거리도 잘 조직하고있다.

소설은 이야기문학으로서 소설의 흥미는 이야기의 흥미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흥미란 단순한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품이 담고있는 진리발견에로의 지향이다. 때문에 이야기줄거리는 철저히 작품의 사상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주며 세찬 견인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송승철과 김철웅의 대조적관계를 제시하고 전개해나가는 《나》에 의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편속에서 묘사되고있지만 소설은 긴 시간을 함축하여 보여줄수 있도록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김철웅의 일기와 송승철의 편지형식으로써 과거 10년의 사연을 묘사하고있다.

마치도 그 사연은 단단히 포장한 소포와도 같다.

《나》의 송승철려단장에 대한 방문과 뜻밖의 휴가를 받고 떠난 송승철에 대한 《나》의 놀라움속에 《소포》는 《포장》이 벗겨진다.

김철웅의 일기장-대학시절, 졸업식때에 대한 회상, 수산협동에서의 무의미한 나날, 큰새우인공 증식연구를 안고 모대긴 나날, 고마운 지배인과 그의 딸이며 철웅의 안해인 선희...

이렇게 《나》의 이야기속에 송승철의 이야기가 《싸여》있고 또 그속에 김철웅의 이야기가 《싸여》있다. 《포장》은 다시 씌워졌다가는 또 송승철의 이야기, 김철웅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마감에는 제대신청서를 내고 바다가양식사업소로 《인생전환》의 걸음을 내짚어 진정으로 뿔뿔한 삶에로 향한 송승철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지지를 안고 새세대 제대군인 책임기사가 앞장서 현대화공사를 벌리는 제염소로 걸음을 돌리는 《나》의 새로운 견해와 행동으로 새롭게 《소포》는 꾸며진다.

이야기는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교체과정속에 전개되고있다. 그러나 생활적론리를 타고 흐르고 있는것으로 하여 복잡성과 난해성은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소설은 시간적순차를 바꾸어놓으면서 《나》와 독자들의 송승철에 대한 의문과 확신, 다시 의문과 충격을 통한 새로운 인식과정으로 이야기를 견인력있게 끌고나가면서도 김철웅의 10 년간의 일기를 중간부와 마감에 이야기발전단계에 맞게 적절히 소개함으로써 립체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주인공 김철웅의 형상을 송승철과의 병행적인 대조속에 뚜렷이 부각해주고있다.

특히 이야기줄거리를 전후반의 강한 대조가 조성되도록 짜고있으며 세부도 역시 그렇게 주고있다.

우에서도 말했지만 앞부분의 김철웅의 일기를 통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송승철과 소심하고 내성적인 김철웅이 대조되면서 남먼저 론문을 완성해나가는 송승철이 김철웅에 비해 긍정적인 형상으로 묘사되었다면 뒤부분에서 《마지막성적》을 받으려고 성공의 열매를 안고 모교로 가겠다는 김철웅의 형상은 자신을 총화하고 늦게나마 제대신청서를 내고 바다양식사업소의 연구지로 달려간 송승철의 형상과 대조되면서 전반과 후반의 두 인물관계는 대조적인 질적특성을 나타내면서 발전한다.

또한 작품의 첫머리에서 《나》의 회상속에 첫기사의 주인공이 될번 했던 어느 한 제염소의 책임기사의 세부적형상이 그려진다.

애로와 난관앞에 보수적인 안을 취한 책임기사

의 형상은 후반부에서 크나큰 자책과 고민속에 강기슭에 앉아 제대군인책임기사의 지휘로 진행되는 제염소현대화공사를 바라보는 은퇴한 옛 책임기사의 모습과 강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대조적세부형상은 이야기줄거리의 균형성을 보장하면서 과학자로서 응당한 과학실천성과도 없이 조국앞에 지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인간의 교훈을 강조해준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종자의 요구에 따른 인물관계와 이야기 줄거리조직으로 특징지어지는 단편소설 《말없는 바다》의 구성의 매력은 참답고 의의있는 진리의 발견으로 독자들을 이끌어간 확고한 지향성과 비상한 견인력에 있었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새롭고 의의있는 사상미학적주장이 설득력있게 독자들에게로 다가가는 방도가 구성작업에 있다는것을 알고 더우기는 종자의 탐구로부터 구성론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고 있는것이다.

구성은 그것만으로는 매력을 가지지 못한다.

작품의 종자와의 유기적통일속에 있는 구성만이 응당한 매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끌어당길것이다.

이것이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고 그 위력을 발휘하고있는 주체문예리론의 요구이다.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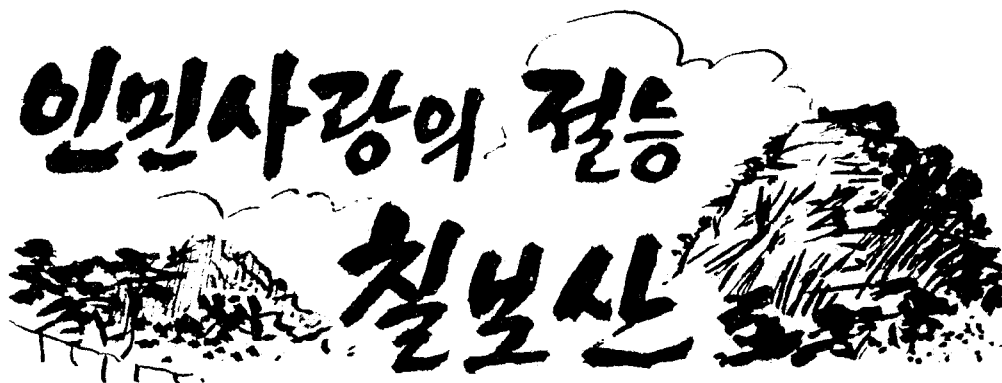
《첼까슈》

고리끼 막십이 1895년에 창작한 단편소설 《첼까슈》는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부랑인 첼까슈와 탐욕심이 많은 가브릴라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인간을 노예화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한 모습을 예리하게 폭로한 작품이다.

어느날 밤 부랑인 첼까슈는 농촌에서 갓 나온 순박해보이는 농민 가브릴라를 자기 《일》의 조수로 끌어 들여 예정했던 물건을 훔쳐내는데 성공한다.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돈의 일부를 주자 가브릴라는 돈을 몽땅 자기에게 달라고 첼까슈에게 애걸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돌로 까기까지 한다. 가브릴라의 너절한 행동에 환멸을 느낀 첼까슈는 그에게 돈을 몽땅 던져주면서 자기가 도적놈이고 집도 가족도 없는 부랑인이지만 절대로 이런 비렬한것은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는다.

이를 통하여 소설은 인간을 황금의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커다란 화물선과 대형기계들 그리고 그 기계에 의하여 혹사당하며 피로와 소란, 더위에 지쳐빠진 로동자들을 그린 대항구도시의 로동일의 정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대치시키고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적모순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소설은 나아가서 《주위의 모든것은 긴장하여 안정을 잃고 그 어떤 장엄한 전변이나 폭발을 일으킬 전야에 놓여있는듯》하다는 등 유적묘사를 통하여 근로인민대중을 무참히 짓밟고 학대하는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뒤집혀져야 하며 또 뒤집혀질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있다.

작품은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과 짜인 구성, 단편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로 하여 고리끼의 초기 프로레타리아단편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리근지

3. 해칠보

걸음걸음 붙잡고 따라서는
외칠보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묘한 절경을 남겨두고
저녁해 붙잡고
해칠보에 다달았네

연연히 밀려오는 파도
백사장을 씻으며 달려와
발목을 쓰다듬으며 감기고
끼르륵 끼르륵... 갈매기
날으며 노래 불러 반기네

땅우에 없는 절승경개로구나
꽃병풍 두른 기암절벽은
바다기슭에 뿌리내렸는데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는
천만구슬로 하늘에 나네

천층만층 석벽밑에
푸른 바다는 하도 맑아
하늘거리는 검푸른 해초속에
꼬리치는 고기떼
손을 잡으면 가락새로 넘놀듯

얕은가 하였더니
아스란 낭떠러지
천길 물속에 천야만야
첩첩 솟아 요지경이요
천하절경 펼쳤구나

백두산 화산용암이
이 바다속에 뿌려놓은 작은 바위들
넘쳐 쓰다듬는 파도에
잠겼다 등실 뗏다

수중다리 이어놓은듯

언제 왔나 남방의 저 코끼리
해칠보 일만경치에
저도 이 명승 한몫이 되었노라
긴 코를 바다에 잠그고
하늘가득 은구슬 뿜으며 웃네

저녁노을 파도속에 타들고
거품이는 물결은 푸른듯 붉은듯
고요히 기쁨에 넘쳐 설레며
그 어떤 환희의 순간을 기다려
휘황히 번쩍이네

×

순간 물결은 뒤번지며
황황히 타며 넘실거리더니
바다속에서 불쑥
불덩어리 날아오르누나
달이 달음쳐 오르누나

아, 바다가 쇠물인가
쇠물의 바다인가
강성하는 내 나라 쇠기둥 세울 쇠물
여기서 끓어번지네
끓어서 사뭇치네

이때라
청신한 고요를 흔들며
부르는듯 찾는듯
파도우에 실려오는
맑고 은은한 피리소리

그 옛날 나무군총각

하늘에 오른 월궁선녀
그리워 불고불던
풀피리소리
먼 전설을 불러오는데

×

줄줄이 드리운 달빛타고
달문우에 오른 처녀총각들
어디라없이 터치는 환희
아-오 아-오 오오-아아
산울림쳐 메아리치네

멋이로구나
사회주의 내 나라가 꽃피준
칠보산의 선남선녀되어
래일의 새 전설 엮어가고
아아, 내 나라 청춘은 아름다워

나도 명월의 밤바다에
돛배에 노저어 파도헤치니
달빛은 비발치듯 흘러내려
춤추는 물결우에 퍼져가고
배전치는 파도소리만 젖어들어라

잔잔한 바람결에도
뒤번지는 파도에
말려들지 않는 별들은
수천만으로 깨어져 뿌려진듯
반짝반짝 빛나 더 황홀하여라

바다우에 우뚝 솟은
저 기둥바위는
내려앉는 하늘을 받쳤는가
파도의 억만구슬을 박아
흰듯 푸른듯 눈부시고

달의 불덩어리를 엮은
저 초대바위는
배길을 알리노라 몇천년
등대불로 타올랐기에
초물이 녹아 흘러불은듯 기이하여라

바위와 바다속에 걸어놓은
운무에 싸인 무지개다리는
하늘에 끝을 두었으니
해칠보 달맞이 구경오느라고
선녀들이 놓았는가

앉을듯 스칠듯
저 갈매기 흰 나래는
선녀들 내리는 옷자락같아
내 마음 하늘의 너손님 맞아
훨훨 날아오르네

기묘하다
수려한 소나무 아지뿔치고
바다속에 떠있는
저 술섬은 그 어느 명화가가
찍어놓은 한폭의 명화일러라

술섬의 묘한 쌍바위잡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나오는
풍어기 날리는 고기배
에야 데-헤야 풍어의 노래
선군시대가 펼친 새 절경인데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여
우뚝 일어난 《통일정》은
장장 반세기 넘어
끊어진 혈통이 억이 막혀
이밤도 통일불러 문을 열어놓았구나

물어보자
5천년 조종의 력사여
명승지마저 통일을 안고
몸부림친적 그 언제 있었더냐
오, 말해다오

×

절통하구나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부르며
애간장 녹는 가슴 찢으며
더 기다려야 하는가

보아라
솟아오른 저 둥근달은
계명산천에 돈돌라리
이 나라 인민들이 올릴
통일의 북이 아니냐

비단필을 주름잡은듯
들쭉날쭉 기암절벽도
푸른 옥으로 다듬어세운듯
바다속의 기암기석도
산천의 기묘한 아름다움도

아 우리 장군님의 조국애 인민애
전선길도 이 절승에 이어놓으시고
인민의 휴양지로 꽃피워주시며
남녘형제들도 한품에 부르시여
여기에 《통일정》을 세워주셨거니
6. 15공동선언 기치따라
통일의 새아침은 밝아오리라

×

광광 바위를 치는 파도여
미제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을

격노한 천길 바다속에 수장하라
이밤처럼 분렬의 어둠 깨치고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절승 펼치라

가슴치누나 두드리누나
장군님사랑의 한품에 안겨
배달민족 손잡고 등산길에 올라
5천년 력사국 금수강산 자랑하며

삼천리에 울릴 통일의 메아리어

오 통일의 그날 북남형제
저 북대바위를 뽐아들고
해돋이에 이글이글 끓는 동해물을 적셔
내 나라 푸른 하늘에 새기리라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만세!

등산길 내리며

불수록 새록새록
천만조화 덧빛어놓는
칠보산의 등산길 내리니
무엇을 놓친듯 잃은듯
마음은 봉이에 바위에 바다에 있는데

아쉬운 이 마음 달래며
반겨맞는 휴양각
푸른 숲속에 달빛 드리우고
흰두루미 얹은듯 날으듯
금시 날아오르듯

이 또한
천지조화도 펼치지 못한
선군의 시대만이 세워놓은
칠보산의 새 절경 아니냐
내 나라만이 엮는 새 전설 아니냐

일터도 성격도 서로 다른
용해공도 농민도
어로공도 학자도
한식구 한형제로
휴양각 한지붕안에 불러주었으니

×

행복의 웃음 넘친 이 절경
산천의 절경에 어이 비기랴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우뚝 솟은
인민의 절승 사회주의 내 나라

아 어버이 우리 장군님
생활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명승지들이 많아야
인민들이 밝은 얼굴로 흥성이고
온 나라에 웃음이 차넘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이 행복
가꾸어주고 지켜주려고
전선길을 이어간다고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룡문대굴도

인민의 휴양지 관광지로 꾸렸다고

아, 전선길에서도 인민의 기쁨 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노래도 울려주시고
인민의 탐승길도 몸소 밟아보신
은덕으로 밝아오고 사랑으로 새날맞는
장군님의 선군천만리길이어

×

은정으로 시작된 등산길은 끝났어도
달빛넘친 선경같은 휴양각이
뜨거운 사랑 안고 나를 기다리거니
장군님사랑과 은덕은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구나

밤은 깊어 이밤은 깊어가는데
산천의 절경에
인민의 절승에
고요를 흔들며
뜨겁게 젖어드는 노래소리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그리움은 달빛을 타고
천리런가 만리런가 달려가는
잠 못 드는 밤이어

인민의 행복 넘치는
이 절경에
단풍이 타는 이 좋은 계절에
오시여 전선길 피곤 푸셨으면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들 탐승길을
장군님의 전선길에 이어놓고
붉은 단풍 곱게 피워
봉이봉이 기다리네
인민이 기다리네

끝



송출언

《아버지, 전 인민군대에 나가요. 우리 학급 동무들과 같이.》

집에 들어선 아들이 빠기며 하는 말이다.

《그래?!》

나는 대견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선군시대 청년은 우선 군대부터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언제부터 버르어온 아들이다.

드디어 그 소망이 실현된것이다.

얼굴모양이 넓고 부리부리한 두눈, 기쁨과 자신심에 넘치는 흥분된 동작...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안해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방안에 들어섰다.

《그래 군대에 나가면 구실을 할수 있냐?》

《췌, 어머니... 이제 보라요. 내 영웅이 되어 돌아오지 않나. 그다음엔 대학으로!》

《원, 저런. 그런데 영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가?》

《왜요. 불래요? 앓, 앓...》

격술동작을 한다.

그 바람에 나와 안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은 류달리 즐거웠다. 나보다 안해가 말을 많이 하였는데 주의사항 비슷한것이였다.

《아버지, 군사복무는 그저 건강해서 훈련을 잘 하면 되지요?》

《글쎄... 어쩐지 너무 단순한것 같구나.》

《예?》

아들은 무슨 소리냐는듯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걸어온 군사복무의 나날에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겪은 체험담인 동시에 참된 군사복무의 길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 해안도시에서 자랐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앞날에 대하여 생각이

많았다. 누구나 다 한창 공부할 때에는 앞으로 큰 발명가나 연구자, 작가를 꿈꾼다.

그 길은 대학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학급 동무들은 거의 모두가 군대에 나갈것을 희망하였다. 누구나 다 군대에 나가는것을 자랑으로, 영예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참으로 군대에 니갔다. 배치받은 구분대로 떠나기 전 며칠은 군인숙박소에서 지냈다.

저녁때마다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대단한 인기 《배우》들이 많았다.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가 하면 요술이나 만담을 잘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재능이 엿보이지 않는 한 동무는 남에게 뒤지는것이 싫었던지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씨름을 하자고 덤벼들었다. 군대에서는 그게 기본이라나.

나는 여기서 신병접수차로 온 한 사관을 만났다. 이름은 한승문! 꼭 눌러쓴 군모밀에 정기도는 큰 눈, 몽툭한 코에 두툽한 입술, 돌처럼 단단한 주먹...

어느날 그는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어 군대에 나오게 되였다. 남다른 각오가 있겠지?》

《예? 전 별루... 어쨌든 남자는 먼저 총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거참 대단한 인생철학인걸.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핵이 빠졌거든.》

《예?》

《걱정할게 없어. 이제 군대밥을 먹느라면 다 알게 돼.》

나는 얼떠름해 서있었다. 그게 무엇일까?

《이번에 교복을 땃겠군.》

《예.》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나?》

나는 씩 웃었다.

《뭐 나 혼자만 받는것도 아닌데.》
《동생들도 다 받았겠지?》
《예.》
《그 동생들의 행복을, 그들의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키는거야. 그러니 군사복무를 잘하라구.》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딱소리분대장》이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다.
대오앞에 설 때마다 발뒤축으로 《딱》소리를 내는데 그 절도있고 쾌기있는 동작은 우리를 매혹시켰다.
《딱소리분대장》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동작 하나에서 생겨난 말만은 아니었다.
그는 기구체조와 모든 동작에서도 본보기였다.
그가 기구체조를 할 때면 흡사 물찬 제비와 같이 민활하고 맴시있어 우리모두가 환성을 올리곤 하였다. 모든 면에서 딱소리나는 분대장이었다.
그는 나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지었다.
《시를 쓴다지?》
《?》
나는 놀라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학교때 《아동문학》 잡지에 동시를 발표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인이 될것을 꿈꾸고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것까지 다 알까?
《시란 참 좋은거야. <내 고향을 자랑할 때>라는 시를 아나?》
그리고는 몇대목을 읊는다.
《!》
그 시는 몇해전에 나온 시였다. 사실 시인이 되겠다는 나도 암송하지는 못했는데 그는 거침없이 읊고있다.
그 시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시를 너무도 많이 알고있었다. 지어 세계문호들의 시까지도...
《여 손언군이, 그 분대장한테 잘 보이라구. 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어.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라니까.》
함께 온 사관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시인인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알려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시인으로 말하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인들중의 한사람이었던것이다. 나는 부지중 그의 중대로 가고픈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속한 중대만이 아니라 그의 소대, 그의 분대로 가고싶었다.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딱소리분대장》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수 있고 시공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것만 같았다.
그렇다, 그의 분대로 가자.
구분대로 출발하는 날 나는 나의 속마음을 한승문분대장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분대에 가겠단 말이지.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 중대는 부대적으로 제일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있어.》
《일없습니다. 그저 승문동지와 함께 있게 해주

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상급에 제기해보지.》
그리하여 나는 그후 한승문이 있는 분대에까지 배치받게 되었다.
중대에 도착하였을 때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눈빛이 류달리 빛나는 군관이 물었다.
《손언군동무가 누구요?》
《옛, 접니다.》
《음, 키가 크구만. 시를 쓴다지?》
어떻게 벌써 알고있었을까? 혹시 한승문분대장이 대주었는지도 모른다. 싫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 앞으로 시를 많이 쓰요.》
《알았습니다.》
나는 사기가 나서 힘차게 대답하였다.
알아보니 우리 중대정치지도원이었다.
그때 나는 이곳 중대에 온것을 기쁘게 생각하였고 한승문의 분대원이 된것을 좋게 생각하였다.
나의 첫 직속상관이였다.
앞으로 그는 나를 무척 사랑해줄것이다. 그러나...
나의 기대는 줄지에 허물어지고말았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관이 아니었다.
언제 나를 알았던가 할 정도로 엄했다.
《동문 너무 어질고 순박한게 탈이야. 토끼도 못 잡겠어. 그래가지고 미제놈과 싸울수 있어? 병사구실을 하자면 품개나 들겠는걸.》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절로 기대하였던 마음이 허물어져내렸다. 선망의 눈길로 대하며 그의 방조속에서 《덕》을 보자던 나의 꿈은 줄지에 거품이 되고마는것이 아닌가.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보다 어질었다.
동네아이들이 놀다가 주먹을 쥐고 흔들면 나는 쫓기우면서 엄마부터 찾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너는 주먹이 없는가고 하면서 엉덩짝을 때리곤 하였다.
한승문분대장은 나와 함께 입대한 조동산이란 대원은 왜서인지 각별히 사랑하였다.
키가 좀 작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얼굴도 동글납작한것이 꼭 처녀애들처럼 곱게 생겼다.
노래를 기막히게 잘 불렀다. 거기에 손풍금까지 타는데 그가 손풍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를 때면 중대군인들모두가 어깨성을 쌓고 구경하곤 하였다. 학교때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도 몇번씩이나 참가하였다고 한다.
《우리 중대에 보배덩이가 굴러들었어, 보배덩이.》
분대장은 늘 그를 칭찬하였다.
사실 동산이는 나보다 역바르고 눈치가 빨랐다.
한번은 분대가 산에 비자루감을 하러 갔었는데 그는 나보다 훨씬 많이 해왔다.
어디에 그렇게 많은 싸리가 있더냐고 물어보았더니 벌써 어느 산, 어느 개울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두었다는것이다.

같이 입대했어도 그는 확실히 나를 앞서나가는 병사였다.

분대장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에게서는 오직 높은 요구성만을 제기하는듯 하였다.

지금도 그 《발흠》 사건을 잊을수 없다.

어느날 분대는 전술훈련을 나갔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나는 전호를 파느라고 어지간히 힘을 뿜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떨어졌고 잔등과 팔소매에는 땀이 배어나와 몸을 조이였다. 기본적으로 전호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될 때 나는 보병삽을 기대여놓고 전호가에 주저앉았다. 단추도 몇개 헤쳐놓고 발이 헛헛 달아올라 신끈도 해쳐놓았다.

나는 맥없이 전호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아득한 허공에서 수리개 한마리가 빙빙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날고있다.

(야, 높이도 땀구나. 나도 너와 같은 날개를 가졌으면 저 앞산도 단숨에 넘겠는데.)

나는 이제 공격하면서 넘어야 할 높은 산을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이때 분대장이 다가왔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아직 휴식구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있는거요. 복장정돈을 하오.》

나는 급히 단추도 채우고 신발끈도 묶었다.

분대장은 내가 판 전호를 훑어보더니 발흠에 가서 눈길을 멈추었다.

《발흠을 왜 그렇게 봤소?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다져야지.》

발흠이란 병사가 돌격해나갈 때 전호에서 한발 딛고올라서는 턱이다. 그러니 전호벽에서 기껏해서 흠 한삽을 떠내면 되는것이다.

《알았습니다. 그까짓거야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까짓거?... 전사 손언근, 돌격준비!》

분대장은 금시 낫색을 달리하더니 돌연 이런 구령을 내리었다.

나는 얼른 자동보총을 쥐고 한발을 발흠에 올려놓고 돌격자세를 취하였다.

《돌격 앞으로!》

분대장의 구령에 나는 발흠에 올려놓은 발끝에 힘을 주며 몸을 우로 솟구쳤다.

다음순간 내 몸은 전호밖으로 나가는데가 아니라 전호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쳐지지 않은 전호벽이 허물어졌던것이다.

《그래도 그까짓거요? 동문 아직 군인이 되자면 멀었소. 우리가 공장에서 쇠물을 뽑는가, 아니면 벌에서 농사를 짓는가. 우리의 임무는 훈련을 잘해서 그 어떤 적도 단만에 쳐부실수 있게 준비하는거란 말이요. 전사의 자세가 옳바로 서있지 않아. 돌격선에 나선 병사가 발흠 하나를 잘못 파서 남보다 한걸음이라도 떨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소.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릴 각

오가 되어있는 병사는 그렇지 않소.》

나는 머리를 푹 숙였다.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서도 너무도 어마어마하게 말하여 억이 막혔다. 그쯤한것은 리해해줄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는 조국을 지키는 문제와 련결시키고 있다. 그것은 지나친 평이 아닌가.

분대장은 그후부터 나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었다.

《왜 동작이 그렇게 굼떠 빨리!》

《총창끝에 힘이 가게 찢렸! 다시! 다시!》

그때마다 나는 온 육체의 힘이 깡그리 뿜혀나가는것 같았다. 하루훈련을 끝내고나면 온몸이 땅에 잣아드는것 같아 저도 모르게 휘청거리곤 하였다.

(나는 분대장을 잘못 만났어.)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늘 각성있게 생활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시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않았다.

낮에는 훈련을 하고 밤에는 남몰래 일어나 교양실에서 시를 쓰곤 하였다.

그러니 항상 잠이 모자랐다. 새벽에 쪽잠을 자고 기상구령에 일어날 때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번 실컷 자보았으면 하는것이 소망처럼 되었다.

어느 겨울날 중대는 며칠동안 야외훈련을 나갔다. 강행군은 밤에 이어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다. 무거운 장구류들이 내 어깨며 온몸을 지지눌러 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 터진듯 아려나서 참기가 어려웠다.

거기에 추위는 또 얼마나 혹독했던가.

맴뺌 눈보라가 구름처럼 일어나며 우리에게 들썩워놓았다.

모자에는 허연 성애가 잔뜩 불리었다.

교구명에서 무엇인가 자꾸 따끔거리 애기손가락으로 우비니 얼음버께가 나왔다. 입으로 숨을 들이키면 찬기운이 폐부를 찢어 금시 킁 막히는것만 같았다.

중대는 한낮이 거의 될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전투사격장이었다.

오후에는 전호에서 조준련습을 하고 저녁무렵에야 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수많은 목표가 세워져있는 《적》의 참호를 점령하며 총탄을 날리었다.

중대는 《우》의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날 전투사격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사들과 사관들에게 영예사진을 찍어주게 되었다. 이름을 부르자 중대, 소대들에서 저마끔 이름이 불리워진 병사들을 목말에 태우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어떤 중대에서는 한수 더 떠서 기마를 만들어 태우고 꽃묶음까지 안겨주며 기세를 올리였다.

대오앞에 나선 군인들은 총을 메고 툼툼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나는 부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영예사진은 군인속보판에 붙여질것이고

그리운 고향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전해질것이다.
 나에겐 언제면 저런 영광이 차례질수 있을까.
 그날 밤은 이곳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잠자리는 어디에 정하는것일까?
 아무리 둘러봐야 눈덮인 허연 들판이고 아우성
 치는 눈보라만이 대지를 휩쓸며 지나갈뿐이다.
 어디 따끈한 온돌방에서 몸을 녹이며 폭 자고
 싶었다. 무심중 사방을 휘둘러보니 저 멀리 산기
 솟에 두개의 불빛이 깜박거린다.
 저기에 가서 숙영했으면...
 중대는 숙영지를 향해 떠났다.
 어느 산기솟을 에돌아가고있었다.
 온통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뿐이다.
 《중대-셋! 여기서 각 소대, 분대단위로 잠자리
 를 정하십시오.》
 중대장의 지시였다. 역시 눈판이다. 이런것도
 훈련이라는것이다.
 그러니 이 산기솟 눈우에서 자기로 한것이다.
 나는 아직 이런 곳에서 자본 일도 없고 또 잘
 수 있다고 생각해본적도 없었다.
 이런 눈우에서 어떻게 자는가?
 하는수없이 눈을 쳐내고 개인천막으로 둘레를
 친다음 가운데 모닥불을 피우고 자기로 하였다.
 날씨가 어찌도 맵짠지 불앞에 닿는 부분은 뜨
 뜻한데 잔등은 시렸다. 돌아서서 잔등을 찌우면
 앞가슴이 시려났다.
 《여 언군이, 신발이 탄다.》
 무엇이 타는 역한 냄새에 누구인가 소리쳤다.
 급히 신발을 보니 숨에서 연기가 났다.
 《앗 따라워.》
 나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다. 안에 숨까지 탈
 정도인데도 뜨거운것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불무지가 사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나무는 많지
 않았다. 이제 초저녁인데 나무를 해오며 긴긴 밤
 을 새야 하였다.
 나는 언 땅에 가랑이를 깔고 그우에 모포를 편
 다음 몸을 감고 누웠다. 피곤이 몰린데다가 발치
 의 우등불열이 몸에 미쳐와 그런대로 잠들수 있
 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잔등이 얼어드는 감각에 나는 눈을 떴다.
 사위가 캄캄했다. 모닥불은 이미 싸늘하게 식
 어 재티만 날리고있었다.
 분대장이 누웠던 곳을 보니 자리가 비어있었다.
 어데 갔을까?
 상반신을 들어 주위를 살피니 저앞에서 우등불
 이 타오르고있었다.
 나는 부지중 몸을 녹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무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다음순간 눈판에 광하고 넘어졌다. 다리가 얼
 어서 제대로 걸음이 옮겨지지 않은것이다.
 (불무지까지 가야 해. 그렇지 않다간...)
 나는 눈을 뒤집어쓰며 불무지를 향해 기기 시
 작하였다.

《이크, 이게 무슨 도깨비야?》
 불무지곁에 둘러앉아있던 다른 분대원들이 기
 겁하여 소리쳤다.
 큰 눈덩이가 움직이며 오고있었던것이다.
 《어허, 추워.》
 나는 몸을 와들와들 떨며 일어섰다.
 갑자기 폭소가 터졌다.
 《역시 신병이야. 여, 빨리 여기 불앞에 앉으라.
 동장군이 동무 코밑에 고드름을 달아놓겠어.》
 《아직 눈속에서 자는 법을 터득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저길 보라. 저 개인천막속에선 구대원들
 이 코를 골며 한증하고있어.》
 그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한명이 누울만큼 땅
 을 파고 그우에 활창대같은 나무를 구부려대고
 천막을 덮었는데 보기만 해도 고향집의 따뜻한
 아래목처럼 생각되었다. 땅을 판 구덩이에 마른 나
 무로 불을 지피고 땅을 덥힌다고 한다. 그우에 생솔
 잎이나 가랑이를 펴고 모포를 덮고 잔다고 하였다.
 구대원들의 자는 법을 눈치있게 배우던가 아니
 면 물어보길라도 했어야 했다.
 나는 어쭈게 웃으며 뒤머리를 긁었다.
 이때 분대장이 마른나무를 한짐 지고 나타났다.
 대원들이 추위에 떨가봐 혼자서 나무하러 갔던
 것이다. 밤새 기승을 부리던 맵짠 날씨는 아침이
 되면서부터 눈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날도 중대는 하루종일 행군을 하였다. 저녁
 무렵에 어느 골짜기에 들어섰다.
 여기서 저녁밥을 해먹고 다시 행군을 하여야
 한다.
 나는 장구류들을 벗어놓고 밥통을 들고 물을
 찾아 떠났다. 이름모를 개울가에는 잎이 떨어진
 버들아지들과 새초가 마구 뒤엉켜있었다.
 나는 얼음을 까고 밥통에 물을 담았다.
 온몸이 쭈서나고 맥이 진한 다리가 휘청거렸다.
 잠간 쉬고픈 생각이 나서 눈우에 그대로 드러
 누웠다. 하늘에서는 애기주먹만 한 눈이 소리없
 이 내리고있었다.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천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가 흔들어대는 느낌에 눈을 뜨니 분대장이
 험한 얼굴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이건 뭐요? 얼어죽자구 그래?》
 깜짝 놀라 후닥닥 몸을 일으키니 온몸에 눈을
 뒤집어썼다. 눈이 없는 부위는 얼굴뿐이었다. 여
 기저기서 불몽치를 든 분대원들이 나를 부르고있
 었다. 모두 나를 찾아 헤매었던것이다.
 그통에 우리 분대의 식사는 늦어지였다.
 급히 식사를 마치고 분대는 중대를 따라서기
 위해 구보로 달렸다.
 지정된 시간을 늦출수 없어 우리 분대만 남겨
 서 찾게 하고 기본대렬은 이미 떠났던것이다.
 내쳐 달리다나니 목에서 겨불내가 나고 이마에
 서는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기가 죽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나때문에 분대원들이 고생하는것이다,
문득 우리앞에 큰 강이 나타났다.
《분대장동지, 강을 건너 질러가지 않겠습니까?》
누구인가 말했다. 분대장이 대오를 멈춰세웠다.
현재 중대는 도로를 따라 다리가 있는 곳으로
에돌고있었다. 이 강을 건너면 인차 중대를 따라
잡을수 있었다.

분대장은 한순간 말이 없었다. 혹시 얼음이 꺼
질수 있지 않을까? 분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졌기
때문에 모험할 권리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결심을 내렸다.
《좋소, 도하준비!》
나는 배낭에서 시를 쓴 책을 꺼내어 비닐로 껍
쥔다. 만약의 경우 젖을수 있기때문이다.

《무얼 하오?》

분대장이 등뒤에서 내려다보며 물었다.
나는 흠칫 놀라 열린 책을 감추었다.

《무기, 장구류들을 검사해야지.》

나는 그제야 덤벼치며 장구류들을 만져보았다.

분대는 병사간 거리를 열댓걸음정도 유지하
면서 중대로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강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내 총에서 탁! 소리가 나더니 탄창용수
가 좌르르 소리를 내며 얼음판에 떨어졌다.

뛰어오르라고 옷과 장구류들에 부딪친 용수받
치개가 자물쇠홈에서 벗어나 떨어진것이다.

탄창용수는 인차 찾았지만 알박한 탄창받치개
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수 없었다.

《뭐요?》

분대장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대원들에게 무기부속을 찾으라고 소리쳤다.

나와 함께 분대원들모두가 여기저기를 손더듬
하며 탄창받치개를 찾았다.

밤인데다 탄창받치개가 납작한것이어서 쉬이
찾을수가 없었다.

분대장은 속상한 나머지 신음소리까지 냈다.

한참만에야 부속을 찾아냈다.

부대로 돌아온 날 분대장은 나에게 시집을 달
라고 했다. 그는 시집을 후루루 펼쳐보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학창시절 동무들 강기슭을 거닐 때
병사! 나는 힘준한 산발을 넘는다
그대들 웃음소리 창가에 넘칠 때
병사! 나는 땀으로 온몸을 적신다

분대장은 나를 의아스러운 눈길로 한동안 바라
보았다.

《동무 혹시 군대에 나온것을 후회하는게 아니
요?》

《예?!》

나는 그의 말뜻을 알수 없어 얼떨떨해서 서있
었다.

《군인이 조국을 지켜 산발을 넘고 땀을 흘리는
거야 웅당한것이지. 그것이 무슨 큰 채세거리라
고 강기슭이요 웃음이요 하며 대비하는거요, 그
래 동무는 그만한 대가가 그리도 장하고 값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오? 너무도 천박해. 진짜시인이
되자면 진짜병사가 되어야 해. 그런데 동무는 무
기장구류보다 시를 더 귀중히 여겼거든. 이젠 회
수요.》

나는 굳어진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아! 나의 온넋이 갇들어있는 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쓰고 또 쓴 시!

그 소중한것을 분대장은 회수하였다.

다시는 시를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다음날부터 나는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분대
장은 그런 감정은 알바가 아니라는듯 나에게 더
엄격한 요구성만을 제기하였다.

구대원들을 시켜 짬만 있으면 기구체조를 시켰다.
팔이 떨어져나가는것 같고 배가죽이 아파 기침도
변변히 할수가 없었다.

매일 규정 학습과제를 주고 저녁마다 꼭꼭 받아
내곤 하였다.

그의 요구가 옳다고 생각되면서도 너무도 몰인
정한 행동에 그것이 진짜일가 하고 의문되기도
하였다.

다음해 여름 어느날 분대는 훈련을 마치고 부
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때 내가 복무하던 지방에서 제일 높고 가파
로운 산고지가 있었는데 그 고개가 어찌도 급경
사인지 《할딱고개》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

제일 더운 중복머리인데다가 정오때여서 온몸
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오전내껏 훈련장을 뛰어다니다니니 목이 말랐다.

조동산이가 훈련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 어느
논판물을 먹으려다가 분대장에게서 되게 욕을 먹
었다. 나도 엎드렸다가 기겁하여 일어섰다.

목천정과 허바닥사이에 갇진갇진한 풀을 바른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물... 물... 머리에서는 그 생각만 떠오르고 눈
길은 어디에 물이 있을가 하여 허둥거리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한치한치 톱아올라가는 《할딱
고개》 중간쯤에서 샘물이 나타났다.

나는 덮어놓고 샘물에 엎디었다.

《일어섯! 누가 물을 마시라고 했어.》

분대장이 몰인정하게 소리쳤다.

나는 엉거주춤 몸을 웅크리고 분대장을 바라보
았다.

《분대장동지, 한모모금만 마십시오. 더는 못 참
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이런 말이 나왔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일어섯!... 돌아섯!... 계속 앞으로!》

금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았다.

아, 무정한 사람, 손톱눈만 한 인정도 없는 사

람! 세상에 혼한 물도 못 먹게 하다니.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한걸음, 두걸음... 급한 경사길을 한치한치 툭아올라가는 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누구나 다 땀을 흘려 얼굴이 얼룩이 젖고 눈이 메꾸해졌다. 드디어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부분대장이 분대장이 올라올 때까지 휴식을 선포하였다. 나는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배낭도 벗지 않은채 머리를 뒤로 짚고 눈을 감았다.

온몸이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것 같기도 하고 또 하늘공중으로 떠오르는것 같기도 하였다.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기 싫었다.

한참후에야 분대장이 도착하였다.

《자, 일어나라구. 물을 마시자구》

물?... 물이라니... 물을 먹지 못하게 하던 그가 아닌가...

《모두 나를 많이 욕했을테지. 그렇게 고개를 오르는 도중에 물을 먹으면 쏘크를 당할수 있어. 소금기가 뿔아져 허탈이 왔는데 물까지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든.》

나는 분대장의 말에 다소 놀랐지만 하도 물을 먹고랐던지라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분대장은 대원들에게 소금을 몇알씩 나누어주었다. 나도 손바닥을 내미느라고 하였으나 처음 힘마져 없었다.

《염기를 보충하면 좀 기운이 날거야. 그렇지만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안돼. 모두 한모금씩이야. 아직 갈길이 멀거던.》

나는 분대장이 준 소금을 입에 조금씩 갖다대었다. 짠 소금이 이때는 막 달았다.

거기에 물 한모금을 먹으니 금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분대장은 자기의 배낭에서 건빵을 꺼내더니 밥통에다 넣고 다른 물병의 물을 쏟아부었다. 물통들에 물을 담아가지고 온걸 보니 구대원들의 물통을 건어 물을 떠오느라고 조금 지체된 모양이었다.

물이 뻥 건빵은 미움처럼 되었다.

분대장은 그것을 모든 대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었다. 마치 어머니가 젓먹이 제 자식들을 보살피는 모습과 같이 생각되었다.

파연 분대장에게 저런 인정도 있었던가. 혹시 내가 분대장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는것이 아닐까. 다음 순간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자. 이제 좀 요기를 했으니 기운을 돋구어가지. 동산이, 노래 한곡 부르라.》

분대장이 하는 말이다.

《기운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동산이는 배낭에 기대여 누운채 움직일념을 못한다.

《그러기때문에 부르라는거야. 맥을 놓으면 쓰러지고말야. 자, 어서.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라구. 난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동산이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품금소리 울려라

역시 동산이는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있었다. 맑고 쟁쟁한 노래소리가 은은한 감정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였다.

《자, 듣기만 하였어. 우리 다같이 부르지요.》

분대장은 먼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대원들이 목소리를 합치었다.

멀리서 듣던 다른 소대 동무들도 모여왔다.

한참후에는 중대모두의 합창으로 변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중대는 다시 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노래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어느 힘한 산밭을 오를 때에는 혁명가요를 부르며 울랐다. 서로 부축하고 이끌어주며...

노래가 이렇게 힘이 되는줄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문득 영화와 그림을 통해서 본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등불앞에서 고향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그들의 모습... 싸움을 하면서도 노래로 적을 전를케 한 투사들!

노래가 그렇게 위력한 무기인가!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개척한 우리 혁명이라는 말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순간 나는 동산이가 별스레 돋보였다. 그의 노래는 얼마나 많은 대원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분대장이 왜 그를 그렇게도 고와하였는지 이제야 이해되었다.

동산이의 그 천성적재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빛을 보았다.

언제인가 군단선전대가 부대에 공연을 왔었는데 그때 한승문분대장이 선전대대장을 찾아가 그의 재능을 이야기해주었었다.

그래서 선전대대장이 우정 찾아왔었는데 후에 선전대로 소환되게 된것이다.

하지만 동산이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병사의 구실을 온전히 할 때까지는 갈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것을 분대장이 설복하였다.

《그런 천성적재능은 아무나 가지는것이 아닌데 썩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동무는 한개 분대나 중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것이 아니라련대, 사단, 군단의 모든 군인들을 위해 부르는것이 더 의의있고 큰일을 하는것으로 돼. 그러니 더 버틸 생각말고 떠나라구. 나는 앞으로 동산이가 훌륭한 군인가수가 되기를 바래.》

떠나는 날 동산이는 분대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동산이는 이제 자기의 희망을 향하여 줄달음칠 것이다. 나도 분발하자. 그러면 어느때인가는 분대장도 인정할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째만 있으면 훈련하였다. 미숙한 대렬동작, 전투조법, 규정학습, 기구체조...

그때마다 분대장은 멀리에서 보든가 아니면 틀린 동작들을 바로잡아주곤 하였다.

때로는 《괜찮아!》하며 등을 두드려주기까지 하였다.

날과 달이 흘러감에 따라 나의 성장은 눈에 띄우게 나타났다.

그만하면 분대장도 괜찮게 평가할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을 안고 어느날 나는 분대장에게 시집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분대장은 한참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안돼.》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분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러니 나는 아직 병사의 구실을 똑바로 못한다는것이 아닌가? 왜?...

분대장은 너무해. 내가 왜 병사의 구실을 못한단 말인가? 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날이었다.

분대는 공병작업장으로 가다가 어느 산골짜기 땀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산골물이 불어나 강변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이 뚝뚝 떠서 흘러가기 시작했던것이다.

분대장은 급히 대원들에게 통나무를 구출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받은 명령이 아닌데 지체하다가는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 못할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받은 명령이 아니라니. 군대가 조국을 지킨다는것은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킨다는것인데 인민의 재산이 없어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치다니. 이런것은 군인이 항상 수행하여야 할 임무란 말이요. 자, 시간이 없소.》

그리고는 제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다.

나에게는 점심밥을 지으라고 소리쳤다.

나는 한순간 아연해졌다. 점심식사는 공병작업장에 전개된 식당에서 짓기로 했으므로 화식기재도 밥통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강물에 뛰어들어 분대장에게 해결해줄것을 바랄수도 없었다. 거기에서 며칠째 쏟아지는 비로 하여 나무가 흠뻑 젖어 있는 형편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수없이 어디 가까운 곳에 있는 땀목공들의 합숙이나 마을을 찾아가 화식도구를 도움받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가까이에는 없었다.

나는 그만 속이 빠질빠질 타들어갔다.

식사시간은 한초한초 다가오는데 나는 임무를

수행 못하고있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있을수는 더욱 없었다. 추궁은 받더라도 분대장에게 알려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어떻게 됐어?》

내가 강변에 나타나자 분대장이 물속에서 나오며 물었다.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그래서?》

《남비나 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명령받은 병사가 제힘으로 할 공리를 해야지 남의 도움을 받을 생각부터 하다니. 언제면 구실을 하겠는지.》

나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머리를 숙이었다.

《뿔해, 빨리 광술을 따와야지.》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바빠 움직이었다. 그사이 분대장은 넉적한 돌들을 주어다가 돌가마를 만들었다. 그다음엔 자루에 있는 쌀을 그대로 물에 잠그더니 돌가마에 넣고 그우에 불을 지켰다. 비맞아 젖은 나무도 밑에 광술을 놓고 그우에 우물모양으로 쌓아 불을 지피니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한참후에 돌을 헤치고 자루를 꺼냈다.

자루속에서 하얀 밥이 제법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어때?》

나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문제는 제힘으로 하겠다는 각오가 든든하면 방도는 꼭 나오는 법이야. 말하자면 강이 막아서면 매생이가 나타나고 벼랑이 나타나면 바줄이 생기거든. 무슨 소린지 알만 해?》

《알았습니다.》

《알긴 뭐가 알만 해. 그걸 리해하자면 아직 된장 몇독은 더 먹어야 해.》

그러니 세월이 더 흘러서 실지 체험으로 성장해야 체득한다는 소리다.

나는 이 일로 하여 분대장한테서 또 한번 점수를 잃은셈이었다.

어느날 나는 중대부열을 지나다가 문득 정치지도원과 한승문분대장이 하는 소리를 귀동냥하게 되었다.

《승문동무, 동무네 분대에 있는 손언근이 말이요. 사단군중문화지도원이 사단직속구분대로 소환하자는 의견을 제기해왔소. 시기별로 제기되는 선전대공연대본을 쓰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를 가까운데 두고 재간을 써먹자는것이요.》

《정치지도원동지, 저는 반대입니다. 체험이 없이 좋은 글을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온전한 병사구실을 못하고있습니다. 전번날에도 분대의 밥을 지으라고 하니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가슴을 쳤다. 아, 무정한 분대장, 확실히 나를 잘못 보고있어. 그는 언제 가도 나를 좋게 보지 않을것이다. 예익, 그럴바엔 차라리

가자, 다른 소대나 분대로,

그의 밑에서 언제이고 락후한 병사로 남아있을 수 없다.

다음날 나는 정치지도원을 찾아갔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분대장의 말이 옳아. 병사는 시를 쓰러 군대에 나온것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러 나왔지. 나도 분대장동무의 의견을 적극 지지해. 훌륭한 병사에게서만이 훌륭한 시가 나오는 법이야.》

그것이 그후에 더 큰 우환거리가 될줄이야.

분대장이 어느새 내 눈치를 알고 그루를 박듯 말했다.

《동문 병사의 구실을 하기 전엔 그 어디에도 못 가. 병사가 초소를 가리고 지휘관을 타발하면 군사복무를 똑똑히 할수가 없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군사복무를 하는지 아나? 그걸 말해보오.》

《…》

《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그건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야. 우선 그걸 똑똑히 알아야겠어.》

나는 억이 막혀 멍하니 서있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직감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나는 느꼈다. 성실한 군사복무를 통하여 뼈와 살속에 체현한 그런 인생관적인 대답을 그가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그후 분대장은 제대를 앞두고 대학에 추천받았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가는 문제를 당분간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했다는것이다.

리유인즉 아직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나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나는 죄스러웠다. 나때문에 대학을 미루다니. 그것이 진심일가?

한편 내가 어째서? 하는 반발감도 들었다.

나는 분대장을 따로 만났다.

《분대장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내 꼭 훌륭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한승문은 빙그레 웃었다.

《언군이, 고마와. 나는 그 말을 꼭 믿어.》

그는 내 말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분대장이 떠나기 며칠 앞둔 어느날 밤 중대는 야간행군을 하게 되였다.

한승문분대장은 행군에 참가하겠다고 무기, 장구류를 메고 나섰다.

분대원들모두가 그만두라고 권고했다.

《내 마지막으로 동무들과 견고싶어그래.》

그 소리에 분대원들모두가 눈시울을 적시였다.

분대원들과 얼마나 정이 들고 떨어지고싶지 않았으면 저렇가.

그날 밤 행군거리는 100여리!

중대장이 직접 맨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었다.

어느 한 구간에서는 10리나마 구보행군을 시켰다. 행군로정에 비추어보면 길지 않은 구간일지라도 구보로 달리면 밤새 걷는 힘보다 더 힘이 빠진다.

그럴 때면 누구나 다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한다.

군인이 대오에서 한걸음이라도 떨어진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새벽녘이 다가오면서 모든 대원들이 지칠대로 지쳤다.

이제 20리쯤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중대장은 시계를 보더니 또다시 《구보로!》 구령을 내렸다. 이 순간 소대마다 저절로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자를 맞추어야 호흡조절이 되고 발걸음을 맞추어야 떨어지는 대원이 없게 되는것이다.

이런 때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 하는것은 의지의 발현, 육체적준비의 검증과정이었다.

한참 달리는데 신대원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구대원들이 그들을 부축하느라고 애를 썼다. 우리 소대에서도 몇명이 떨어졌다.

나도 더는 지탱할것 같지 못하였다.

아니, 떨어져선 안돼, 안돼, 안돼,...

나는 한걸음, 한걸음을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마와 목, 잔등에서 흐르는 땀이 솜옷까지 폭적서놓았다. 숨이 꺽꺽 막히고 가슴 어디엔가 찢는듯 아팠다.

드디어 휴식나팔소리가 울렸다.

신대원들의 무기며 장구류들까지 메고온 분대장이 나를 보더니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용케 견디어낸 공지로 하여 가슴은 마냥 흐뭇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른 기쁨이었다.

다시 출발구령이 내려 몇걸음 옮길 때였다.

갑자기 배속에서 횡경막이 울리미는것 같은감이 나더니 목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눈이 저절로 감겨지면서 진땀이 팔팔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다리는 허공에 들리는것처럼 뜨기만 하는 감각뿐이고 땅이 일어서는것 같아 발이 제대로 닿지 않는다. 금시 넘어질듯 몸이 뒤로 젖혀진다.

《언군이, 왜 그래? 눈을 똑바로 프라. 눈을…》

옆에서 구대원이 나에게 소리쳤다.

이때 나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

아, 이러다 목적지에게까지 가내지 못하고 쓰러지면 어쩌나....

나는 또 한번 휘청거렸다.

《안되겠어. 총을 이리 달라. 내가 메다줄게.》

옆에서 걸던 구대원이 내 어깨에서 무기를 벗긴다.

다음순간 《가만!》 하는 소리!

분대장의 목소리다.

《그냥 놔두오. 전쟁때도 남의 도움을 받으며 싸울수야 없는거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실전이라고 간주하자, 내 힘으로 극복

해야 한다. 그래, 내 기어이 이겨낼테다, 이겨낼테다.

나는 흐려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가다듬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발, 두발 내짚었다.

그것은 의지의 힘이였다.

나는 용케 견디어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그날 나는 데오앞에서 분대장의 감사를 받았다.

이것이 내가 군사복무기간 처음으로 받은 분대장의 감사였다.

감사를 줄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제일 낮은 직급인 분대장의 감사이지만 항상 함께 생활하는 대원으로서 제일 받기 힘든것이 또한 분대장의 감사였다.

그날 나는 생각이 많았다. 어떻게 되어 내가 견딜수 있었는가? 나의 육체가 다른 신대원들보다 더 강하였는가? 아니면 분대장의 그 모진 《채찍》의 추동에서였는가?

그렇다. 그의 요구, 그것은 사랑이였고 힘의 보람이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강행군이였다.

나는 가슴뿌듯이 오르는 궁지속에 훈련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얼마나 먼 산과 들에 우리의 발자욱이 찍혔는가. 그 발자욱마다에 떨어져 배인 나의 땀방울!

원췌들과의 판가리결전의 그날에는 그 발자욱, 그 땀방울이 용맹과 위훈의 밑거름이 될것이다.

아, 성스런 복무의 소중한 자욱!

문득 뒤리를 스치는 시상이 있었다.

나는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

병사가 걸어간 발자욱이 어느것인지

뿌러진 땀방울이 그 얼마인지

찾지를 말아 묻지를 말아

찬비에 씻겨지고 땅에 스며였어도

싸움의 그날엔 보게 되리

위훈으로 빛나는 병사의 모습을

...

문득 뒤에서 인적이 느껴져 고개를 드니 분대장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서둘러 일어서려 하였다. 분대장은 나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쓰라구. 이런 때 쓰는게 시야.》

그는 다정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

다음날 중대속보판에는 나의 시가 나붙었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것도 아닌데 중대군인들이 나를 축하해주며 기뻐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곱이 달아올랐다.

비록 속보에 나붙은 시이긴 해도 그것은 나의 의지, 나의 땀, 나의 숨결이 낳은 군사복무중의 첫 발표작이였다. 병사가 체험한 진실한 감정이 담겨있어 동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습작시첩을 회수했던 분대장이 나의 시를 속보에 내준것이 놀랍게 생각되였다.

《자, 동무들! 언근동무의 시가 어때?》

《좋습니다.》

분대장의 물음에 대원들이 하나같이 대답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했던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분대원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하늘공중으로 추어올렸다.

《영차, 영차-》

공중으로 뜰 때마다 나의 팔다리는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머칠후 분대장은 군관학교로 떠나게 되였다.

중대군인들모두가 놀랐다. 대학을 간다던 그가 어떻게 되어 군관학교로 가게 되였는가?

떠나기에 앞서 그는 나에게 책 한권을 내밀었다.

《자, 받으라구.》

순간 나는 저우기 놀랐다.

언제인가 회수하였던 나의 습작집이 아닌가.

천으로 뚜껑까지 헤쳐왔다.

항상 무거운 장구류를 메고 움직여야 하는 군인의 특성을 고려했는지 천도 두꺼운것을 씌웠다.

《!》

《그새 나를 많이 욱했지? 앞으로 좋은 시를 많이 쓰라구. 그렇지만 군사복무를 잘하는 조건에서 말아야.》

나는 뜨거움을 삼키며 분대장의 모습을 새롭게 보았다.

아, 고마운 나의 분대장동지!

그 순간에 느낀 분대장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은 시작에 불과한것이였다.

머칠이 지난 후에 중대에서는 군사복무에서 모범을 보인 병사들에게 군사칭호수여가 있었다.

누구나 호기심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영예스럽고 자랑높은 병사들속에 나의 이름도 함께 불러줄줄이야.

나는 총알같이 여무지게 대답하고 어깨를 살구며 정보로 걸어나갔다. 그때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내가 이런 영예를 지닐수 있는가.

그날 정치지도원은 나를 중대부에 불렀다.

그는 나의 군복에 평장을 달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 군복을 받아쥐며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축하해!》

그런 다음 이런 말을 덧붙였다.

《한승문분대장을 잊지 말라구. 그는 자기의 대원이 남보다 훌륭한 병사로 자라길 바라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한거야. 그랬기때문에 언근동무에게 오늘과 같은 날이 있는거지. 그는 언근이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단련되고 많이 체험하여야 훌륭한 시인이 된다고 하였어. 그것은 이름난 시인인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라나. 그리고 뛰렸는

지 알아? 앞으로 연근동무를 소망대로 시를 쓸수 있는 전문대학에 꼭 보내달라고 했어.》

《!》

나는 눈곱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후터워났다.

그런 웅심깊은 분대장을 오해하다니.

그가 옆에 있으면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빌고 싶었다. 이제 다시 그를 만나볼수 있을까?

나는 그가 군관학교로 떠나간 오솔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분대장동지! 제 꼭 훌륭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나는 부대로 다시 돌아온 한승문 옛 상관을 중대에서 다시 만났다. 중위였다.

그때 그는 우리 중대 훈련관정을 맡고 내려왔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더니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훨씬 커졌구만. 보기만 해도 림름한게 민음이 가는걸.》

하긴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에 내가 달려온 산밭은 그 얼마이며 거기에 뿌려진 땀방울은 또 얼마였던가.

《그래 그 기간에 무엇을 배웠나?》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강이 나타나면 매생이가 생기고 벼랑이 막아 서면 바줄이 생긴다는것입니다.》

한승문중위는 큰소리로 웃었다. 그것은 언제인가 그가 한 말이었던것이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무조건 된다는 뜻인데 그것도 쉽게 된다는것입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우리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애를 쓰면 일이 풀려나가기 마련이고 뛰어다닐수록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하하... 괜찮아 역시 성장했어. 그 뜻을 알았으니 그새 연근동무의 군무생활이 어떤것이였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가 있어. 하지만 자만하지 말라구. 진짜관정은 앞에 있어.》

그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중대는 자주 비내리는 속에서 여러날째 훈련관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받게 된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공격훈련관정때였다. 부대선전대 성원들이 우리 훈련장에 도착하였다.

그들속에는 조동산이도 있었다.

우리 셋은 서로 뜨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추억이란 정말 이름답고 즐겁게 남는다는것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동산이, 그새 기량이 얼마나 늘었나? 앞으로 전문단체에 가야지.》

한승문이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영원히 군복을 입고 병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

《그건 간단합니다. 군사복무야말로 나의 노래가 가장 힘있게 울려갈 터전이고 원천지이기때문입니다.》

《좋아. 아주 발전했어. 바로 그거야.》

그는 동산이를 꼭 그러안고 등을 두드려주었다. 우리는 그가 군관이었지만 어제날처럼 분대장동지라고 불렀다.

《분대장동진 왜 군관이 되였습니까. 대학을 추천받았다고 하던데.》

《나? 별게 아니야. 누구나 다 느끼고있는 감정이지. 저길 좀 보라구.》

그는 산기슭으로 굽이쳐간 도로를 가리켰다.

거기에서는 한패의 어린이들이 학교로 가고있었다.

모두 울긋불긋한 비웃과 우산을 쓰고 웃고 떠들어댄다.

《저 아이들을 보니 무슨 생각이 나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같애. 사실 저런 모습이야 우리가 자랄때에도 다 체험했고 지금도 늘 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지금은 새삼스럽게 느껴질까?》

아마 우리가 수행하는 임무가 남보다 어렵고 강한 의지로만 헤쳐야 하는 그런데서 오는 감정이 아닐까. 말하자면 철이 든다고 할가. 저런 시절에 모르던걸 지금 알게 되거든.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철따라 교복을 받고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고... 나라에서는 집을 주고 쌀을 주고... 부럼없이 살고있지.

그래서 우리 수령님 은덕이 고맙고 그 고마운 우리 제도를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영원히 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이게 다야.》

《!》

그 순간 내 가슴에서 무엇인가 쿵하고 울리는 것이 있었다. 한승문이 교복을 타서 참 기뻐했겠다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던가.

그거야 누구나 다같이 탄건데... 하면서 범상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가 왜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좋아했는지 이해된다. 그래서 그의 군사복무는 언제나 딱 소리나는 생활로 이어진것이 아닌가.

중대는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였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돌격 앞으로!》

중대장의 구령에 병사들은 산개대형을 짓고 《적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비방울이 철갑모에 부딪쳐 튀어나고 옷은 화락하니 젖었다.

와르르... 썩-

가파로운 산비탈이 갑자기 무서운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바위돌들이 굴러내리고 바위쥬에 뿌리박고있던 큰 나무들이 뿌리채 드러나 허공 덩굴며 내렸다.

그가운데로 어디서 생겨났는지 난데없는 물줄기가 쏟아져내린다. 이제 어디에서 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에돌아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솟구쳤다. 실지 전투가 아닌 이상 사고를 내면서 판정받을수야 없지 않는가.

그러나 누구도 말이 없었다.

모두 한승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승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들여다보고만 있다. 지연된 공격시간을 재는듯...

계속 앞으로만 전진해야 한다. 훈련도 전투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벼랑을 극복하자면 누구든지 우에 올라가 바줄을 걸어야 한다.

중대장은 이제 명령을 내릴것이다.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한승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혹시 내가 올라가길 바라는것이 아닐가?

그렇다. 그는 내가 올라가길 바라고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검열하고싶어한다.

그러고보면 그는 오늘도 나의 상판, 나를 채찍질하고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내가 해보자. 나는 이제 단련된 당당한 군인이 아닌가.

나는 중대장앞에 나섰다. 중대장은 나의 랑어깨를 짊어 주며 오늘의 전투성과가 나에게 있음을 눈으로 강조하였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벼랑에 다가갔다.

쏟아져내린 흙사래는 죽처럼 물렁물렁했다.

발이 무릎우에까지 빠져서 뽑아내기가 힘들었다.

그때마다 엎디어 기다싶이 몸을 기울여 한발한발 옮겨나갔다. 그런대로 아래구간을 벗어나니 삐죽삐죽 나온 돌들이 나타났다.

나는 바위턱과 흙들을 골라가며 한치한치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손끝을 댈수 없는 곳에서는 가느다란 나무아지를 조심히 잡아당기며 몸을 조금씩 솟구었다.

그때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비물에 섞인 땀방울이 입에 들어가 짹짹했다.

얼마나 올랐을가?...

갑자기 머리우에서 큰 바위가 덮칠듯이 꺼꾸로 일어선다. 순간 나는 눈을 딱 감았다.

와르르- 우당탕... 팡!...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지난 후에야 앞이 서서히 보이고 주위가 조용해졌다. 차츰 정신이 맑아지더니 그냥 벼랑턱에 매달려있는 자신을 의식하였다. 종전의

일은 환각이었다.

등골이 오싹해나고 몸이 후두두 떨렸다.

아직도 올라갈 높이는 아득하다.

내려다보니 그 또한 아찔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올라갈수 있는가?

수령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행복과 기쁨만을 받아왔어라

조동산의 노래였다. 이 순간 나는 왜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지를 알았다.

동산이, 고맙다. 너는 나에게 우리의 생명이 무엇에 의해 필요한가를 깨우쳐주고있다.

그렇다. 나의 어깨우에 중대의 진격로가 달려있다. 전투승리의 열쇠가 있다. 이것이 어제날 리수복영웅이 달려간 길이다. 어찌 적의 화구를 막는것만이 부대의 진격로를 여는 길이라.

오늘의 진격로는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나는 동산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은혜에 무엇을 아끼라

수령님 위하여 한목숨 바치리라

드디어 ... 드디어 벼랑우에 올라섰다.

나는 허리춤에서 끈을 풀어 벼랑아래로 내려보냈다. 그 바줄을 타고 중대동무들이 번개같이 오르고있다. 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중대는 다시 공격서열을 짓고 마지막산정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역수로 퍼붓던 비발이 가늘어지면서 여기저기 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만세!-》

《만세!-》

고지를 점령한 중대동무들이 총을 추켜들고 울리는 함성이 온 산발에 메아리쳤다.

비에 씻긴 키낮은 나무며 풀들이 청신한 자태를 드러냈다.

원구름과 안개가 발밑에 흐르는 산정은 금시 하늘중천에 떠있는 군함처럼 느껴졌다.

천리수해가 펼쳐진 저아래로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날아예고있었다.

아, 수리개!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섬광처럼 번갯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얼른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단숨에 써내려갔다.

...

하늘중천에 떠 나는 수리개야

내 너를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너의 억센 날개를 두고

너의 아득한 높이를 두고

허나 내 오늘 자랑하노라
여기 높은 산정에서
발밑에 떠도는 너를 보며
산악처럼 우뚝 솟은 병사의 모습을
...

오, 너는 산정의 수리개
나는 조국의 용맹한 수리개

《시가 괜찮은것 같다.》

내 몰래 어깨너머에서 보던 한승문이 시집을
빼앗았다. 그리고는 흥분되어 읊기 시작하였다.

《좋아, 아주 좋아. 좀 서툴긴 해도 시상이 새롭고
병사의 랑만이 그대로 맥박치고있어. 이런것이
진짜시라는거야. 하하하...》

한승문은 시집을 높이 쳐들고 산정이 떠나갈듯
웃었다. 순간 나는 눈곱이 젖어들었다.

입대하여 오늘까지 헤쳐온 힘겨운 행군길, 무
수한 땀방울이 뿌려진 훈련장, 그 나날에 있는
고충과 희열, 랑만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시를
쓸수 있었으랴. 그것은 정녕 병사의 노래였다.

후날 《인민군문에》잡지에 그 시가 발표되었다.
시를 적어간 한승문이 편집부에 보내주었던것이다.
그는 나에게 병사란 어떤 사람이며 희망은 어
떤것이어야 하는지를 깨우쳐준 스승이었으며 친
형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참으로 고마운
지휘관이였다. ...

아들은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있었다.

전에없이 심각한 표정이다.

《내 말의 뜻을 알겠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뒤머리를 긁으며 씩 웃었다.

며칠후 아들은 군복을 입었다.

나는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오늘 선군시대 병사의 임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고마운 우리 조국
을 굳건히 지키는것이다. 그것을 명심하고 헌신
해야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있고 앞날의 희망도
참답게 꽃피울수 있다.》

아들은 떠나갔다.

질주하며 내닫는 렬차의 저너머로 나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었다.

락동강 물소리

주명옥

초소로 떠나는 아침
여기 전승기념탑
락동강도하전투 군상앞에 서니
멈춰선 저 폐목이
이 가슴 피를 끓이누나

구리빛얼굴들에 내려앉은
아침이슬조차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오던
그날의 그 피젖은 땀방울처럼 어려오는데

철썩-
순간 가슴을 치는 물결소리
아 락동강 물소리
신입병사 이 마음
쨍- 울리는 그 소리!

포연을 뚫고
불타는 강을 헤쳐온 영웅전사들
그 붉은 피
아직도 력력히 어려있는

락동강, 락동강

길길이 불기둥 치솟구며
뒤번져 태질하는 물결을
헤가르며 나아가던 그 폐목은
빼앗길수 없었던 우리의 땅은 아니였던가
병사들의 피에 젖어 더욱 신성한...

넘칠듯 출렁, 출렁 높뛰는
내 마음속 물결우에
처절썩- 띄우고 띄우나니
세월이 멈춰세운
화강석대돌우의 저 폐목을

지켜야 할 이 땅의 무게를 싣고
가슴치는 그날의 그 물결소리
아, 락동강 물소리며
너는 영웅들의 넋을 이을
계승자의 심장속에
방울방울 높뛰는
그 피가 흐르는 소리가 아니던가

인덕이 높은 애국자-백선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내가 백과부와 같은 부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그가 민족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서 금전을 아끼지 않은 인덕이 높은 애국자라는데 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관서8경》의 하나로 알려진 대동강반의 련광정앞에는 하나의 석조건물이 서있다. 이 건물은 백선행이라는 한 평범한 녀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애국적 지성을 바쳐 건설한것이다.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귀중히 여겨 이 건물의 이름을 《백선행기념관》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있던 백선행의 민족을 위해 바친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지성이 깃든《백선행기념관》을 원상대로 잘 꾸리고 보존리용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백선행기념관》은 옛모습 그대로 1층은 도서실, 서고, 사무실 등 6개 방으로, 2층과 3층은 각종 모임과 예술공연을 진행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그 앞마당에는 동으로 된 그의 반신상과 칠월에 세워져있던 《백선행녀사기념비》를 옮겨다 세워놓았다.

백선행은 1848년 11월 19일 평양시 중구역(당시 평양부 박구리)에서 수원사람인 아버지 백지용과 어머니 김씨의 딸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과 모진 인생고초를 겪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살림형편이 어려운 안씨집안의 안재황에게 시집을 갔으나 남편은 위낙 병약하였던지라 단란한 가정생활을 펴보지도 못하고 곧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때 그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왼손가락을 칼로 베어 거기에서 떨어지는 피방울을 남편에게 대접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온갖 지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내 운명하고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16살에 청춘과부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람들속에서 백과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후 그는 친청집에 돌아와 재가를 하여 새생활을 시작하라는 못사람들의 요구를 모두 뿌리치고 홀어머니를 의지하여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10년후에 사망하는 바람에 그는 혈혈단신이 되었다. 이때 그에게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채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악한 노력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갔다. 앞뒤마당에는 봉선화를 심어 씨를 받아 장에 내

다 팔았으며 질동이를 머리에 이고 음식점을 돌면서 뜨물을 거두어다 돼지를 기르는 등 남들이 저어하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그는 누에치기도 하고 물레와 베틀을 마련하여 밤이면 무명과 베, 명주를 짰다. 이렇게 그는 결은 한번 팔새없이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는 한창나이의 녀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이나 치장에는 관심이 없이 수수하게 생활하였으며 나들이나 명절놀이에도 별로 가본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것을 마다하고 한푼두푼 돈을 모아 수십년만에는 얼마간의 모치돈을 저축할수 있었지만 향락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

그가 평안남도의 갑부로 된것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당시 강동군 만달면 승호리의 돌박산을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왜놈자본가들에게 본전의 몇 십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것이 계기로 되었다. 왜놈자본가가 돌박산을 사려고 하자 그 땅이 곡식이 잘 안되는 불모의 땅이라고 하여 흥정에 제격 응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백선행은 타산밖은 일본자본가가 넘겨다보는데는 필경 곡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거절하다가 비싼 값을 불러 폭리를 보게 되었던것이다. 당시 매국문서 한장으로 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넘긴 매국노들에 대한 원성이 구천에 사무칠 때 수관알도 튀길줄 모르는 평범한 녀성이 장사속이 밝은 일본자본가들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폭리를 얻어냈기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전승무훈담처럼 통쾌하게 여기면서 널리 전하였다.

백선행은 모진 가난과 싸우면서 재부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에 그 돈을 가지고 빚놓이를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자기의 자산을 넘겨다보는 악한들의 항시적인 위협속에 살아야 했다.

어느해인가 그의 재산을 욕심낸 평양부윤 평한주라는 자가 그를 감옥에 구속한 일이 있었다. 이자는 백선행에게 억울한 루명을 씌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다해가며 돈을 강박하였지만 《고집센》 그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끝내 10여일만에 석방하고말았다.

그의 재산을 노린것은 탐관오리뿐이 아니였다. 강도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집을 습격하여 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강도들의 요구를 조금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주름잡힌 앞마에는 칼자리가 나있었는데 그것은 강도들이 그를 어쩔수 없게 되자 뺨풀이로 낸 상처자리라고 한다.

이때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여 부자로서 조금 주면 아무 일도 없었을것인데 괜히 피해를 받았다고 하자 그는 《불쌍한 사람들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찌 무죄배들에게 굴복하여 줄수 있겠는가.》고 말하였다고 한다.

백선행은 부자로 소문이 났지만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근검절약의 생활을 하였다.

한번은 집에 온 손님에게 탕면을 대접하였는데 그가 음식을 남기는것을 보고는 아깝지 않는가고 편잔을 주었다고 한다.

그가 어떻게 검박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백선행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있던 어느날 그를 소개하려고 각 신문사 기자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때 허술한 의복차림으로 주그리고앉아 키에 팔을 놓고 티를 고르고있던 그에게 기자들은 사진을 찍겠으니 옷을 갈아입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에게는 새옷도 없거니와 곱게 단장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진찍기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기자들은 할수없이 일하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어 소개할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백선행이 사람들속에서 명망이 높았던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을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기때문이다.

무릇 돈은 모으기도 힘들거니와 쓰기도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수전노로 되어 비난과 저주를 받기도 하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백선행은 덕이 있는 녀성이라고 할수 있다.

백선행이 처음으로 자선사업을 한것은 당시 대동군 룡산면 객산리(만경대구역 선내동)에 있던 《술피다리》를 새로 부설한것이다. 그는 큰물이 나면 허술한 나무다리로 사람들이 오가는데 불편해하는것을 보고 자금을 투자하여 돌다리를 건설하였다.

다리가 완공되자 사람들은 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그 다리를 《백선교》라고 하였다.

그후 그는 대중계몽과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평양의 광성소학교, 창덕학교 등과 같은 학교들에서는 그가 기증한 돈을 밑천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는 백선행의 덕이 미친 창덕학교에서 그 덕행의 일부를 받아안은셈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백선행은 자기의 후원을 받고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런 부탁

을 하곤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들딸들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싶다고 놀지 말고 공부하기 싫다고 책을 밀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우리 나라가 독립된단다.》

백선행이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한 기여는 《백선행기념관》에도 어려있다.

당시 평양의 신시가지에는 부립공회당이 하나 있었다. 그 공회당의 사용권이 일본인들에게만 있고 조선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유지들과 함께 조선사람들을 위한 공회당건설을 발기한데 이어 총공사부담을 혼자서 결머치고 수만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공회당건설이 착공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 주체17(1928)년에 완공되자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귀중히 여겨 건물의 이름을 《백선행기념관》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듯 백선행은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녀성이였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기에 평생을 두고 모은 거액의 돈을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계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회사할수 있었다.

하기에 그는 자선사업으로 표창을 하겠다고 녀스레를 떨며 총독부 고관이 평양에 와서 면회를 청하였을 때에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백선행에게는 양손자 한명 있었으나 그가 부화방랑한 생활에 빠져있었으므로 최경림이라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따로 두고있었다. 그는 백선행이 병으로 앓고있을 때 아침저녁으로 간호해준 은인이였다.

백선행은 자기 재산을 최경림에게 처리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주체22(1933)년 5월 8일 85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가 사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커다란 슬픔을 표시하였다.

오늘 《백선행기념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를 가슴깊이 심어주는 동시에 자기 개인을 위해 바친 생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생은 민족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길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애국주의교양장소로 되고있다.

주성철



석남진

1

서해갑문쪽으로 뻗은 도로를 타고 승용차 한대가 달리고있었다. 해운부문 일군인 차영모가 승용차 뒤좌석에 앉아 즐거운 생각에 잠겨있다.

(앞으로 우산리목장에서 돼지고기를 짹짹 생산하게 되면... 선원들이 무척 좋아할거야.)

잔주름살이 많은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그려진다.

(이제 삼복철이나 지나고 날이 좀 선선했으면 본격적으로 목장꾸리기에 달라붙어야지.)

그는 방금 우산리의 한 산골에 있는 돼지목장터를 돌아보고 오는 길이었다.

북해운성안에 큰 돼지목장이 있어서 무역선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고기를 공급하고 있었지만 영모는 그에 만족할수가 없었다.

자기 부문 산하목장을 따로 마련하려는 그를 두고 성에서는 욕심이 많다고 혀를 차는 일군들도 없지 않았다. 그 욕심을 뭐라고 이름할수 있겠는지 좌우간 명백한것은 일욕심면에서는 그가 성적으로 손꼽히는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라는것이다. 벌려놓은 일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그는 지금 대동강하류에 자리잡고있는 배수리공장으로 가는 길이다. 배수리공장은 해운부문의 공무직장이라고 말할수 있는 기지였다.

그 배수리공장에서는 능력확장공사가 몇해째 벌어지고있었다. 차영모는 2 호도크라 부르는 새로운 도크를 비롯해서 여러개의 수리부두, 기타 현대적인 생산시설들을 일떠세우는 이 거창한 건설을 발기하였고 성에서 이 건설을 결정한 후에는 공사책임자가 되었다.

여러가지로 분망하게 뛰여야 했지만 선원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는 일감이 제기되면 무턱 어개를 들이미는 그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기본도로에서 벗어나 배수리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서 달리고있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더운바람이 불어들어오고있었다. 때는 7 월초순이라 바야흐로 삼복철이 시작될무렵이었다. 매미들이 귀따갑게 울어대는것이 마치 무더위를 예고하는듯싶었다.

멀리 배수리공장을 병풍인양 둘러싼 말치산이라 부르는 야산기슭에 일떠선 다층살림집들이 보여왔다. 그것은 외벽에 연청색 혹은 녹색외장재를 바른, 큰 도시복판에 들여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건설된 살림집들이었다.

그는 2 호도크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용자를 드러내보인 2 년전에 이 살림집건설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공장을 크게 발전시키자면 로동자들의 살림집문제를 풀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였던것이다. 집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을 잘할수 있을것이 아닌가.

오늘에 이르러 먼저 5 개동의 5 층살림집이 완공되어 20 여일전에 공장 종업원들이 입사하였다.

방이 세칸짜리에 위생, 부엌, 창고를 갖춘 살림집에 입사한 사람들은 마치 궁궐이라도 차지한듯 궁지와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 집을 배정받은 《행운아들》(누구의 입에선가 나온 이 말이 널리 퍼져있다.)을 부러워하며 이래저래 섭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영모는 말했다.

《기다리오. 살림집건설은 계속되니까 앞으로 배정받게 될거요.》

그의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말치산기슭을 따라 5 층, 4 층 살림집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었다. 건설 2 직장이 새로 조직되어 전문 살림집건설을 맡아 진행하고있다. 공장능력확장공사를 마무리지면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풀자는것이 그의 확고한 결심이었다.

그는 새로 완공되어 사람들이 입사한 살림집들

가까이에 승용차를 세우고 내려섰다. 그 어떤 다감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것이다.

살림집 창가마다에서 따뜻한 생활의 훈향이 풍겨나온다.

많은 창문가에 꽃이 핀 화분들이 내놓이고 어느 집 베란다들엔 비둘기들이 구구거리고 또 어느 집의 열어놓은 창가에선 누군가 타는 손풍금 소리가 울려나오고...

한 고층살림집에서 소랭이를 옆에 낀 녀인이 나오다가 영모에게 인사를 하였다.

배수리공장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치고 영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건설장에 나와 살다싶이 하면서 이 지구를 메주밭듯 한 그였다.

그는 배수리공장 어느 종업원의 안해임에 틀림없는 그 녀인에게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아주머니, 어디 빨래하러 가는 길입니까?》

그는 소랭이속에 들어있는 빨래감들이며 빨래방치, 비누곽을 슬쩍 넘겨다보며 물었다.

《예, 저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하자고...》

《집에 목욕탕이 있을텐데... 혹시 물이 나오지 않는가요?》

《아... 아닙니다.》 녀인은 황겁히 도리머리를 저으며 동문서답격의 대답을 했다. 《집이 좋습니다.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봤나요.》

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동을 달았다.

《그저 강에서 빨래를 하는데 습관이 왜나서...》

《그렇습니까? 그럼 어서 가보십시오.》

녀인은 영모에게 다시금 인사를 하고나서 종종 걸음을 쳐갔다. 영모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녀인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의 습관이 저렇게도 검질건것이란 말인가?)

오후에 영모는 6 호수리부두건설장에 가있었다.

이번 배수리공장능력확장공사에서 기본은 2 호도크와 함께 4 호, 5 호, 6 호수리부두를 건설하는것이였다. 4 호, 5 호수리부두공사는 일반적인 부두건설공법인 무게식으로 건설되는것으로서 많은 건설자들에게 과악이 있었으나 수만톤급의 배도 댈수 있게 크게 설계된 6 호부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룡상공법으로 건설되고있었다. 이것은 방대한 량의 감탕굴착을 전제로 하고있었다.

지금 6 호수리부두건설장에선 유압식굴착기 3 대가 감탕굴착을 진행하고있었다. 감탕굴착이 끝난 구역에선 기초타입이 따라서고있었다.

6 호부두건설장에서 굴착기들의 작업모습을 볼때면 영모는 문득문득 소스라치며 심장이 아파움을 느끼곤 한다. 바로 한달전에 기계화대대 굴착기운전수였던 아들이 굴착작업도중 갑자기 감탕이 붕괴되는 바람에 심한 부상을 입고 평양으로 후송되었던것이다.

인민군공병부대에서 중기계운전수로 복무하다

가 제대되어 곧장 이 건설장으로 달려왔던 아들이였다.

아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는 능력확장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여 나라의 해운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해야겠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것은 아들의 기대이고 녀원이기도 하였다.

그는 6 호부두공사장을 돌아보다가 기초타입장에 뛰어들었다. 그는 건설지휘부 시공분과장과 함께 맞대이를 잡고 세멘트혼합물을 날랐다. 그는 50 대 중반기의 나이였지만 아직 몸을 아낄줄 몰랐다.

시공분과장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가 갑자기 유쾌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국장동지, 좀 쉽시다. 저기 후방분과에서 얼음과자를 가지고 나왔습시다.》

공사장가녁에 얼음과자가 든 바게쓰와 오이랭국이 든 큰 비닐통을 부리워놓고 건설자들을 부르는 후방분과 처녀의 모습을 보는 영모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후방분과가 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는 휘적휘적 걸어가 건설자들 한복판에 끼여들어 넉적한 막돌 한개를 깔고 앉았다. 막돌은 해별에 달아서 뜨끈뜨끈했다. 그는 안전모를 벗어두고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에 질벅한 땀을 문대였다.

그는 문득 유압식굴착기 한대가 감탕굴착작업을 계속하고있음을 발견하고 말하였다.

《저게 철수동무의 굴착기가 아니요? 덩지도 않은 모양이군. 누구 빨리 가서 철수동무를 불러오오. 얼음과자가 다 녹아 물이 되겠소.》

굴착기운전수 박철수로 말하면 영모의 아들과 함께 착공의 첫날부터 굴착기를 운전하여 공로를 세운 제대군인이였다. 그래서인지 영모는 철수에게 각별히 정이 갔다.

《요새 철수동무가 사기가 났습시다.》 시공분과장이 뒤늦게 휴식장소로 걸어오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가 사기가 날 일이 무어요?》 영모는 넋지시 물었다.

《이번에 세칸짜리 새 집에 입사하지 않았습니까.》

영모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새로 지은 살림집을 배정하면서 제대군인들을 첫자리에 놓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하고 시공분과장이 말을 계속하였다. 《평양산원에 입원한 철수동무 안해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렇소?》

영모의 얼굴에 웃음이 확 퍼지였다. 그도 철수

의 안해가 평양산원에서 아기를 낳고싶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에 평양산원에 입원하게 된것을 알고있었다.

(그것 참, 평양산원에서 애기를 낳겠다고 할만도 하군.)

영모는 철수가 앞에 와앉자 얼음과자를 쥐여주며 말을 했다.

《쌍둥이 생남을 축하하오.》

과묵한 청년인 철수는 싱긋 웃으며 머리만 긁적이었다.

《건설장에서 철수동무 안해와 쌍둥이를 태워오게 차 한대를 조직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시공분과장이 말하였다.

《보장해줘야지, 온 건설장이 다 아는 굴착기운전수가 아들쌍둥이를 보았는데 이건 2호도크건설장의 기쁨이고 또 우리 룡해운성의 경사라고도 할수 있지. 내 성에 제기해서 성에 있는 위생차를 한번 뛰도록 해주겠소. 철수동무 부모님들이 이제 새 집에 온다고 했던가?》

《예.》

《그분들이 후에 와도 볼수 있게 성영화보급소 촬영가를 보내 아기엄마가 평양산원에서 퇴원하는 장면을 잘 찍어 룡화테프에 잡도록 해주겠소.》

《국장동지, 고맙습니다.》 철수는 희색이 만면해서 말하였다,

《고맙긴? 혁신자들을 위한건데 그썸한것도 못하겠소?》 영모는 미더운 눈길로 철수를 보았다.

2

하늘의 태양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날씨는 더욱더 물쭈다. 건설장을 돌아보는 영모의 얼굴은 별절게 익어들고 반팔소매 작업복상의의 잔등부위가 폭 젖어들었다.

그는 평양에서 사업하다가 5일만에 건설장으로 왔다. 해운부문 국장으로서의 사업도 놓침없이 수행해야 하는 그로서는 어차피 평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평양에 있다가 건설장으로 오면 현실의 절박성을 느꼈고 그에 뒤따라 온몸에 충만되는 열정과 힘을 느끼곤 하였다. 건설장에는 나라의 해운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기려는 그의 희망과 꿈이 현실로 옮겨지고있었다.

그는 한창 건설중인 2호도크 지령실 건물우에 올라가 앞을 바라보았다. 왼쪽으로 1호도크 건너편 대동강기슭에선 4호, 5호부두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었다. 투석선이 루석작업을 하며 일으키는 장쾌한 물갈기가 더위에 화끈 단 그의 육체에까지 시원한감을 풍겨 주는듯 하였다. 강쪽을 향해 막돌무지들을 밀어가는 대형볼도젤의 동음소리가 아직랑이가 아물거리는 공간에 다

기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그의 눈길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6호수리부두공사장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였다. 수만톤능력의 큰 부두로 건설되는 6호부두는 류달리 그의 마음을 그려잡는다. 아마도 그것은 이 6호부두공사장에서 아들이 피를 흘려서인지도 모른다. 약한달전의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

6호부두공사장에서는 감탕굴착과 기초타입작업이 동시에 벌어지고있었다. 감탕굴착의 깊이는 보통 10여메타가 훨씬 넘었다.

그의 눈에 철수가 운전하는 굴착기결에 서있는 늙수그레한 한사람의 모습이 띄였다. 그 사람은 굴착기의 동작을 보는가 하면 대동강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여기 건설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였다. 누굴가?

영모는 지령건물을 내려서 6호부두공사장으로 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철수가 굴착기를 세우고 뛰어내렸다.

《국장동지,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틀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굴착기결에 서있던 늙수그레한 그 사람을 소개하며 하는 소리였다. 《건설장을 보고싶다면서 나왔습니다.》

철수의 아버지 박형식은 거울진 체격에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인데 마치 은인이라도 만났듯 감격의 표정을 지으며 영모의 손을 자기의 마디진 두손으로 꼭 부여잡고 흔들어댔다.

《국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뭘가 고마울게 있습니까?》 영모는 어리둥절해서 말하였다.

《훌륭한 집을 지어서 변변치 못한 내 아들녀석 한테까지 배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며늘애가 평양산원에서 쌍둥이를 낳고 퇴원하는거랑 다 돌봐주었지요.》

《아 참, 머느리 퇴원하는걸 룡화기로 보았습니까?》

《보다마다요. 한 열번은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형식은 두드러져나온 큰 두눈을 습벅거렸다.

영모는 소박한 사람의 진정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철수동무는 우리 건설장의 보배입니다. 누구나 철수동무를 사랑하지요. 이런 동무를 위해선 해줄수 있는건 다 해주고싶습니다.》

영모의 치사에 형식은 씩쓰레한 미소를 짓고서 굴착기를 운전하는 아들 철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며칠후 영모는 공장 주물반에 갔다가 로동자들 속에서 무슨 설명을 하고있는 형식을 보고 놀랐다. 알고본즉 형식은 뛰어난 기능을 가진 주물공이였다. 아직도 북방의 어느 큰 기계공장의 주물교관으로 일하고있다고 한다.

커다인 체구의 형식로인이 주름살투성이 눈가

풀속에서 총명하게 빛나는 벌겋게 충혈진 두눈을 껌벅이며 《아들집에서 놀자니 좀 갑갑하더군요.》 하고 그 무슨 변명이라도 하듯 어쭙게 말할 때 영모는 이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착이 가슴에 물밀듯이 차오름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아바이, 감사합니다.》 영모는 부탁의 말을 덧붙이였다. 《우리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공장에 형식으로인과 같은 기능공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모는 형식에게 아예 아들네 집에 와서 살면서 배수리공장 주물고판으로 일해주시지 않겠는가고 언저시 중편보았다.

그런데 형식은 영모의 제기에 느슨한 웃음을 지을뿐 대답을 피하는것이였다.

형식은 고향집에 로친을 두고왔다. 로친은 집에서 꿀을 친다고 한다.

(로친이 정든 집을 뜨기 싫다고 고집을 쓰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영모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어느날 영모는 주물장에 갔다가 형식이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형식이 공장종업원이 아니고 또 그가 매일 주물장에 나와야 할 하등의 리유도 없는 관계로 그가 보이지 않는것이 별로 이상할것도 없었지만 영모는 어쩐지 그가 이젠 아예 여기를 떠나가버린듯싶어 허전하기도 하고 또 근심스러운 감정도 이길수가 없어 형식에 대해 두루 알아보았다.

그런데 형식이 왕창같이 부상을 당해 아들집에 누워있다는것이 아닌가.

《뭐요? 갑자기 부상이라니 무슨 소리요?》

영모는 주물반장에게 놀란 소리를 쳤다.

《집에서 물을 길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무릎마디를 상한가 봅시다.》

《물을 길다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요?》

《집에 물이 없어서 우물의 물을 길는다고 합니다.》

(우물의 물을 길는다? 그러니 집에 물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닌가?)

잠시후 영모는 새로 지은 다층살림집으로 향했다. 우선 뿔프장에 들러 실태를 알아보았다.

새로 지은 다층살림집들에는 땅속깊이 졸장을 박아 지하수로 음료를 공급하고있었다. 그런데 주민세대들의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 지하수물량이 점차 주민들이 생활하는 파정에 예상했던것보다 적다는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나는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있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영모의 눈앞에는 강에 나가 빨래하는데 습관되었다면서 빨래소랭이를 옆에 끼고 강가로 나가던 한 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니 그 녀인도 결국은 집에 빨래할 물

이 없어 강을 찾아간것이 아닐까?)

영모는 철수의 집을 찾아보았다.

그의 집은 5층짜리 살림집 3층에 있었다. 영모는 계단을 오르며 늙은 몸으로 물바께쓰를 들고 3층을 오르내렸을 형식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그러자 가슴이 얼얼해지는것만 같았다.

형식은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있었다. 맥을 탁 놓고 나른히 누워있는 그 정상은 육체의 어느 부위가 아프다기보다는 몹시 지쳐빠진듯 한 감을 안겨주었다.

쌍둥이 어머니인 며느리가 죄책감이 어린 목소리로 영모에게 말하였다.

《모든게 제 탓입니다. 아버님이 물을 길겠다고 할때 제가 나서야 하는건데... 전 애들에게 젖을 먹인다고...》

《애에미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몇번이나 일렀니?》

형식은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에게 엄하게 눈을 흘기고나서 영모에게 웃어보이였다.

《다 내 자식, 내 손자들을 위한건데 물 길는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내 그만 실수를 해서 넘어진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제 낫겠지요.》

《당장 차를 타고 병원에 가봅시다.》

《공장진료소에서 의사선생들이 왔었습니다.》

형식은 붕대를 두툼히 감은 무릎을 내보이였다. 잔뜩 부어오른 무릎이며 다리가 영모의 눈에 아프게 어려들었다. 영모는 할말을 찾을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장에 가보았다. 욕조에는 물이 3분의 1가량 차있었다. 형식이 물바께쓰로 이만큼 채웠을까?

빨래줄에는 아기기저귀들이 주렁이 널려있었다. 쌍둥이이니 빨래감인들 오죽 많이 생길것인가. 그러니 어느 집들보다 갑절이나 물을 소비할것이다.

《물은 언제 나왔나?》 영모는 쌍둥이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이틀전에 나왔는데...》 쌍둥이 어머니는 마치 제 탓이기라도 한듯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가 자꾸 기저귀랑 아기옷이랑 빨다보니...》

《빨래를 잘하는거야 좋은거지. 물이 떨어지면 우물에서 물을 길소?》

《예, 집 가까이에 우물이 있어 걱정없습니다.》

《음-》

영모는 신음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세면장문을 닫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형식에게 말했다.

《아바이, 절 옥하십시오. 물공급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무슨 일군이겠습니까?》

《원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공장에 큰 건설을 벌려놓고 이런 살림집까지 짓는다는게 간단한 용단이 아니지요. 전 다 이해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모가 그만 자리에서 일

어서러는데 형식이 입을 열었다.

《여긴 본시 먹는 물이 바르다고 합디다. 그렇게 생겨먹은걸 어찌겠습니까. 우리 고향엔 물이 아주 좋지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넘친답니다.》

영모의 머리속엔 형식이 고향집을 뜨기 싫어하는 원인이 바로 물과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피뿔 스치었다.

3

차영모는 무거운 생각에 짓눌리운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걸음을 옮기었다. 그의 옆으로 버력들을 만재한 화물자동차들이 지나치며 흙먼지를 뿜양게 들썩였으나 조금도 감각하지 못하는듯싶었다. 어느새 그는 거창한 건설장 한복판을 걸어가고있었다.

건설자들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인 2호도크, (기본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갖춘 2호도크 바닥에서는 지금 현대적인 물문제작이 진행되고있다. 남포조선소처럼 배제작경험이 풍부한 기업소에서만 만들수 있다는 물문인데 공장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겠다고 달라붙었다.) 지난 2년어간에 새로 일떠서 만부하를 걸고있는 산소발생장과 아세틸렌발생장, 완공의 날을 몇달후의 일로 바라보며 일떠서는 발동발전소, 점차 자기의 면모를 드러내보이는 4호, 5호, 6호수리부두... 이 모든것들이 저마다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며 그의 눈앞에 다가드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전에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긍지를 안겨주던 이 빛나는 창조물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듯만싶어 영모는 속이 허우룩해지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이 물고생을 하는데 너는 지금껏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되어 살아왔는가.

영모는 모질게 머리를 후려치는 이런 마음속 힐책에 쫓기듯 허둥허둥 걸음을 옮긴다.

그의 걸음은 6호부두공사장에까지 와서 멈추어섰다. 철수가 운전하는 굴착기가 눈에 띄운다.

철수는 더워서인지 운전칸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런닝그바람으로 일을 하고있다. 그는 아직 아버지가 부상당한것을 모르고있을것이다. 언제 집안일에 신경 쓸새가 없을것이다. 건설자들도두가 그저 하루빨리 공장능력확장공사를 마무리짓고 위대한 장군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위해 힘껏 내달리고있는것이다.

그러니 박형식과 같은 늙은이가 집안일에 손을 댈수밖에 없지. 갓 해산한 애기엄마에게 물바게뜨를 들리우겠는가. 부모의 심정이란 그런것이다.

그는 6호부두를 건설하기 위해 제방처럼 내쌓은 가물막이둑우에 올라서서 대동강을 바라보았다.

해빛을 받아 무수한 은구슬, 금구슬처럼 반짝

이는 수면, 그 눈부신 수면을 스칠듯 하며 날아에는 갈매기들, 물결이랑을 일으키며 달리는 무역집배... 그러나 영모의 눈에는 이와 같은 광경이 비껴들지 않았다.

(자식을 가진 사람의 심정이란 결코 고요할수는 없는것이이지.) 하고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는 약 한달전 이 6호부두공사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되살아나 펼쳐지고있었다.

별스레 을씨년스러웠던 어느날 밤 갑자기 방대한 감탕이 붕괴되였다. 영모가 그 소식을 듣고 현지에 나왔을 때 감탕사태는 가장 깊은 곳에서 굴착을 진행하고있었던 아들이 탄 굴착기를 휩쓸어버렸다. 영모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여러날에 걸쳐 많은 량의 비가 와서 감탕이 눈에 띄게 뭉어진 조건에서 영모는 지휘성원들에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할데 대해 지적했었다. 그런데 아들을 비롯한 젊은 건설자들이 언제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느냐고 하면서 뚱다 투신하더니 무서운 감탕사태를 만난것이였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그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영모는 사람들과 함께 굴착기를 한 절반 물어버린 감탕을 정신없이 파제졌다. 마침내 굴착기문을 열어제끼고보니 다행히 아들은 숨이 붙어있었다. 그런데 감탕의 압력에 운전칸이 찌그러지면서 아들의 발이 주행발판밑에 짝 끼여들어 그 애를 끌어내올수가 없었다. 이때 다시 두번째 감탕붕괴가 진행되고있었다. 두번째감탕붕괴는 굴착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릴것이다. 그러면 아들은 생매장되어 숨이 끊어질것이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이 일어서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그 순간 영모는 운전칸바닥에 놓여있는 함마를 발견하였다. 영모는 그 함마를 들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르며 주행발판을 내리쳤다. 아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주행발판이 떨어져나가면서 발이 빠져나왔다. 아들의 생명은 구원되였으나 그 애의 발목은 함마에 얻어맞아 뼈가 부서지고말았다...

잊을수 없는 그날 그밤의 아픔이 다시금 되살아나 가슴을 쥐어뜯는다.

지금도 아들은 병원침대에 누워있다. 혹시 이 아버지를 원망하고있지나 않는지. 어쨌든 내가 그 애의 발목뼈를 부셔놓았으니까.

영모는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려는듯 머리를 흔들었다.

(부모들의 심정이란 이런것이다. 자식들의 일이 편치 못하면 마음의 안정을 쉽게 잃을수 있는 법이지.) 하고 영모는 생각하였다.

《박형식아바이도 자식의 물고생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차영모, 만약 네 아들이 지금 물이 부족한 그 살림집에서 살고있다면...》

갑자기 그의 머리속에는 한 반년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가 책임진 국산하 무역선 한척이 서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후 그는 그 사건의 런대책임을 지고 검토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배수리공장 능력확장공사에 참가하고있던 건설자들이 상급기관에 청원편지들을 보내었다. 우리는 모두 국장동지를 친형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가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다면 여기 건설장에 내려보내여 우리들속에서 단련하며 과오를 씻게 해달라고...

상급기관의 일군은 이런 편지를 영모에게 보여주면서 《동문 비록 검토를 받고있긴 하지만 대중의 신망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요.》하고 말하였다.

평범한 책상과 의자들만 있던 그 사무실, 번쩍거리는 가구들이 놓인 해운부문 국장의 사무실에 비하면 더없이 소박하게 꾸려진 상급기관의 그 사무실에서 건설자들이 올려보낸 청원편지들을 보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때의 그 눈물이 이제 말라버려 흔적도 찾을 길이 없단 말인가.

만약 내 자식이 새로 지은 살림집에 살고있다면 나는 품을 놓고 찾아가 집안살림이 어떤가, 애로되는 점이 없는가를 알아보지 않고는 못 배겼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박철수를 비롯한 새 집의 입사자들을 그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듯 진심으로 혈육처럼 생각지 못했던탓에 그 살림집들근처에 가셔도 어느 한집 우정 찾아 들어가 생활형편을 알아보려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이 집이 좋다고 하는 소리에 스스로 만족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놈인가.

영모의 머리우에서 삼복철의 태양이 지글지글 내려쬰고있었다. 영모의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등줄기로도 땀이 흐른다. 그는 왜선지 눈앞이 어질어질해지고 맥이 빠지는감을 느끼며 안간힘을 썼다.

(이런 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새삼스럽게 자신이 다른 실책을 범한것이 없던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선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벌리자고 하는 돼지목장건설, 그것도 빨리 다그쳐야 한다. 삼복철이면 어떻단 말인가. 이런 일은 결코 후날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영모는 현장에서 건설지휘부로 돌아오자마자 목욕탕으로 들어 갔다.

지휘부성원들이 리용하는 목욕탕이었다. 여기서는 한증도 할수 있고 또 랭수욕이나 빨래도 할수 있었다. 공사의 초기에는 건설장에도 음료수가 부족하여 건설자들이 고생을 했다. 기계화대대 앞마당에 우물 한개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술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가 없어 소방차가 다니며 건설자들의 숙소에 물을 공급해주곤 했었다. 그러다가 도시경영성에서 시추차를 빌려와서 음료수탐사를 하게 되어 마침내 지휘부 가까이에서 수질도 좋고 물량도 풍부한 지하수를 찾아내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건설장에서는 물문제가 풀리게 되어 건설자들의 숙소마다 한증칸 달린 목욕탕들이 꾸러지고 식당들에는 물이 흘러 넘치었다.

영모는 땀에 젖은 몸에 물바가지로 찬물을 냅다 끼었어댔다, 살것만 같았다.

썉, 썉... 물이 그의 단 몸을 식히며 흘러내린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물을 길다 넘어져 무릎을 상해 누워있는 형식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모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것만 같았다.

새로 지은 살림집의 주민들은 이 무더운 날 집에서 목욕도 마음껏 하지 못할것이다. 그는 죄스러움을 느끼며 대충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었다. 썉- 수도관을 통해 커다란 욕조에 뿜어져내리는 물줄기가 보인다. 다음순간 그의 머리속에 번개의 섬광처럼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 물을 새로 지은 살림집 주민들에게도 공급할수있지 않을까?)

4

다행스럽게도 건설지휘부 근처의 땅밑에서 퍼올리는 물량이 약 300 여세대의 주민들에게까지 공급할수 있을만큼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차영모는 너무 기뻐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됐구만!》

당장 급수망공사를 하여 주민세대들에 물을 공급하자고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나타났다. 그들중엔 간부들도 있고 로동자들도 있었는데 그 표현형태가 각이하였다.

...체대 실한 거인과 같은 사람이 영모의 방에 들어왔다. 중키이고 몸집이 보통인 영모를 압박하듯 바투 다가서서 큰주먹을 흔들며 열변을 토하는 그 사람은 이 건설지휘부의 참모장이였다.

《국장동무, 이제 조금만 잡아채면 결승선에 도달하겠는데 그래 수도공사를 하느라고 속도를 늦잡겠습니까. 나도 다 알아봤단 말입니다. 새 살림집들에선 물이 풍족치 못하달뿐이지 그런대로 생활하기엔 지장이 없습니다.》

참모장의 결결한 목소리는 방안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하긴 이 큰 건설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속에서도 그 소리가 제일 크다고 하는 참모장의 목소리였다.

영모는 참모장에게서 풍겨오는 열기에 어쩐지 답답함을 느끼며 뒤로 움쉴 물러나 앉았다.

참모장과는 좀 다른식으로 영모를 《훈시》하자

고 드는 사람도 있었다.

영모가 현장에서 담배팩을 꺼내드는데 담배쌈지가 불쑥 눈앞에 나타나 흔들거렸다.

《국장동지, 이걸 한번 피워보십시오. 성천초인데 그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상고머리를 한 기계화대대장이 그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양증스럽게 만든 담배쌈지를 꺼내들고 히죽벌죽거렸다. 영모는 그가 손수 말아주는 담배를 사양없이 받아 붙여물었다.

《맛이 괜찮지요? 좋으시다면 내 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우리 처남이 한배낭 가져다놓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동지, 요새 장기수준이 좀 올랐습니까?》

명절날 건설장에서 체육오락경기를 벌릴 때면 영모는 자주 이 기계화대대장과 장기판에서 맞붙곤 하였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모는 매번 그에게 패하곤 하였었다. 그는 한다하는 장기군이였다.

《장기수라는게 원래 일수부동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차 잃고 포 잃고 귀한 쪽들을 다 잃으면 서도 마지막에 <장훈> 하고 꼼짝 못하게 궁을 먹으면 이기는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뭘 잡는게 고양이라든가... 뭐 그러루한 속담 있지 않습니다까.》

(헛, 참.)

영모는 기가 막혀 허거뜰 웃음을 터쳤다. 그는 이 기계화대대장이 이렇게 말이 청산류수일줄은 몰랐던것이다.

《난 지휘관도 이 장기군 비슷한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수효는 장기군처럼 다른것은 다 죽이면서도 큰 목표 하나만을 노려야 하는거지요. 내 보기엔 이제 벌리겠다는 급수망공사라는게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대상 같질 않구만요. 나도 이번에 그 새 살림집에 입사한 사람이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만... 주민들모두가 이전에 우물을 길어먹던 사람들인데 집에 앉아서 2~3 일에 한번씩 수도로 나오는 물을 받아먹으면 호사라고 할수 있지요.》

기계화대대장이 늘어놓는 말이 별로 신통스럽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그가 고맙게 느껴졌다. 아무튼 언제봐도 밍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영모의 심장을 찌르고드는 사람도 있었다.

아들의 친한 동무였던 제대군인 박철수, 바로 그가 침통한 소리를 하며 주먹으로 제 가슴을 두드렸다.

《국장동지, 진명(영모의 아들 이름이 진명이였다.)동무가 부상당하여 이 건설장을 떠나갈 때 난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내 네 뭍까지 합쳐 헌신분투하리라, 너의 마음이 실려있는 이 건설공사를 하루 빨리 끝내고 우리 함께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자. 나는 이런 일념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동

지는 지금 전투력량을 분산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물이야 좀 길어먹을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허, 이런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제 안해나 아버지보다도 강성대국건설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젊은 청년이여선지 지내 과격한듯 하다. 영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새로 지은 살림집의 물문제는 지금 당장은 별로 논의할 가치가 없는것일까?

그러던 어느 하루 영모는 점심시간에 새 살림집지구에 나가보았다.

무더위때문인지 아니면 급수망공사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도무지 밥맛이 없어 몇술 뜨다가 나왔지만 별로 배고픈줄도 모르겠다. 그대신 목이 말라들어 물만 자주 들이키게 되었다. 정신적으로도 그 어떤 갈증을 느끼게 되는듯 머리가 뻥하다. 하지만 정신적인 갈증은 무엇으로 꺼야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영모가 뽕포장에 가보니 열쇠가 걸려있었다. 관리원이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간 모양이다.

그의 발걸음은 철수네 집쪽으로 향했다. 이때 그의 눈에 다충살림집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는 한 청년이 띄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주춤서버렸다. 그 청년은 바로 철수였다. 자기에겐 급수망보다도 공장능력확장공사가 더 급하다고 부르짖던 청년, 그가 길다고 할수 없는 점심시간에 집으로 달려와 물을 길는단 말인가.

아버지가 물을 길다가 넘어져 상한 후에 아들로써 그 어떤 죄책감을 느낀것일가? 그럴수밖에 없는거지. 그도 피가 뛰는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뭘 물이야 길어먹을수도 있는것이라고?

하긴 그것이 자기자신에게 하는 소리일수도 있다. 어쨌든 이 다충살림집들에서 아직 물부족현상은 계속되고있다.

철수는 량손에 물바게쓰를 갈라들고 집을 향해 댕다. 영모는 천천히 그뒤를 따랐다.

그가 3 층으로 올라서는데 철수네 집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좀 다투는것 같은 소리였다. 그는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숨을 죽이고 슬그머니 다가갔다.

너인 세명이 물바게쓰를 들고 철수네 집앞에서 소란을 피우고있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건 참가슴치는 소리들이었다.

《우린 일없다니까요.》

《이 집이야 쌍둥이 산모가 있지 않나요. 갓난애들이 있으면 빨래를 늘 해가지고있어야 하는건데...》

《우리 집은 식구가 없어서 수도로 나오는 물량이면 늘 남는답니다. 아저씨야 점심시간에 좀 눈을 붙여야 할게 아니예요.》

이렇게 소리치며 물이 출렁이는 바게쓰들을 집안으로 들이밀러는 너인들을 철수가 막무가내로

밀어내고있었다.

《아주머니들, 이리저 마십시오. 모든 집에 나오는 물량이 같은데 내가 무슨 량치로 물지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 굶은 놈이 물을 좀 길으면 됩니다.》

영모는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이웃에 사는 녀인들이 바게뜨에 물을 채워들고 쌍둥이 산모가 있고 로인이 무릎을 상해 누워있는 철수네 집을 찾아왔다!

아, 정말 우리 사람들은, 우리 녀인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 뜨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날 오후 건설지휘부 생산총화시간에 영모는 급수망공사를 위한 긴급전투조직을 했다.

또다시 무슨 의견을 말하자고드는 사람들에게서리발같은 눈길을 쏘며 엄하게 말했다.

《여러말 마시오. 주민들이 물고생을 하는데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요. 물론 부두공사도 중요하오. 그러나 노동자동무들의 생활이 안착되지 않고서는 부두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낼 수 없다는것은 명백한것이요. 그래 어디 솔직히들 말해보시오. 동무들도 다 세대주들인데 집에서 부모들이나 안해들, 아이들이 어떤 고생을 해도 태연해있을 목석들이란 말이요?》

물은 제값으로 흐르기 마련이라 영모의 절절한 소리앞에 누구나 쑥 움츠러들고말았다.

5

배수리공장 능력확장공사에 참가하고있는 건설자들은 물탱크와 뿔프장, 배수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그 건설이 주야로 벌어져 한주일만에 끝났다. 그 이튿날 배수리공장 전체 종업원들이 동원되어 관로공사를 벌리고 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관은 야산등성이 하나를 넘어가야 하였다. 이날 건설장 주위의 온 마을이 명절을 맞은듯 법석 끓었다. 물관이 옛 문화주택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뻗어 가다보니 이 단층살림집들에도 겹사하여 수도공사를 해줄수 있게 된것이였다. 이전에는 몇개의 우물에 매달려 살던 단층살림집 녀인들이 기뻐서 떠들썩했다. 낡은 살림집들, 새 살림집들의 주민들 모두가 떨쳐나서 환성을 올리는판이였다.

불별이 내려쬐이는 한여름철 술한 녀인들이 사과, 배가 가득찬 바게뜨와 소랭이를 들고나와 노동자들에게 아낌없이 들려준다.

《자, 좀 쉬고들 하세요.》

《좀 시원히 들고 하라구요.》

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였다. 사실 집에서 물때문에 속을 썩이는것은 남자들보다 녀인들이였다. 관로를 파چه끼고나자 노동자들이 관을

메어나르는데 영모도 그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 영모는 노동자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등성이를 오르고있었다.

그는 어제 밤 안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안해는 아들이 2차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모가 병원에 와서 수술립회에 참가하였으면 하는 말을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안해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줄수가 없었다. 되새겨보면 어쩐지 안해에게 미안하고 아들에게도 죄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지금쯤 내 아들이 수술대에 누워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유리조각으로 긁어내는듯 한 예리한 아픔이 속을 훑는다.

그는 강인히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에서 비오듯 떨어지는 땀방울이 찌릿하게 입술에 감촉된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땀방울이 휙 뿌려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민의 불편을 풀어주는 이 일을 외면하고 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영모는 누군가 찾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웬 녀인이 따라오며 배를 권하고있었다.

《국장동지, 좀 드십시오.》

엥겔에게 배를 손에 잡으며 바라보니 보름전인가 새로 지은 살림집에 갔을 때 빨래소랭이를 끼고 나오다 그와 마주쳤던 녀인이였다.

《강에 나가 빨래를 하는데 습관이 되어...》 하면서 물고생을 감추려했던 마음 착한 녀인, 그 녀인이 두눈에 감사의 정을 담고 영모를 바라보고있었다.

《아주머니, 잘 먹겠습니다.》

영모는 싱그레 웃으며 배를 한입 물었다. 별스레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갈증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듯싶었다.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던 정신적인 갈증이...

아, 정말 힘이 났다!

영모는 한손에 든 배를 먹으며 즐거운 걸음을 옮기였다.

노동자들은 얼음과자를 먹느니, 사과를 먹느니 춤추듯 어깨를 들썩이며 걷는다. 그들의 옆에서는 녀인들이며 아이들, 로인들이 환영하듯 늘어 서서 박수를 쳐댄다.

영모는 문득 지팡이를 짚고나와 서있는 낮익은 로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름아닌 박형식이였다. 그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하니 교여있었다. 영모는 그에게 눈인사를 보내면서 속으로 말하였다.

(아바이, 앞으로 여기도 아바이 고향마을만치 살기좋은 곳이 될겁니다. 할머니를 꼭 데리고 아들네 집에 와서 함께 사십시오.)

형식은 마치 영모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는것이였다.

(래년도엔 능력확장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날것

이다. 그때면 살림집들도 더 많이 일떠설것이고
... 그러면 지금 이 지하수로는 주민세대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겠지.) 하고 영모는 생각을 한다.

(태년도 겨울전으로 강물을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 려과정수시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로동자들은 관을 메고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태반의 젊은이들은 옷동들 벗어던지는데 근육이
불끈거리는 구리빛 잔등이 땀에 번들거리며 노래
가락에 맞추어 들썩들썩거린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

영모의 마음은 더욱더 흥그러워진다. 즐거워하
고 기뻐하는 사람들속에 있으니 사는 보람을 느
끼게 된다. 자신이 직급이 높은 간부거나 그 어
떤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군중속의 한 존재,
소박한 그들의 한 부분임을 의식하는 이런 시각
이 한여름의 시원한 물처럼 기꺼웁게 느껴졌다.
하여 그는 로동자들의 노래소리에 자기의 목소리
를 합치며 어깨를 들썩이였다.

...

금수강산이라

살기가 좋아서 노래하나

둥기 둥기 둥둥

...

어디선가 백로 두마리가 춤을 추며 날아왔다.

새파랗게 개인 하늘가에 천천히 날개를 치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모양이 마치 땅밑의 사람들에
게 인사라도 보내는것 같았다.

이날 새로 지은 다층살림집들과 단층살림집들
에 시원한 물이 팔팔 흘러 들어갔다.

집집마다 여느때없이 행복의 웃음소리가 피어

나는 그 저녁 영모는 건설지휘부에 꾸러진 자그
마한 방에서 저으기 긴장된 심정으로 안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루종일 궁금했고 못내 근심스럽
기도 했던 아들의 수술소식을 알고싶은것이였다.

조용해진 저녁 홀로 방에 있고보니 그의 가슴
은 어찌할수 없을 정도로 조여들었다.

《여보, 어떻게 되었소?》

안해에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
려나왔다.

다음순간 그의 입에서는 안도의 긴숨이 새어나온다.

《그럴터이지, 수술이 잘될수밖에 없지. 우린 좋
은 세상, 좋은 사람들속에 살고있거던.》 하고 그
는 조용히 말하였다.

이윽고 그는 공장능력확장공사와 관련한 몇가
지 문제토의를 하느라고 건설지휘부 참모장과 시
공분과장을 방에 불러들이었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리어 그는 송수화기를 들
었다. 송수화기에서는 부국장의 목소리가 울려나
왔다. 부국장은 우산리에 일떠서는 돼지목장에
가있다가 돌아와서 사업보고를 하는것이였다.

영모는 드센 배짱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송수화
기에 대고 소리지른다.

《무조건 계획한대로 내미시오. 무슨 삼복철타
령인가말이요.》

그는 약 보름전 우산리목장터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삼복철이 지나서 목장꾸리기에 들어가자고
생각했던적이 있었음을 잊은듯 부국장을 추궁한다.

《하루라도 빨리 고기생산에 들어갈수록 좋은거
요. 다 우리 사람들을 잘 먹이자고 하는 일이 아
닌가 말이요.》

참모장과 시공분과장이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영모가 큰소리치면 칠수록 그들은 왜서인지 더
욱더 그에게 매혹되는듯싶었다.

가사

처녀의 마음

김창호

우물집 막내딸 일숨씨 고와
아들 든 부모들 욕심이라오
그래도 그 처녀 일밖에 몰라
누구도 그 마음 알지 못했소
아 알지 못했소

설참에 남몰래 펼치여보는
약속도 뜨거운 편지가 있소
하늘의 비행사 살구집 아들

처녀는 마음속에 그려본다네
아 그려본다네

고향의 맑은 하늘 바라볼 때면
름름한 그 모습 어려온다오
군복입은 총각이 제일로 좋아
처녀는 한생을 언약했다오
아 언약했다오

준마형지세

고구려 동천왕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동천왕은 왕위에 오른 뒤 고구려를 더욱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당시 도읍지인 집안을 옛날 동방의 문명국으로 위용을 떨친 우리나라의 첫 국가 고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평양이라 불려오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어서 신하들은 어느 평양이 조선의 기본도읍지였는지 잘 모르고있었다.

그리하여 왕은 한 신하에게 어느 평양이 본래 고조선의 도읍지였는가를 밝혀내라고 하였다. 그 후 왕은 여러달이 지난 뒤에 그 신하를 불러 그동안 고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을 알아냈는가고 물었다.

신하가 대답하기를 고조선의 력사기록들은 전란으로 하여 불타버렸기때문에 기록을 통하여 밝힐수는 없었으나 민가에 들어가서 어느 평양이 고조선의 도읍지였는가를 알아보는 방도를 찾았다고 하였다.

《그 방도는 어떤것이냐?》

《어느 평양에 준마형지세가 있는가 하는것이오이다.》

《준마형지세?》

《그렇소이다. 우리 나라에 준마형지세로 된 산이 오직 두곳에만 있는데 하나는 백두산에 있고 다른 하나는 평양에 있다고 하오이다.》

그리고나서 신하는 고조선의 도읍지를 준마형지세가 있는 평양에 두게 된 유래를 이야기하였다.

준마란 걸음이 가장 빠른 말로서 하루에 천리나 달린다고 하여 천리준마라고도 일러왔다.

백두산의 지세가 마치 북으로 달리는 준마와 같이 생겼는데 평양에도 백두산의 지세와 정기를 닮아 역시 북으로 달리는 준마형지세를 이룬 산이 있는것이다.

하여 단군은 평양에서 태어났을뿐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백두산의 지세와 정기를 닮아 영구불멸하기를 바라서 준마형지세가 있는 평양을 도읍지로 정하였다고 전해온다는것이였다.

《그럼 백두산의 지세가 준마형지세로 되어있는것이 사실이나?》

《사실이오이다. 그래서 신이 그 지세를 잘 알고있다는 여러로인들을 데리고 백두산으로 올라가보았소이다.》

신하는 자기가 확인해보고온 백두산의 준마형지세를 왕에게 아뢰였다.

북으로 달리는 준마형지세는 백두산마루에서부터 소백산까지 뻗어내린 산줄기이다.

천지를 이고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마루는 말대가리이고 그아래 대연지봉과 소연지봉으로 우뚝해진 줄기는 발등이며 그뒤로 다시 높아진 간백산과 소백산은 말엉덩이이다. 그리고 백두산마루에서 압록강상류로 뻗어내린 선오산과 곰산줄기는 말의 앞발이고 간백산과 소백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는 말의 뒤발과 같은 형세이다.

이러한 지세는 백두산의 서남쪽 압록강상류로 오르내리면서 보면 볼수록 더욱 완연하였다.

신하의 설명을 다 듣고난 왕은 급히 남쪽지대로 내려가 준마형지세가 있는 평양을 찾아내라고 하였다.

신하는 곧 고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을 찾아 떠났다.

그는 압록강과 청천강을 건너 넓은 들과 수많은 산밭을 오르내리면서 수십일동안 헤매이다가 어느 한 산마루에 올라 앞이 탁 트이고 푸른 강이 감돌아흐르는 수려한 산천을 내려다보게 되였다.

그 산이 바로 오늘의 대성산이였다.

신하는 이곳이 혹시 옛날 단군조선의 도읍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산에서 내려와 강가에 자리잡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 주인을 불렀다.

《이 고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예로부터 평양이라 불려오나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곳에 준마형지세로 된 산이 있느냐?》

《있소이다.》

《어느 산이나?》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준마형지세로 된 산이오이다.》

《저 산을 무엇이라 일러오느냐?》

《모란봉이라 하오이다.》

《모란봉을 어찌하여 준마형지세라고 하느냐?》

《여기서야 어찌 그 지세를 다 볼수 있겠소이까? 제일 높은 저 봉꼭대기에 올라가보면 준마형지세가 력력하다는것을 알수 있소이다.》

신하는 농부와 함께 모란봉에서 제일 높은 최승대로 올라갔다.

《여기가 바로 말대가리오이다.》

농부는 모란봉에서 다음으로 높은곳인 남쪽언덕(을밀대)을 가리키며 그곳은 말의 엉덩이고 그 사이에 우뚝한 산줄기는 말의 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쪽으로(최승대에서 주암산까지 뻗은 산줄기) 뻗어있는 두줄기를 가리키면서 말의 앞발이라고 하였고 다음 말엉덩이(을밀대)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해방탑이 있는 산줄기)와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철성문이 있는 산줄기)를 가리키면서 말의 두 뒤발이라고 하였다.

농부의 말을 들은 신하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신통하구나! 그러니 여기가 옛날 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이 틀림없구나!》

《그렇소이다. 여기가 옛날 단군이 태어나고 나라를 세워 도읍으로 정하였던 평양이 옳소이다.》

드디어 평양을 찾아낸 신하는 곧 돌아와 왕에게 평양의 준마형지세에 대하여 아뢰였다.

왕도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옛조선이 수천년동안 것처럼 강성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백두산의 준마형지세를 닮은 평양에 도읍을 정한 행운이었구나!》

이때로부터 백두산과 평양의 준마형지세에 대한 소문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의 백두산준마형지세는 결사대마냥 《백두밀영고향집》을 옹위하는듯이 솟아있고 모란봉준마형지세는 호위병처럼 《금수산기념궁전》을 지키는듯 신비경을 이루며 솟아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우리의 선군시대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사색

-올해 상반기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김해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화원에 세상에 내놓고
멋뎠이 자랑할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앞을
다투어 빛과 향기를 뿌리게 할수 있을까.

애오라지 이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선군시대 격동적인 현실에서 사상을 찾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습배인 소박하고 진정 넘친 시를 창
작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우리 시인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 시문학의 화원을 선군시대의 요구
에 맞게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할 무겁고
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창
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진리와 정의, 사랑과 도덕의리로 만민
을 매혹시키고 그 거대한 감화력으로 천만을 하
나로 묶어세우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
심과 그리움을 민족의 정신, 민족의 기질, 민족의
생명선으로 표현한 여기에 우리 문학의 주체성,
민족성이 있고 선군시대 인간의 지향과 요구가
있는것이다.

당정책적대가 뚜렷하고 민족성이 훌륭히 구현된
훌륭한 서정시를 창작하려면 시인의 사색과 심장,
그의 열정이 언제나 새로운 시세계로 지향되어있
어야 하고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예민하게 반응해
야 한다. 그리고 사색과 탐구, 열정의 불꽃이련발
할수 있도록 언제나 격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과 격정의 분출

올해 상반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으며 그 어느때보
다도 수령송가와 군민주체의 서정시들이 많이 창
작되어 선군시대 시화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이 서정시들은 지난 시기 기념일시창작에서 나
타나고있던 역사적사실을 개괄하고 생활을 추상
적으로 노래하던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도적인 감정을 생활정서적으로 노래하
는데서 한걸음 더 전진한것이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
신다는 사상을 시마다에 관통시켜 시를 소박하고
깨끗한 진심의 노래로, 친근하고 뜨거운 심장의
노래로 울려오게 하고있다.

《조선문학》 4호에 실린 답시 《수령님과 관리
위원장》(박기석 작), 시 《만경대의 인정》(김
재원 작), 《불빛넘치는 대지에서》(채동규 작)는
아버이수령님의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으로 이루어진 불멸의 업적
과 거룩한 생애를 진정과 뜨거운 마음이 넘치는 생활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답시 《수령님과 관리위원장》은 농장에 찾아오
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친아버지앞에 세간난 살림
살이를 펼쳐보이듯 농장자랑에 신이 난 녀성관리
위원장과 하신 대화속에서 종자를 찾았다. 시는
이 력사적순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가
득 채운 한없이 숭고한 위인의 세계를 생활적으
로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

-멋있어, 여긴 진짜 멋쟁이야
농사도 멋지고 축산도 멋지고
관리위원장! 나도 한번 여기 와
관리위원장을 하고싶구만

가슴몽클 젖누나 관리위원장
어쩔 수령님께서...
아, 어쩔 인민의 아버지 수령님께서...

그처럼 기쁘시여 환히 웃고계시는 아버지수령님
의 영상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오로지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시기 위
해 것처럼 마음쓰시며 모진 고생을 다 하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준다.

...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면
우리 수령님 관리위원장이 되시련다-

관리위원장이 되시여
모도 뜨시고 가을걷이도 하시련다

...
봄이면 뽕밭 뽕잎도 따시고

...
아 농민들 저 하늘의 별을 소원한다면
진정 우리 수령님은
하늘만리 올라서라도 별을 따다 주실분!
농민들 우리 저 밝은 달우에 오르고싶다면
정녕 우리 수령님은
저 하늘에 사다리를 놓아
자신의 한평생을 고여주실분!

...
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거룩한 한생을 집약적으로 련상할수 있는 생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하늘에 사다리를 놓아/자신의 한평생을 고여주실분!》이라는 비유적인 형상적표현은 참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시적표현이다. 이 시적표현은 인민이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라면 자신의 한생을 다하여 기어이 그 소망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감사의 진정넉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시는 꿈장면을 환상적으로 펼쳐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모습을 시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서 뜨겁게 울려나오는 시대적감정의 진실을 깊이 천명하고있다.

하지만 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관리위원장의 극적인관계에서 이야기를 펼치면서 시를 승화시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담시보다도 서정시라는 인상을 주는 아쉬움도 있다.

봄빛도 질어가는 계절, 이 땅에 남기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미소 4월의 봄빛으로 흐르는 이 땅.

시 《봄빛넘치는 대지에서》는 4월의 봄날 농민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정녕 잊을수 없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추억의 세계를 자유분방하게 펼쳐며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봄빛넘치는 대지의 서정은 한평생 농민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이다.

시인은 짧은 서정시에서 진정이 넘친 소박한 주정의 토로,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는 감각적인 섬세한 표현들과 시적일반화로 봄빛넘치는 대지의 서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늘 농민들과 어울려 하신 소박한 《밭머리식사》와 나무리별 농민에게 허물없

이 권하신 《구수한 담배》, 물풍경을 배경으로 농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한평생 농사를 위해 바치신 로고의 자옥자옥을 《논머리 찬이슬 제일 먼저 떨어지던분》, 《손수 벼이삭 알수까지 헤여보시며》 등 추억을 더듬으며 감각적이고 표상적인 생활세부로 노래함으로써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목매이게 체험하게 한다.

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태우시여 《대지에 빛과 열》을 주시고 《곡식과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태양으로 격조높이 칭송함으로써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히고 시의 사상성을 강화하고있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추억의 세계가 자식된 도리를 지켜 수령님의 전사로 살아가려는 깨끗한 량심과 의지의 감정으로 이어져 주정을 펼침으로써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인민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웅심깊게 천명하고있다.

...
아, 그 품 떠나 못사는
이 땅은 영원한 수령님의 땅!
날마다 수령님이야기 뜨겁게 나누며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수령님노래 부르며
가장 깨끗한 마음들이 들을 가꾼다
가장 열렬한 가슴들이 대지를 지킨다

참으로 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열정이 혁명전사들의 혁명적의리, 량심과 하나로 이어져 선군시대 인간들의 심장의 목소리로 터침으로써 송축의 감정이 더욱 절절하고 뜨겁게 울려오게 하고있다.

선군시대 서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들인 《위대한 탄생》(오영재 작, 2호), 단시초 《려명이 비긴 땅에서》(김만영 작, 2호), 《장군님과 새벽》(박근원 작, 6호), 《그이는 봄날에 탄생하시였다》(김경남 작, 2호)도 탐구가 엿보이는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시 《위대한 탄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해돋이의 첫 해살을 받으시며 새 세기의 빛나는 태양으로 탄생하신 환희와 걱정을 격조높이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
-맞으라, 누리여
새 세기의 빛나는 태양을
조선아
미래를 맡기라
위대한 영웅의 크나큰 품에

시는 정론적이고 량만적인 수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퇴성을 올리시여 력사의 운무속에 잠겨있던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가 펼쳐지고 환희로운 봄우뢰가 높이 울리는 속에 새 세기의 태양, 경애하는 장군님 탄생의 환희와 걱정을 노

래하고있다. 시는 환상의 나라를 백두산마루에 펼쳐 백두의 래일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인상깊고 뜻깊게 노래하고있다.

단시초 《려명이 비낀 땅에서》는 선군시대 렬명이 비낀 오늘의 시대의 걱정을 각이한 시적대상과 시점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인상깊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주체의 건군사에 또 하나의 새 렬사의 장을 펼친 주체49(1960)년 8월 25일,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었던 렬사의 그날을 시작계기로 하여 선군령장의 위대한 선군장정의 길을 격조높은 주정으로 자유분방하게, 폭이 있게 노래한 장시 《빛나라, 위대한 선군길이어!》(신병강 작, 2호), 격조높은 주정으로 백두산혁명강군의 탄생을 노래한 《오, 4. 25!》(김대성 작, 4호), 전사들에게 요구성을 높이는 지휘관의 웅심깊은 심정을 노래한 시 《지휘관의 마음》(김승국 작, 2호), 위대한 선군령장의 숭고한 군인적품모를 뜨겁게 노래한 시 《위대한 군인》(원향일 작, 4호),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정 맺으며 그이의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한 나날을 가슴뜨겁게 추억한 시 《나의 병사시절이 흘렀다》(박성일 작, 4호)도 뜻깊은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이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총대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가는 긍지와 자부심, 승리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고있다.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 《하나》(무동식 작, 1호) 인생의 교훈과 생의 심오한 철학을 노래한 시 《젊은 벗들에게 다시 하고싶은 말》(박세옥 작, 5호)도 시인의 사색과 열정, 탐구정신이 시줄마다 스며있는 좋은 시들이므로 하여 주목을 끈다.

시 《하나》는 형일무장투쟁시기 류레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를 시적계기로 하여 혁명적신념을 오늘 선군시대에도 즐기치게 대를 이어 계승해야 한다고 노래함으로써 렬사작품과 깊이를 보장하고있다.

남패자를 떠난 신념의 화신들
투사들대오에 발걸음 맞추며
백두의 선군령장 장군님만 따라서
인생의 끝까지 곧바로 곧바로

정서적호소가 뜨겁고 주장도 명백하다.

시는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를 요란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언적이고 직선적인 시어로 추상화, 개념화하지 않고 철학적인 문제, 운명적인 문제로 승화시켜 폭있게 펼쳐 보여줌으로써 혁명적신념이야말로 목숨처럼 소중한 우리 운명과 조국, 미래의 운명적인 문제로 된다는 깊이있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시는 논리가 강하여 양상한감이 있으나 단일문장으로 우리의 심장속에 필승의 신념을 박아주려는 형상적의도로 하여 다소 해소되고있다.

시 《젊은 벗들에게 다시 하고싶은 말》은 시대를 뜨겁게 포용한 시인의 한생의 체험속에 터친 량심의 토로이다.

짧은 6개의 시들로 서정시를 이룬 이 시는 매시마다 종자가 있고 글줄마다 인생의 교훈과 생의 철학이 숨배여있어 후대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량심의 죄책감, 각성을 주는 사색깊은 좋은 시이다.

생활속에 깊은 정서적충격을 받아안고 선군시대 인간의 주도적인 감정과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성격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시를 창작하자.

시적체험과 진실성

시는 체험의 산물이며 감흥의 열매이다.

시문학의 고유하고 참신한 생활정서는 생활에 대한 시적체험이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다.

생활과 시적체험, 이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창작에서 기초적이며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사실을 보고 확인하고 안다는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아직 체험이라고 할수 없다.

현실에서 받은 정서적충격과 강렬한 느낌, 그것이 작가의 체험이다. 그것은 시인의 생활체험이 높은 사상정신적체험과 사색의 진실로 이루어지는 체험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올해 상반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 《산-녀인》(리연희 작, 3호)과 시초 《우리 집》(박정애 작, 3호), 련시 《환송역두》(박철 작 5호)는 시인이 생활속에서 시적충동을 받아안고 깊은 사색으로 진실한 서정을 노래한 시들이다.

시 《산-녀인》은 한생을 산과 함께 살며 그 산을 가꾸어온 너무나도 평범하고 순박한 녀성관리위원장을 노래하고있다.

...

아
녀인의 품에 안기여
태연히 웃고있는 산
나는 산의 표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녀인의 품에 안기여/태연히 웃고있는》그 《산의 표정》은 얼마나 시적환상이 나래치는 시적발견인가.

깊은 미학정서적의미를 안겨주는 이 체험세계의 분출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개간자의 참모습, 자식을 소중히 안듯이 산을 품에 안은 녀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생동하게 표상하게 한다.

시는 고생을 고생인줄 모르고, 기울인 정보다
바쳐야 할 그 정이 얼마인지 따로 헤아릴줄 모로
는 너인의 사랑의 노래, 모성애의 노래이다.

시에서 《성미세찬 골개물도 내물처럼 길들여》,
《침침산마다 휘여감은 저 길들은》, 그날 《풀새
없던 너인의 허리띠》, 주름주름 푸르러 흘러내린
《산자락은/이슬에도 땀에도 눈비에도 함께 젖던/
너인의 그 치마자락처럼》, 《앞산의 염소무리 양
무리 소리쳐 불러도 보며》는 얼마나 참신하고 감
각적이며 표상적인 시적표현들인가. 자식에게 사랑
을 쏟듯 한생의 정을 깡그리 기울여 산을 자식처
럼 품에 안아 가꾼 너인의 모습이 안겨오는것이다.

...

한손을 들어 가리키는 무주채골 갈밭골이
또 다른 손을 들어 가리키는 벽두팔 금바위골이
우우- 설레며 화답하며 메아리치며
너인의 품에 달려와 안기는 산...산

...

참으로 시에서는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평범치
않은 거인의 모습, 사심없는 자각과 책임감, 깨긋
한 량심을 지닌 산과 같은 거인적인간의 형상이
우뚝이 떠오르는것이다.

해빛속에 내리는 봄비속에서 령롱한 빛을 뿌리
는 산, 그 산을 안고있는 거인적너인의 표정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

하지만 이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이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그의 거룩진 큰 손을 잡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지켜 자강땅의 심심산골
농장을 잘 꾸린데 대하여 높은 치하를 하신 바로
그 녀성관리위원장이라는것을 시적으로 잘 부각
했더라면 시적감동과 교양적의의가 더 컸을것이
다. 또한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이 선군시대 인간
이라는것을 좀더 명백히 안겨오게 쏘아박았더라
면 좋았을것이다.

작가로 준비되고있는 과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
겠지만 간고한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격동적인 현
실속에 있다고 하여 시적체험이 저절로 이루어지
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초 《우리 집》을 좋게 보았다.

누구나 늘 생활하는 평범하고도 레사로운 인민
반생활을 노래하고있는 이 시초는 시에 큰 사상을
담을줄 아는, 시를 다루는 재치있는 솜씨에 앞서
어떻게 생활을 대하며 그 생활속에서 어떻게 시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작가의 자세에 관한 문제에
많은 교훈을 주는 좋은 시초라고 생각한다.

집에 가며는 종종 만나게 되는 인민반장과 늘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게 되는 경쟁도표, 집집에
날아드는 새 소식과 창가에 흐르는 불빛, 이 평
범한 생활에 시가 있고 심오한 사상이 있다고는

누구나 별로 생각해본적이 없는것이다. 하지만
시초 《우리 집》에서는 이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
상을 찾고 소박하면서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

날마다 가지가지 사연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사랑과 정으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말없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거니

...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사회주의 꽃술을 가꾸는 원예사인듯

...

인민반장!
인민이라는 그 숭엄함과 어울려 부르는
고귀하고 값높은 부름

...

(시 《우리 인민반장》 중에서)

...

높낮은 직급 따로 없이
순결한 량심들 어깨를 겨루며
조국을 받드는 장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인듯

(시 《도표》 중에서)

시인이 인민반장을 사회주의 내 조국의 꽃술을
가꾸는 원예사로, 인민이라는 숭엄함과 어울려
부르는 값높은 부름으로 그리고 마을의 붉은 줄
경쟁도표를 순결한 량심들 어깨 겨루며 조국을
받드는 아름답고 장한 모습으로 본것은 얼마나
생동한 시적천명인가.

마을에서 군대나간 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과 새 발명으로 박사증을
탄 소식, 세계녀자축구계를 놀래운 장한 딸의 소
식 등으로 문과 문을 두드리는 새 소식을 경사로,
행복으로 감수하며 서정을 더친 시 《기쁜 일 늘
기쁜 일》은 마을의 경사를 우리 집, 우리 가정의
경사로, 행복으로 감수하는 화목하고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높고 순결한 마을사람들이 안겨오고있
으며 그 모든 생활을 미소를 띄우고 따뜻한 눈길로
조용히 바라보고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이는듯 하다.

특히 이 시초중의 시 《인정의 불빛》은 시초의
서정을 승화시켜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늘 머나먼 취재차로 집을 비워두고 떠났다가

때늦게 돌아올 때도 불이 꺼져있는 자기 집 창가를 보며 불빛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시인의 이 마음에 독자들도 함께 긍정하며 뜨겁게 공감하는것은 《인정의 불빛》이 가슴속에 비쳐오기때문이다.

《인정의 불빛》, 그 집약된 표현속에는 사랑과 정으로 서로 친형제가 되어 일심단결된 조국의 모습을 표상할수 있게 하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있다.

우리의 생활속에서 항상 보고 느끼고 호흡하면서도 남이 보지 못한것을 보는것, 남이 느끼지 못한것을 느끼는것이 시인의 관찰이고 감수가 아니겠는가.

시인은 자기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소중한 불빛의 영원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

세월의 끝까지 나를 감싸줄 빛이여
더 아름다울 래일로 향한 이 땅에 흐르는 정이여
이 세상 그 어디서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
온 나라 대가정을 한품에 안으신 우리 아버지
태양의 그 따사로움에서 흘러온 빛이여

(시 《인정의 불빛》중에서)

시는 바람세찬 길을 가도 어둠속을 갈 때도 시인의 앞길을 따라서며 비쳐주는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그 불빛은 온 나라 대가정을 한품에 안으신 우리의 아버지, 태양의 그 따사로움에서 흘러온 빛으로 노래함으로써 독자들을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시를 승화시키고있다.

시초 《우리 집》에서 시인은 늘 생각하면서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스쳐보내고있는 평범한 생활속에서 의의있는 사상을 찾았으며 주체의 내 조국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수하게 하였던것이다. 때문에 시인은 창작의 기초이며 창작의 전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생활에 대한 시적체험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시초에는 아쉽게도 결함도 있다.

시를 함축하여 세련시켰더라면, 사회의 세포인 가정혁명화문제로 폭을 넓혔더라면 독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었을것이다.

시인의 시적체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축적된 생활체험과 사색적탐구에서 얻어진 진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련시 《환송역두》는 시적체험과 사색적탐구에서 얻어진 진실을 개성적인 목소리로 웅심깊게 노래한 좋은 시이다.

시 《<전승>을 향해 나간다》, 《웃음》, 《한 가정만이 아니다》, 《어서 떠나거라, 아들딸들아》, 《어머니가슴에 꽃 한다발》은 신입병사를 초소에 떠나보내고 배려하는 생활세부에서 환기시킨 정

서를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깊이있는 사상을 뜨거운 시적주정으로 뿜어올리고있다.

시 《<전승>을 향해 나간다》는 신입병사들이 전선으로 가는 길은 《전승》을 향해가는 길이라는 락관이 뜨겁게 소용돌이치고있다.

...

어머니조국을 지켜
원췌에게 죽음을 주리라
청년들 산악같이 떨쳐나
전선으로 나간다
아, 《전승》을 향해 나간다!

이 시련이 전승의 그날이 눈앞에 보이는것과 같은 확신과 기대로 가슴을 들먹이게 한다. 그것은 시가 평화로운 날에도 미체에 의해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오는 준엄한 극적정황속에서 전선으로 가는 병사들의 사상정신적각오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주었기때문이다.

시 《한 가정만이 아니다》도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를 포착하고 정서를 펼친것으로 하여 시대적정서를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인민군대에 입대한 전사가 초소로 떠나는 날 환송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역전의 광경을 화폭적으로 펼쳐보인 이 시는 한명의 병사를 조국방선에 세우는것이 온 가정, 온 학교, 온 마을의 중대 사임을 새겨주면서 선군시대의 시대적정서를 신념과 의지로 새기게 한다.

특히 시 《어서 떠나거라, 아들딸들아》는 우리의 신입병사들이 그 어느 초소, 그 어느 부대에 가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영광의 길임을 뜨겁게 느끼게 하는 좋은 시이다.

...

땅과 바다, 하늘
그 어느 초소에 가도
우리의 아들딸 신입병사들은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최고사령부 한뜨락으로 가는것이다!

우의 시련에서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최고사령부 한뜨락으로 가는것이다!》는 시인의 깊은 체험세계에서 발견한 시적종자이다.

심원한 사상정서적의미를 안겨주는 이 체험세계의 분출에서 우리는 신입병사들이 장군님의 전사로, 선군혁명동지로 자라나게 될 래일을 그려보며 무한한 행복과 긍지와 자랑에 휩싸이게 된다.

련시 《환송역두》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난을 헤쳐가신 그 전선길, 조국통일을 마중해가는 길로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격류를 본다.

이 련시도 적지 않게 시적정서보다 론리가 강하고

산문화되어 시가 딱딱한감을 주는 부족점도 있다.

시는 생활의 아름다운 노래이다.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체험하고 그 생활 속에서 강한 충격을 주는 소재와 계기를 찾아쥐고 시를 쓸 때 시대정신이 강하고 진정이 넘치는 훌륭한 서정시를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선군시대 격동적인 생활은 일반적웨침이나 호소로써가 아니라 독특한 시적충격과 감흥의 울림으로 시대의 지향과 기상을 뜨겁게 노래할 때 진정 시다운 시를 낳게 된다.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온넛으로, 의리와 량심으로 되여 시대의 영웅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대는 생활을 더 진실하고 더 뜨겁게 노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태천의 기상을 창조한 청년영웅들과 선군시대 《진주보석》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발전소건설자들, 당의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안고 영웅적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의 고결한 인간세계는 온 나라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켰고 시인들은 이 무한한 격동을 담아 많은 시를 창작하였다.

그런데 《조선문학》 5호잡지에 편집된 시들인 《오신 날》(한광춘 작), 《<진주보석>으로》(김송남 작), 《대령강, 대령강아》와 《태천의 맑은 물》(한원희 작), 《태천이라 네 이름은》(홍준성 작), 《물이 오는 소리》(리동수 작), 《언제와 청춘과 사랑》(김명철 작)에서 시대를 뜨겁게 포용한 시인들의 열정에 넘치는 숨결을 뜨겁게 받아안을수 없다.

시 《오신 날》은 눈보라속에서 언제를 쌓고있는 돌격대원들 보고싶으시여 찬눈바람 몰아치는 설달그믐날과 정월의 그 추운날에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완공의 그날에조차도 대소한의 엄동설한에 오신 눈물겨운 걱정을 시에 담고있다.

시적정서를 첫시작부터 앙양시키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있는 이 시는 독자들에게 뜻깊은 서정을 기대하게 한다.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완공의 그날에도 엄동설한의 추운 날에 오시였는가. 그런데 시에는 시적제시만 있을뿐 그에 대한 정서적해명도 없고 감정흐름에도 맞지 않게 돌발적으로 대령강의 봄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봄!

지금은 봄!

대령강의 이 봄은

푸른 물결에 실려온 봄이 아닙니다

시인은 새로운 느낌으로 환기된 서정을 퍼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뒤가 뻗드름히 알리는 일반적인 해설로 시를 대치하였다. 결국 시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돌격대원들과 맺은 혈연의 정으로 뜨거운 숭고한 인간세계를 감동깊게 노래한 시로 되지 못하였다.

시 《태천이라 네 이름은》과 《언제와 청춘과 사랑》도 독창적인 발견과 개성적인 특색이 없는 기성의 틀에 박힌 시작품들이다.

산과 산이 손잡고

《빗장》처럼 가로지른 언제들

올려다보면 아슬하구나

바라다보면 아득하구나

...

어디냐 《맞들이전》, 《마대전》으로

낮과 밤 따로없이 뛰고 달리던 곳은

《함마명수》 처녀들의 손도

사나이들 못지 않게 억세졌다는 곳은

...

(시 《태천이라 네 이름은》 중에서)

시는 구체적인 체험에서 환기된 생활정서를 세 부적으로 섬세하게 그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표상을 그대로 옮겨놓고있다.

시는 객관적인 사물자체에 대한 단순한 화폭이 아니다. 때문에 남이 느끼지 못한것이거나 남이 느낀것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느껴지게 할만 한 발견이 있을 때 시를 써야 한다. 시를 발견하자면 생활을 심장으로, 온넛으로 체험하여야 한다. 한여름 뽕약벌 무더위속에서도 웃으며 마대전을 벌리고 칼바람 눈보라속에서 이발이 딱딱 마주쳐도 웃으며 태천4호청년발전소건설 돌격대원들은 결사전을 벌리지 않았던가. 청년돌격대원들의 피와 땀의 무게로 한치한치 쌓아올린 언제를 어찌 쉽게 바라볼수 있으랴. 그런데 시에서는 발전소 언제를 바라보며 《아슬하구나》, 《아득하구나》고 웨치는 시인의 메마른 웨침이 들려올뿐 그날의 전투장을 심장으로 안아보는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청년돌격대원들을 심장으로 포용함이 없이, 생활에서 받은 충격도 없이 시를 발견할수 없는것이다. 기성의 체험, 일반적표상으로 시를 썼기때문에 사적자료소재로 시를 끝맺을수밖에 없었다.

시 《언제와 청춘과 사랑》도 시의 제목을 보면 태천의 기상을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삶의 철학과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에 대한 깊이있는 시세계를 기대하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완공된 언제우에 모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죽음도 두렵없이 물속에 뛰어들 청년들의 그 정신, 그 투지가 어찌 위훈이 아닐것인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청춘들을 그 어데서 찾아볼것인가. 시에서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빛나는 태천4호청년발전소건 설돌격대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구체적인 생동한 시형상으로 노래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인은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속에서 받아안은 충격도 없이 일반적표상을 가지고 생활을 라렬하고있다.

...

얼음도 바위도 함께 까며 정이 들어
모닥불가에서 희망도 속삭였지

...

보람찬 청춘을 위훈으로 빛내이면
사랑도 아름답게 꽃피는것이지

...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의 사랑과 위훈에 대하여 노래한 훌륭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럴수록 시인은 자기의 얼굴이 뚜렷한 개성적인 체험 세계를 깊은 철학적사색을 통해 심화시키면서 그들의 영웅적투쟁에서 받아안은 아름다운 미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펼쳐야 했다. 그런데 시에는 새로운 체험과 충격을 안고 시인이 발견한 사상도 독창적인 형상세계도 없는것이다.

생활의 라렬, 상식적인 주정이 토로된 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가 아니다.

시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새로와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러자면 시대를 보는 시인의 눈은 빛나야 하고 생활을 대하는 시인의 자세에서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높은 당정책적안목과 진지한 탐구정신으로 생활을 새롭게 감수해야 한다.

우리 시인들은 올해 상반기 시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족점들을 부단히 퇴치해나감으로써 선군시대의 가수,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세계작가일화

체호브의 창작시간

흑해연안 따간로그시의 소상인가정에서 출생한 로씨야작가 체호브 안톤 빠블로비츠(1860. 1. -1904. 7.)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다.

작가의 형은 체호브는 새벽 4시부터 1 분도 창작실에서 떨어지지 않고 밤 11시까지 쓰는것이 보통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체호브가 작품을 쓰는 시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이 제기되어도 그를 만날수 없었다. 그의 안해는 룡담삼아 말하곤 했다.

《체호브가 항시적으로 제정한 창작시간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절대로 깨뜨릴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에 사랑하는 자기 안해가 죽는다 해도 그는 자기의 창작시간이 끝난 다음에야 그것을 알수 있었을것이였다.》

하지만 보다 큰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색과 탐구의 긴장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창작의

에 광범한 사회적활동을 벌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였는데 그 순간들에도 창작적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동시대작가 찌호노브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이렇게 썼다.

《면담시 나는 체호브에게서 한가지 특징을 알았는데 그것은 그가 항상 1분 1 초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색한다는것이다.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네 집 연회석에 앉아서 녀성들과 담화하면서 체호브는 항상 사색하였다. 이때문에 그는 때때로 자기 말을 스스로 중등무이하고 전혀 당치 않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것이였다. 이때문에 그는 담화도중 책상에다가 머리속에 무르익힌것을 두석줄씩 종이에다 써넣곤 하기도 하였다.》 그러고보면 체호브의 창작시간은 정해진것이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조직요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식의 문학운동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짜고들어 조직하고 더욱 힘있게 내밀어야 문학부문에서 다시한번 지난 70년대와 같은 일대 전성기를 마련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97(2008)년 9월 9일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6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과 민족, 우리 작가들의 운명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진 역사적사변이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 사회주의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공화국창건 60돐을 부강조국건설의 새로운 양양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신심과 락관에 넘쳐 총진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명작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문학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작가들의 양양된 열의를 적극 고무해주고 공화국창건 60돐을 주체문학의 사상에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종류

△ 소설문학

단편소설, 실화문학, 수필

△ 시문학

서정시, 장시, 서정서사시, 가사

△ 아동문학

단편소설, 단편동화, 우화, 동요, 동시

△ 고전문학

사화, 전설

△ 문학평론

평론, 단평

2. 전국문학축전작품의 주제

1)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주제로 한 작품.

2) 수령결사옹위의 위대한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공적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활동을 주제로 한 작품.

3)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4) 사람들을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사회주의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5)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6)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위훈과 온 사회에 날로 꽃피어나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주제로 한 작품.

7)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청년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

8)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

9) 6. 15북남공동선언의 요구대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주제로 한 작품.

10)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한 선조들의 슬기로운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3. 전국문학축전기間に 조직하는 다양한 사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기間に 창작기관들과 동맹산하 모든 문학분과위원회, 도 위원회, 초급단체들에서 작가들을 사회주의경제 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파견하여 정치선전과 경제선동, 시랑송모임, 벽시 전시회, 독자모임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고무하며 문학축전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4. 전국문학축전 참가자격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모든 현역 및 현직 맹원들과 후보맹원(해외에 있는 맹원들도 포함)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5. 전국문학축전작품을 보낼 곳

평양시 중구역 류성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 전국문학축전작품원고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통신으로 보내되 우편통신으로 보내 역사이야기

는 경우 반드시 봉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이라고 밝히며 봉투안에 작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직위를 적은 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전국문학축전기間に 총화사업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은 주체96(2007)년 7월 18부터 주체 97(2008)년 9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한다.

2) 전국문학축전작품들가운데서 우수한 작품들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발표한다.

3) 전국문학축전작품 심사결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이 되는 주체97(2008)년 9월 하순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들과 중앙의 신문, 소리방송들을 통하여 발표하며 입선작품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배움의 원리

시인이면서 학자였던 신숙주(1417-1475)는 일생에 대표작으로 《아적하 진중에서》를 내놓은 사람이다.

시의 내용은 이렇다.

북녘땅에 서리내려
갑옷은 얼어들고
말을 달려 백리길
적진을 쳐부셨네

밤은 지새는데
싸움은 끝이 안나
하늘의 별들을
들에 누워 바라보네

※ 아적하... 함경도 회령땅에 있는 아적랑인듯 함.

이런 시를 창작한 신숙주는 학문연구를 농사와

천짜기에 비유하여 이렇게 썼다.

《심고 김매고 그 결과로 낱알을 거두는것은 농사군의 일이요, 누에를 쳐서 실 뽑고 그것으로 비단을 짜는것은 천짜는 사람의 일이다. 심지 않으면 싹이 없으며 누에를 치지 않으면 고치가 없을것이니 따라서 김맷것도 실뽑을것도 없을것이거니와 만일에 심어놓고도 김매기를 안한다면 그 싹은 풀로 덮일것이며 누에를 쳐서 고치를 틀었다 할지라도 실을 안 뽑고 내버려둔다면 그 고치는 나비가 나서 못쓰게 될것이다. 그래서야 어찌 낱알거두기와 비단짜기를 바랄수 있겠는가. 필경은 굶주리고 일어 떨수밖에 없을것이다.

글쓰는 사람들의 배움도 또한 이와 같다. 글쓰는데 뜻을 두고 배우는것은 씨를 뿌리는것이나 누에를 치는것과 같으며 창작에 부지런한것은 김매는것이나 실뽑는것과 같다.

이리하면 인격도 원숙해지고 명망도 높아지는것이니 창작의 성과를 실지 일에 적용하는것은 낱알을 수확하는것과 비단을 짜내는것과 같다.》

삼국시기 식생활풍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풍속과 전통을 잘 알고 윤희게 살려나감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간직하고 민족의 존엄과 우수성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삼국시기에는 음식이 다양하게 발전하는것과 함께 식생활도구도 그 이전시기보다 상당히 개선되였다.

기록에 전하는 변두, 보례, 뽕선은 굽높은 의례용 그릇들이며 《맥반》은 고구려식쟁반으로서 춤무덤 벽화에 보이는 쟁반과 비슷한것이였다고 인정된다.

발굴된 삼국시기의 식생활도구를 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화식도구로서 술과 가마, 시루를, 식기류로는 숟가락, 저가락, 바리, 대접, 배뚜리, 보시기, 접시, 굽접시, 주전자, 잔, 장수배, 소반을 용기로는 독, 동이, 버치, 구유, 자배기, 나팔병, 단지, 항아리, 쟁반, 장군 등을 썼다.

삼국시기 식생활풍습의 발전은 고구려의 주방, 육고우물, 발방아, 상차림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서도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 고국원왕릉의 부엌칸그림에는 부엌아궁에 불을 지피고 부뚜막에서 음식을 끓이며 그 결칸에서 장방형의 밥상위에 식기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모습이 생동하게 보인다. 이것은 당시 부엌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지만 후세의 고려나 리조시기 부엌과 그 형태와 리용방법이 같은것으로 하여 고유한 조선식부엌의 연원이 상당히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푸주간은 이 시기 고기보관관리수준의

일단을 보여주며 오늘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석빙고와 《여름이면 음식을 얼음우에 놓아먹었다》라는 옛기록과 관련시켜볼 때 고기를 부패변질시키지 않고 잘 보관하기 위한 냉동저장법이 삼국시기에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용드레우물, 디딜방아 등은 당시의 물기는 풍습과 난알짚는 풍습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다.

삼국시기의 상차림풍습은 무덤벽화를 통하여 그 내용을 생동하게 알수 있다. 이 시기에는 독상, 결상, 결상, 술상, 다과상, 연회상차림이 있었다.

삼국시기 인민들의 식생활에서는 음식을 절약하고 부모들을 정성껏 봉양하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력사기록에 고구려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음식을 절약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삼국시기에는 비록 어려운 생활형편에서도 부모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귀한 음식이 생기면 이웃들과 다정하게 나누어먹는 미풍이 발양되였다. 《삼국사기》에 전해오는 온달에 대한 이야기는 집살림은 가난하였으나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정성다해 섬긴 이야기가 전하여온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일상 끼니때는 물론 좋은 음식이 생기면 부모와 웃어른에게 먼저 대접하였으며 그들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식사를 하는것을 례절로, 풍습으로 삼아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식생활풍습은 삼국사기에 한층 공고화되어갔다.

상식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꽃 패랭이

우리 나라 어디에 가나 볼수 있는 꽃 패랭이는 패랭이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높이 30~50cm 로 곧추 자라고 웃부분에서 가지를 친다. 잎은 마주나며 긴 버들잎모양 또는 띠모양인데 밑부분이 줄기를 둘러싼다. 6~9월에 줄기 또는 가지끝에서 붉은 보라색의 꽃이 1~3개씩 모여핀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5개인데 꽃잎의 가운데부분에 자주색무늬가 있다. 꽃잎변두리는 고르롭지 못한 톱이모양이다. 열매

는 둥근기둥모양의 튀는열매이며 7~8월사이에 꽃이 지는데 따라 점차 여물면서 끝부분이 3~4개로 갈라진다. 씨는 검은색이고 납작하다. 번식은 씨로 하며 포기가르기, 가지심기로도 한다. 햇빛을 좋아하며 추위와 가물에 잘 견디는것이 특징이다.

꽃 패랭이는 공원과 유원지의 꽃밭에 심으며 화분에도 심는다.

우리는 꽃 패랭이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조국강산을 더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앗을대로 앓으라》와 시인 김창술

해방전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유산의 대표작들 가운데는 시 《앗을대로 앓으라》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놀래였으리라 떨렸으리라
더러운 공기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리다를 다시 찾기 위하여
나뭇기는 기발밑에 장엄한 데모가 경찰서를
포위하고 또 습격하고...

앗을대로 앓아보아라
네놈들의 잔인한 테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녀려도 없겠고 주저할 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들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는 것처럼 시는 《단연히 소작료의 인상을 거절하》고 항쟁 본부를 조직한 다음 원썬들의 《잔인한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농민들의 격렬한 투쟁 감정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다소 산문화된 감은 주지만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농민들의 투쟁을 시적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단합된 대중의 위력과 투지를 격동적인 정서 속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그들이 창작한 장편소설 <고향>, <항훈>, 단편소설 <락동강>, 희곡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시 <민중의 행렬>, <앗을대로 앓으라>, <산재비>, <진달래>와 그밖의 많은 작품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무산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프》문학의 성과작의 하나로 지적하신 시 《앗을대로 앓으라》의 작가가 바로 당시 《카프》시단에서 쟁쟁히 이름을 날리었던 시인 김창술이다.

1906년 전라북도 전주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한 시인 김창술은 주체8(1919)년 겨우 보통학교까지 마치고는 생활난으로 상급학교가 아니라 어느 한 포목점에 들어가 점원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문학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자기의 생활처지로 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시창작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과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었다.

이미 17살이 되던 주체12(1923)년에 쓴 시

《반항》에서 벌써 그는 《나는 반항하어요/ 절대 평등을 부르짖으며/ 계급없는 사회를 희망하며...》라고 노래함으로써 계급적 모순과 대립에 관한 사상에 공명하고 그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빈농출신-젊은 시인의 창작적 자세를 뚜렷이 엿보이고 있다. 처녀작인 이 시를 발표한 이후 시인은 련이어 《초불》, 《긴밤이 새여지다》, 《대도행》, 《새벽》 등 계급적 경향성이 뚜렷한 시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주체14(1925)년 《카프》의 결성과 함께 이에 가입하면서 그의 창작은 한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당시 《카프》의 조직에 대하여 회고한 작가 송영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리하여 기어코... 한개의 조직을 창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련맹은 아니고 동맹임)이다.

...

그때는 1925년 8월 23일이였다.

...모여든 발기인이 1, 2인의 비작가를 제하고 나서 순연한 문학작가들이었으므로 해서 예술동맹이 아니라 문학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만큼 문학편중의 일방적 조직이었었다.

따라서 나중 운집하는 동무들도 모두가 문학작가들이였다. (례외도 있으나) 리기영, 한철야, 박세영, 박팔양, 김창술 등들이였다.》

(《조선프로예술운동소사》 (1), 앵봉산인)

보는 것처럼 김창술은 당대의 이름있는 작가들과 어깨 나란히 《카프》에 가입하여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주체16(1927)년 《카프》가 강령을 내놓은 것과 때를 같이하여 김창술의 창작도 한계단 높이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시 《전개》, 《지형을 뜨는 무리》, 《무덤을 파는 무리》 등의 작품들이다. 특히 주체18(1929)년에 발표된 시 《5월의 훈기》, 《가신 뒤》와 이미 앞에서 언급된 김창술의 대표작 《앗을대로 앓으라》 [주체19(1930)년]에서는 불가피한 당대 현실에 대한 증오심과 항거정신, 희생을 무릅쓰고 기어이 투쟁의 길을 걸어가리라는 투쟁작가가 격조높이 표현되고 있다.

김창술의 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의 격조가 매우 높은 것과 함께 서사적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서사성이 강화된 측면이다.

대표적으로 《앗을대로 앓으라》에서는 소작쟁의가 일어난 경위와 처음부터 《본부》를 꾸리고

격렬하게 벌어진 투쟁의 면모, 잔인한 탄압과 투쟁선도자(리다)의 체포, 리다를 탈환하기 위한 농민들의 폭동적진출 등 사건의 구체적 전개과정이 사상감정의 전개승화와 맞물려 펼쳐지고있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이러한 사건적요소의 도입은 당시의 프로문학비평에서 논의되었던 대중화론의 시적구현이기도 한것으로서 대중투쟁현실을 방불하게 재현하는데서뿐 아니라 시를 대중과 접근시키는데서도 효과적인 수법으로 되었다.

물론 서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서정시에서 서사적인 요소가 서정분출의 바탕으로, 계기로 맞물려있지 못하고 필요이상 람용되거나 지어 그자체의 라렬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여 시가 산문화

되고있는 측면은 창작에서 나타난 제한성으로 옮겨 분석해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김창술의 서정시들에 서사적요소가 도입되고 서사성이 강화된것은 로동자, 농민의 대중투쟁이 양양되는 현실을 모습그대로 생동하게 반영하려는 시적탐구의 소산으로서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시인 김창술은 창작에서의 이러한 긍정적면모와 함께 자기 활동의 전기간 우여곡절이 없이 계급적경향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일관성있게 창작한것으로 하여 해방전 진보적문학사에 뚜렷이 자리잡고있다.

김청송

고전시

절벽의 꽃 외 2 편

원작 박윤원 (1734-1799)

역 조정숙

절벽에 피어난 기이한 꽃이여

심은이도 없건만 절로 자랐구나

높고도 가파론데 자리를 잡고서

비바람 눈서리를 제일 먼저 맞는구나

밝은 달

비온 뒤라 선기가 감싸도는데

밝은 달이 하늘중천 비쳐주누나

은하수에 몸을 씻어 더욱 정갈해

구름도 너를 감히 범접 못하네

느낌

쉬파리의 소리는 듣기 싫어라

매미의 소리는 듣기 좋아라

내 왜 가려가며 증오하고 사랑하느뇨

너절함과 깨끗함이 판이하기때문이네